

월간 문화예술장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12 Vol. 240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2011 송년음악회

부산 MBC 창사 52주년 기념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I

Mahler Symphony III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부산시립교향악단

중국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경성대학교 합창단

소리바람 합창단

Program

말러 교향곡 제3번 라단조

2011.12.16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201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Classical Dance Music

클래식 춤곡의 향연



지휘 오충근 (고신대 교수)



작곡 오세일
(인제대 교수)



바리톤 박종화
(인제대 겸임교수)



악장 임병원
(경성대 교수)

연주곡목

보로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오세일 바리톤 솔로를 위한 <개개비 연가> <뮤즈에게> <한려일출>
만토바니 집시의 전설 外 수곡

2011.12.20(화) 오후 7시 30분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최정상의 연주자, 감동의 무대

을숙도 명품 콘서트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완벽한 하모니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의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와
 위대한 천재 피아니스트 **한동일** 협연



지휘 임준오



Piano 한동일

2011. **12.8**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2,000원 (균일)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부산은행 전 지점

주최 부산일보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New Prime Orchestra 문의 220-5805

후원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행복·공·감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BSCF 부산문화재단

부산인음방송 Homeplus 정림점 BS 팝부산 사하인터넷뉴스 부산은행

※ 본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본 공연은 <2011년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의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 본 공연은 초등학교생 이상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부산야마하피아노 전시장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공연장, 교회, 연주자, 전공자 특별우대 판매

신품 그랜드피아노 사이즈별 대여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 '백혜선', '진보라', 성악가 '폴포츠' 공연 지원
임재범, 이적, 거미, 휘성, 린, 브라운아이즈소울 등 가수 공연 지원

조율, 수리, 운반, 리빌더 전문

담당 : 국가공인 산업기사 오 지 광 010-5548-5404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두레라움)에 그랜드피아노 및 악기 공급업체로 저희 부산야마하가 지정되었습니다.

1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4 October, 2011

부산국제음악제 부산야마하는 부산국제음악제 피아노 공급 지정업체입니다.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051)743-7784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246-0660 홈플러스 해운대점 051)743-7785
홈플러스 장림점 051)266-4747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051)506-7332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010-4242-6382 롯데마트 웅상점 010-4911-6236

www.busanyamaha.com 부산진구 양정동 352-3번지(양정지하철역 2번출구 50M) 부산야마하피아노·악기사 전화 : 051)863-7060~5

환상적인 꿈의 동화속으로

(슈렉,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지휘 전 상 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공동제작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및 2011 송년음악회



오카리나. 박종근



지휘 이성훈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에코소울

특별출연 드럼 전상천 신디 문지은

프로그램

- 뮤지컬 Shrek(슈렉) - What's up, Duloc?, Travel Song, Who I'd Be Make a Move, When Words Fail, Freak Flag
- 특별출연 오카리나 박종근 -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 특별출연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지휘 이성훈) - 도라지 꽃,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 여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 특별출연 에코소울 - 윌리엄 텔 서곡, Java Jive, 사랑밖엔 난 몰라
-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들' - 제1장 숲속, 제2장 성안에, 제3장 숲속, 제4장 성안, 제5장 숲속, 피날레

출연 백설공주: 전소정, 왕비: 김태희, 거울: 박재하, 왕자: 이상윤, 마녀: 임규비
 난 장 이: 윤예연, 김효경, 김대희, 이유정, 정상오, 김지원, 임지민
 슈 렉: 윤동욱, 피오나공주: 최영화, 당나귀: 유명석, 고양이: 강성빈

· 반주: 이영욱 안무지도: 노금선 합창지도: 김양자

2011. 12. 10 (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입장권 무료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협찬 부산은행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culture.busan.go.kr

초대권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C/O/N/T/E/N/T/S

08 커버스토리

국립발레단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10 반갑습니다

신동에서 거장으로 2년만에 부산 찾는 첼리스트 장한나

13 프리뷰

20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㉔

12월, 갈림길에서 서서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파리 국립현대미술관 '랑데뷰:만남 혹은 희망' | 이재걸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㉔

바흐 이전의 침묵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흥난파 ㉔

미국유학 전·후의 창작활동 | 김창욱

30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㉔

흙벽에 종이창을 내고 비파를 연주하며 | 변광석

32 그곳에 가면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공간 'S&D'

34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36 리뷰

임병원 제 20회 바이올린 독주회 | 박진홍

극단 아센 '웨딩드레스' | 김문홍

38 프로그램 가이드

59 나의 애청음반

우연히 다가와 무한 감동을 전해주는

홍혜경의 'Laudate dominum' | 김희성

60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64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12월호 통권 240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11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국립발레단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차이코프스키의 경쾌한 음악과 33년 동안 볼쇼이발레단의 수장으로 명성을 이어온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현대적 감각으로 탄생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12월 7일과 8일 부산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주인공 소녀 마리가 환상적인 꿈속으로 여행을 한다는 동화적인 내용을 기본 줄거리로 하는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 쥐왕, 눈의 나라, 크리스마스 랜드 등 동화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전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다. 특히 눈에 덮혀 더욱 환상적으로 빛나는 거대한 트리와 새하얀 요정들의 춤, 호두까기 왕자와 마리의 사랑스러운 발레 동작 외에도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더욱 잘 어울리는 많은 장면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10년 ‘신데렐라’로 부산을 찾은 바 있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 이래 발레의 대중화, 명품화,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 무대에서 볼쇼이발레단과의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가지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은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볼쇼이버전이다. 키로프 마린스키발레단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볼쇼이를 러시아 대표 발레단으로 키워낸 유리 그리가로비치는 2000년 국립발레단과 ‘호두까기 인형(2000년 초연)’을 작업한 이래 ‘백조의 호수(2001년 초연)’, ‘스파르타쿠스(2001년 초연)’, ‘로미오와 줄리엣(2008년 초연)’, ‘라이몬다(2010년 초연)’ 등 총 다섯 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만나는 ‘호두까기 인형’은 뛰어난 군무 활용력으로 짝 찬 무대를 선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인공이 춤을 추는 동



안무가 유리 그리가로비치

예술감독 최태지



김지영

이동훈

김리희

정영재

안 군무진들은 마치 움직이는 무대장치와 같이 끊임없이 대열을 변화시켜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또한 통상 인형을 사용하는 호두까기 인형 역을 어린이 무용수가 맡아 보다 생생한 춤을 보여준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김지영과 이동훈, 김리희와 정영재가 마리와 왕자로 호흡을 맞춘다. 7일 무대를 갖는 김지영은 1997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입단하였다. 당시 김지영은 동양인으로 는 보기 드문 타고난 신체조건과 아름다운 신체라인을 바탕으로 뛰어난 테크닉을 선보여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1998년 파리 국제 무용콩쿠르 듀엣 1위(파트너 김용걸), 2001년 러시아 카잔 국제발레콩쿠르 여자 은상, 베스트 예술상, 2007년 알렉산더 라디우스상 (Alexandra Radius Prize)을 수상한 김지영은 2002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그랑쉬제로 입단하여 주역으로 활동하다 2009년 7월 부터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로 재입단해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공연 활동을 이어왔다.

이동훈은 2008년 9월 국립발레단에 입단, 매력적인 마스크에 힘이 넘치는 도약과 회전 등으로 우아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발레로 주목받고 있다. 비보이계의 유망주로 각광받다 뒤늦게 발레로 전향하여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 이동훈은 2006년 러시아 페름 아라베스크 국제발레콩쿠르 동상, 2009년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은상 등을 수상하고 국가대표 프로젝트 창작 발레 '왕자호동'에서 주인공 호동왕자 역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8일 무대에 오르는 김리희는 80:1의 경쟁을 뚫고 2006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국립발레단의 떠오르는 보석이다. 완벽한 신체조건과 깔끔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김리희는 2004년 불가리아 바르나콩쿠르 주니어부분 최우수 2인무상과 평론가상 3위를 비롯해 2005년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주니어부분 1등상, 2009 모스크바 국제무용콩쿠르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리희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정영재는 영국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다 2009년 7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영국국립발레단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인형' 등에서 주역으로 공연한 정영재는 남성다운 표현력과 점프가 특기이다.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culture.busan.go.k) ※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에서 거장으로-2년만에 부산 찾는
첼리스트 장한나



최고의 기량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장한나가 2년 만에 부산 음악팬들을 찾아온다. 7세에 국내 각종 콩쿠르를 휩쓸고 8세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 11세에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 최연소로 참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음악신동에서 현대음악을 이끄는 거장으로 성장한 장한나. 2009년 공연당시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는 장한나는 최근 사람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마에스트라 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12월 12일 공연을 앞두고 서면으로 장한나와 특별한 만남을 가져본다.

2년 만에 갖는 부산공연

부산은 생기가 넘치는 도시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바다에 자리 잡은 도시라서 참 특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매력을 갖고 있는 바다에 위치한 생기가 넘치는 도시... 참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좋고, 좋은 기억만 있네요.

음악실동에서 어느새 텃밭학 30대

매일매일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말씀 드리기 힘드네요. 매일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는 바로 알아차리겠지만요. 단, 꾸준한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진심과 최선을 음악에 하려고 노력하고, 음악은 연주자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고스란히 비추기 때문에 진심과 최선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2012년에도 이어지는 장한나의 왕성한 활동

내년에는 영국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리버풀 필하모닉, 이태리 나폴리 오케스트라, 카타르 필하모닉, 도쿄 심포니, 몬테카를로 필하모닉을 지휘합니다. 라벨로 페스티벌과 몽텅 페스티벌에서도 지휘일정이 있고 유럽에서 첼로 리사이틀 순회연주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독일 지휘 순회연주를 시작으로 2013년 봄까지 이어서 13주 동안 쪽 지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장한나, 음악의 깊이를 위해 인문학 선택

대학에 있을 때에는 연주일정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연주일정은 적어도 2년 전에 잡히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연주여행을 최대한 짧게 잡았지요. 물론 2주짜리 연주여행은 연주자 입장에서는 매우 짧은 투어지만, 대학생 입장에서 2주 동안 모든 강의와 토론세션들을 빠진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놓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결정했지요. 다른 사람들의 꿈인 하버드에 와서, 빠지면서 급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학기들은 아껴두었다가 안식년이 가능할 때 돌아갈 생각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저는 진로고민이 없으니깐

요), 또 제 연주회에 오고 음반을 사서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영화관으로 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식사하자고 불러내서 연습과 공부만 하는 대학생활이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줬습니다. 지금은 다들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든지, 취직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도, 샌프란시스코에도, 보스턴에도 여기 저기 대학 친구들이 있어서 제 연주회에 찾아오곤 합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무대

모든 무대가 잊을 수 없는 무대였던 것 같네요. 다음 무대가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연주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연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모든 연주는 저의 영혼이 담긴 저의 작품들이고, 제가 존재한다는 흔적입니다. 유명한 연주 홀들을 꼽을 수도 있고, 유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한 연주를 꼽을 수도 있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얹힌 연주를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제 연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 최선의 연주, 최고의 연주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20대를 보내며 꼭 하고 싶은 일탈

특별히 하고 싶은 일탈은 없습니다. 특별한 도전은... 글썄요. 음악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사회인으로서 더욱 공헌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과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몇 배로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채우는데 늘 충실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신, 마에스트라 장

2003년부터 지휘봉을 잡았는데 2009년부터 '장한나의 앵솔루트 클래식' 무대를 열어왔습니다. 남들은 새로운 도전, 변신이라고 하지만 글썄요... 저 자신에게는 변신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다른 장한나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스스로의 꿈, 나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일 -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꿈이면 됩니다...왜냐하면, 인생을 다 바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스스로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과 발전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기에, 꿈을 이루어 가는 그 과

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과정이 즐거울 때, 진심과 최선이 합해진다 생각이고, 그런 일상은 지극히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한나가 들려주는 감상포인트



‘노래와 춤’이 부주제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 독주회에서는 브람스의 두 첼로소나타를 연주하며 브람스 한 사람의 음악세계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노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래입니다. 악기를 배우지 않고 또 특별히 따로 음악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흥얼거리며 본능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노래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지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린 노래를 합니다. 그 만큼 음악과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깊이 엮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 상관없이 대중 문화를 보면, 노래를 하며 어깨를 덩실거리고 춤을 추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화입니다. 노래와 춤은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고, 누구에게나 가장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음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는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사가 없는 노래이지요. 모든 음악은 일종의 가사 없는 노래입니다. 음악은 바로 우리 마음이 노래할 때 그 때 태어납니다. 보칼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깊이 살아있는 노래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칼리즈에 이어서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위대한 첼로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노래가 아닌 순수한 기악 작품이지만, 이 소나타 안에 라흐마니노프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 라흐마니노프의 가장 유혹적인 매력이 있다면, 그가 사용하는 화음 들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음을 합해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의 화음은 마음 속 아픈 곳을 찌르는 듯한 아련한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매혹적입니다. 첼로 소나타는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반은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파야가 쓴 ‘7개의 스페인 민속노래’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가사가 있는 노래로 작곡된 작품입니다. 물론 첼로로 연주하기 때문에 멜로디만 들려드리고, 그 멜로디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음악적 노래란 가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속음악에 배어 있는 슬픔과 ‘한’을 느낄 수 있지요.

마지막 곡으로 피아졸라의 ‘르 그랑 탱고’를 연주합니다. 우리는 흔히 탱고하면 춤을 연상하지만, 사실 그 춤 또한 음악에 대한 하나의 reac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탱고란 춤이 있기 전에 탱고의 리듬과 성격이 담겨 있는 음악이 먼저 존재했고, 이런 성격의 음악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야만 했던 열정과 느낌들이 먼저 존재한 것입니다. 단순한 무곡이 아닌, 슬픔과 정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혼의 무곡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보칼리즈 노래로 시작해 탱고 춤으로 끝나면서 이 프로그램은 음악적 full circle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내년 봄에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런던, 더블린, 이태리 등 유럽 순회연주를 합니다.



2011 '타로' 정기연주회 창작음악극 '신춘향전'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09년 부산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1위에 선정되어 현대적 감각이 살아있는 신명난 타악 무대를 열어온 '타로(打路)'가 2011년 처음으로 창작음악극 '신춘향전'에 도전한다.

'신춘향전'은 온고지신, 문정성시 등 매년 관객을 위해 새로운 무대를 열어온 '타로'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무대이다. 우리 고전 춘향전을 기본 줄거리로 하는 '신춘향전'은 이형경의 극본에 이지영이 곡을 입혔다. 무대는 금정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 사또 아들인 이몽룡은 산책을 나갔다가 마을 장터에 있는 춘향을 보고 반한다. 둘은 이내 백년가약을 맹세했지만 이몽룡은 한양으로 떠나게 된 아버지를 따라 춘향을 남겨둔 채 기약 없이 상경한다.

부산예술대학 강열우 교수가 연출을 맡아 이몽룡과 마을 처녀 춘향과의 만남과 이별, 사랑을 '타로'만의 개성을 담은 역동적인 창작음악극으로 선보인다. 타로 & 재즈 밴드 Groovy의 연주, 난장 & 판의 풍물, 김희진의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고전에 새로운 재미를 더한 '신춘향전'은 극단 도깨비 대표인 연극배우 김익현이 변사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가 춘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노호성이 이도령으로 열연, 유쾌한 웃음과 신명을 전해준다. 세계 사물놀이 대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난장 & 판'은 드라마 황진희, 신돈,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타로는 '신춘향전' 외 그동안 구름과 태평소, 사물악기가 다이나믹한 어울림을 이루는 '셋·둘', 타로의 열정과 화려함에 서양 타악기의 정교함이 어우러지는 모듬북 합주 2011 '새울림'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산조, 중요무형문화재 제 72호 진도 씻김굿 이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대학교 박환영 교수의 대금산조 축하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사)새울전통타악진흥회 이사장 김청만 명인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모듬북 합주 2011 '새울림' 연주에는 전 일본 앙상블 콘테스트 타악기 5중주 금상을 수상한 후텐마 타케시가 특별 출연, 마린바를 연주한다.

2004년 창단연주회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열어준 타로는 그동안 부산벙스코 제 3차 OECD 세계포럼 '갈라디너' 초청공연, 2010년 거창국제연극제 개막공연,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광고제, 부산세계불꽃축제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타로는 2009년 일본 후쿠오카현 2개 도시 초청공연 전회 매진으로 일본에서도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 문 의 | (사)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583-7958, 010-6767-8872)



PREVIEW

부산MBC 창사 52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5회 정기연주회 말려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I - 2011 송년음악회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0년 말려 탄생 150주년과 2011년 말려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말려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1년 말려교향곡 제 3번으로 말려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자연과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음악 속에 담아 낸 말려 교향곡 3번은 전체 6악장에 이르는 연주시간과 연주규모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작품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중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CNSO)와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KSO), 그리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구성, 말려 교향곡 중 가장 긴 교향곡인 말려 교향곡 3번에 도전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연주에서 말려 교향곡 제 1번 '거인'을 연주한 이후 '말려'를 화두로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지난해 송년음악회에서 말려교향곡 제 2번 '부활'을, 2011년 6월에는 말려교향곡 제 4번을 연주한 바 있다.

이번 말려 3번 연주회에서는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메조소프라노의 맑은 음성으로 천지창조 이전의 혼란부터 영원한 사랑에 이르는 장대한 서사를 연주하기 위해 메조소프라노 김선정과 부산시립합창단, 경성대학교합창단, 소리바람합창단이 협연,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다짐하는 특별한 무대를 함께 연다.

말려 교향곡 제 3번은 1895년 작곡에 착수하여 1년이라는 단기간에 완성한 작품이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혼란스러운 세계로부터 영원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총 6악장에 걸쳐 우주를 이루는 자연과 동물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말려가 교향곡 제 2번 '부활'에서 죽음의 의미에 천착했다면, 제 3번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광대한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1부 제 1악장에서 목신 판이 깨어나면서 여름이 도래하고 이 세계가 생기



부산시립교향악단



중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리신차오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부산시립합창단



경성대학교합창단



소리바람합창단

로 가득 차게 되면, 2부인 2악장부터 6악장까지 천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된다. 특히 35분에 달하는 제 1악장은 도전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판(Pan)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대자연의 순환과정을 음악으로 묘사했다. 교향곡 3번은 교향곡을 완성한지 7년이 지난 1902년 6월, 크레펠트 음악제에서 말러 자신의 지휘로 곡 전체가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교향곡 2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소리를 편성, 4악장에서선 알토 독창의 영적인 음성을 더해 성찰의 느낌을, 5악장에서는 어린이합창, 여성합창을 더해 천사들의 청아하고 성스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4악장의 알토 독창은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이, 천사들의 청아하고 성스러움을 보여주는 5악장에서는 소리바람합창단이 출연한다. 연주시간은 약 1시간 40분에 이른다.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은 함부르크 음대에서 리트와 오라토리오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선정은 체코 프라하 극장에서 '피가로의 결혼'으로 오페라에 데뷔 후, 독일 브레멘, 카셀, 플렌스부르크 오페라극장, 함부르크 알레 극장, 미국 플로리다 극장 등 세계 각지에서 오페라와 오페레타 공연을 하였으며, 함부르크-그로세-무지크할레를 포함한 여러 콘서트홀과 수많은 교회에서 모차르트의 미사곡과 레퀴엠, 멘델스존의 엘리야, 바흐의 오라토리오와 미사곡, 브람스의 알토 랩소디 등을 연주하였다. 김선정은 2000년 윤이상의 '심청'으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 이래 예술의전당과 영국 로얄 오페라 하우스와의 기획 공연인 '오텔로' '리골레토'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앙드레 세니에'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소리바람합창단은 2004년 결성된 동요 부르미들의 모임으로 KBS창작동요제, 국악동요제, MBC창작동요제에서 우수상 및 인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2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연출 정순지

명작의 감동이 살아있는 연극!!
생각하는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가족 연극!!

11월 '동토유케'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 부산시립극단이 12월 21일, 22일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2011년 마지막 무대를 연다.

1881년 톨스토이가 1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장편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끝내고 난 뒤 4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첫 작품이라 당시 많은 사람들과 비평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별을 받아 별거벗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천사 미하일을 구해준 세몬과 부모를 잃은 쌍둥이 아이를 돌보아준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위대한 것인지를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작품이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부귀와 영광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은 모두 함께 뭉쳐서 사랑의 힘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의 연출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찾아본다.

지난해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연출한 정순지는 그동안 부두연극단의 흥행 신화로 남아있는 '19 그리고 80',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비롯해 '그 여자 이순례', '딸의 침묵' 등 휴머니즘이 강한 작품을 꾸준히 연출해왔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무대음악의 선두주자 전현미가 음악을, 참신하고 젊은 안무가 조영미가 안무를 맡아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감각적인 무대를 준비한다.

2011년 '1동 28번지 차숙이네' 'nowhere' '동토유케' 등 창작 무대에 서온 부산시립극단 배우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고전무대에 기대가 크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하일에 박준서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 세몬에 박규한, 세몬의 부인에 정행심, 세몬의 분신에 김은옥, 가게 아저씨에 김정훈, 부자에 이돈희, 구둣가게 손님에 김은희 등이 열연한다. 그 외 어린이는 곽은영(석포여자중학교), 곽세영(석포초등학교)이 특별출연한다.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3)



부산시립합창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 및 2011 송년음악회

F.Poulenc의 GLORIA(영광) & Merry Christmas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동신



소프라노 김유진

2011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부산시립합창단의 2011 송년음악회가 12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011년의 마지막 송년음악회 레퍼토리는 'F.Poulenc의 GLORIA(영광) & Merry Christmas'.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1년간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풍성한 관현악으로 더욱 특별한 송년무대를 열어준다.

1부에서는 'F.Poulenc의 GLORIA(영광)', 2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존 윌리엄스의 영화 '나 홀로 집에' OST와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따뜻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랑스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F.Poulenc의 대표 작품인 'Gloria'는 화려하고 낭만적인 색채를 자랑하는 대표적 영광송이다. 1965년 '최고의 합창공연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Gloria'는 소프라노 솔로와 합창,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진행되는 아름답고 웅장한 곡으로 특히 화려한 금관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유진이 출연, 'Gloria'의 영광스러운 무대를 함께 열어준다. 연주시간은 약 25분.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소프라노 김유진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고태국 콩쿠르 1등없는 2등상을 비롯해 대구전국성악콩쿠르, Anselmo Colzani, Schio, G.Martinelli-A.Pertille, 23회 Maria Caniglia, Mario del Monaco 특별상, Assami에 2회 연속 입상한 김유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 솔모나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 오페라 춘향전, 돈조반니, 라보엠, 나비부인, 글로리아, 마술피리, 아이다 등의 무대에 서왔다.

2부에서는 전 세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나홀로 집에'의 재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존 윌리엄스의 '나 홀로 집에' 모음곡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려준다. '나 홀로 집에'는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편곡, 영화의 즐거움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살려준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0회 정기연주회 2011 송년음악회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김철호

가야금 황병기

전자바이올린 김권식

소해금 박성진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으로 우리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1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2011 송년음악회’로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가야금 명인 황병기, 경기도

립팝스앙상블 단장으로 있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김권식, 평양예술대학 출신의 소해금연주자 박성진, 경상도소리보존회 회장 김옥숙이 출연, 흥겨운 한마당을 연다.

첫 무대는 황병기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침향무’로 연다. 국악인, 연주자를 넘어 음악 철학자로 불리는 황병기는 ‘가야금 명인’이자 최초의 ‘가야금 창작곡 작곡자’이다. 1974년 황병기 명인이 발표한 ‘침향무’는 동양과 서양의 공통적 원시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침향나무의 진으로 만든 ‘침향의 향기 속에서 추는 춤’이라는 뜻이다. 원래 장구 반주가 붙은 가야금 독주곡인데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과 함께 새로운 느낌으로 들려준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김권식은 김권식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연주로 흥동기 곡 ‘고구려의 혼’과 이스라엘 민요 ‘하바나길라’를 들려준다. ‘고구려의 혼’은 우리 민족의 씩씩하고 웅대한 기상을 표현한 곡으로 이번 연주회에서는 전자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국악관현악으로 편곡, 고구려의 박진감 있는 기상을 입체적으로 들려줄 계획이다. ‘하바나길라’는 전통적인 우리 악기와 이스라엘의 민속적인 장단, 선율을 조화롭게 구성해 만든 곡으로 전자바이올린과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려준다. 김권식은 클래식과 팝 음악을 넘나드는 장르 파괴를 시도하며 클래식 음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바이올린이란 악기를 대중들에게 새롭게 부각시켜 왔다.

북한 개량악기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은 이경섭 곡 국악관현악 ‘추상’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소해금은 바이올린과 해금의 중간 소리를 내는 묘한 음색의 악기로 2현의 해금을 4현으로 바꾼 북한 개량악기이다. 평양예술대학 출신인 박성진은 2006년 탈북한 국내 유일한 소해금 연주자로 SBS 스타킹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된 후 많은 화제를 모았다. MBC 드라마 ‘동이’ 주제가, ‘짝패’ 주제가 연주에 참여하기도 한 박성진은 지난해 연말 소해금 명곡집을 발매했다.

경상도소리보존회 회장 김옥숙은 이준호 편곡의 팔도민요연곡을 들려준다. 이 곡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한강수타령(경기도), 몽금포타령(황해도), 천안삼거리(충청도), 강원도아리랑(강원도), 밀양아리랑(경상도), 진도아리랑(전라도), 너영나영(제주도) 등의 음악을 재구성한 흥겨운 곡이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1 제야음악회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윤용운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우주호

2011년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렘을 함께 나누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소피아 국립음악원 음악가상, 루마니아 문화상, 루마니아 콘스탄자 음악가상, 6인 비평가그룹제정 오늘의 음악가상을 수상한 소월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윤용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색소폰과 해금의 서정적 음색으로 가는 해의 아쉬움을, 소프라노 김유섬과 바리톤 우주호가 들려주는 희

망의 선율로 청중들에게 특별한 2012년을 선사한다.

2011년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담은 첫 무대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연다. 마법 같은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초연 이후 매혹적인 스토리와 감동적인 음악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11년 공연 25주년을 맞은 '오페라의 유령'의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 'The Phantom Of The Opera' 'Think Of Me' 'Angel Of Music' 'The Music Of The Night' 'Masquerade' 'All I Ask Of You'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색소포니스트 제이슨 리(Jason Lee)의 연주로 영화 '타이타닉' 중 'My Heart Will Go On...', 케니 지의 'Going Home',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소현이 연주하는 '해금 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그 저녁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로 2011년 가는해의 아쉬움을 나눈다. 제이슨 리는 임재범 공연과 임창정 앨범, KBS 열린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2부는 소프라노 김유섬과 바리톤 우주호가 가곡 '그리운 금강산',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오페라 '카르멘' 중 '당신을 위해 축배를' (투우사의 노래) 등 새해의 환희를 담은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소프라노 김유섬은 마리오텔 모나코 국제콩쿠르, 이리스아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등에서 1등을 차지하고 이태리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바리톤 우주호는 아브루초 국제성악콩쿠르, 치타 디 로마콩쿠르, 타란토 성악콩쿠르 등에 우승하고 오페라 '리골레토' '오텔로' '시몬' '부카네그라' 등의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하였으며 토리노 심포니, 레체 심포니, KBS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진 바 있다.

휴식시간에는 제야음악회의 또다른 즐거움인 로비콘서트가 열린다.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정재연, 김희정, 알토 서미선, 이정윤, 테너 박성환, 강은태, 베이스 장용균, 이현성으로 결성된 아카펠라 그룹 '에코 소울(Echo Soul)'이 청중들과 만난다. 아카펠라를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에코 소울(Echo Soul)'은 찾아가는 음악회 및 부산세계불꽃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영혼의 울림을 선사해왔다.

- 입장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2월의 갈림길에서 서서

정일근 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지난 밤 꿈에 동티모르에 살고 있는 내 친구 '루이스'가 찾아왔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이 탄 커피나무 열매인 레드체리를 제게 보여주는데 붉고 선명한 열매의 꼭두서니 빛에 감탄을 하다가 꿈에서 깬데 '은현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웃풍이 심해 바람벽이라고 놀립니다만 저는 귀뚜라미 노랫소리가 타고 들어오는 '솔벽'이라 부르는, 찬바람소리가 유난히 세차게 들리는 우거 '청솔당'이었습니다. 마당에 따지 않고 놓아둔 붉은 산수유 곁에 한참이나 서성이며 마음 나누고 들어왔는데 그 붉은 마음이 동티모르 꿈까지 이어졌나 봅니다. 올봄에 아내가 좋아하는 산수유나무를 텃밭 곁 마당에 심었습니다. 꽃을 달고 이사 온 키 작은 산수유나무인데 다행히 열매를 조롱조롱 달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첫 열매를 자연에게 선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날 아가는 새도 먹고 가고, 더러는 떨어진 은현리 땅이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현리에 살면서 저는 제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이 들꽃 풀꽃과 새소리와 텃밭의 푸성귀를 아낌없이 선물하듯이 저도 은현리에서 얻은 것은 모두 은현리에 선물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제에게 100배, 1,000배의 선물을 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쁘구나, 참 예쁘구나' 인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쓴 시를 읽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올해도 은현리를 위해 이런 저런 선물을 계획했는데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어 미안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보냅니다.

3년 전에 동티모르에 커피농사를 짓기 위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머문 마을이 산간지역인 '로뚜뚜마을'이었습니다. 커피나무 꽃이 하얗게 피었다지고, 하얀 꽃이 지고 나면 녹색의 열매가 맺혀 붉게 익어갑니다. 로뚜뚜 마을의 사람들은 그 붉은 열매를 내다 팔고, 커피 시즌에 가동이 되는 원두가공공장에서는 열매의 과육을 벗기고, 그 속의 씨앗 껍질인 과치먼트를 깨어 그린 빈을 얻습니다. 빈은 또 다시 햇볕에 잘 말려 커피의 재료인 원두를 만듭니다. 저는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이 우리 앞에 놓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검은 손의 노동이 필요로 한 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따는 일곱 살 소년 루이스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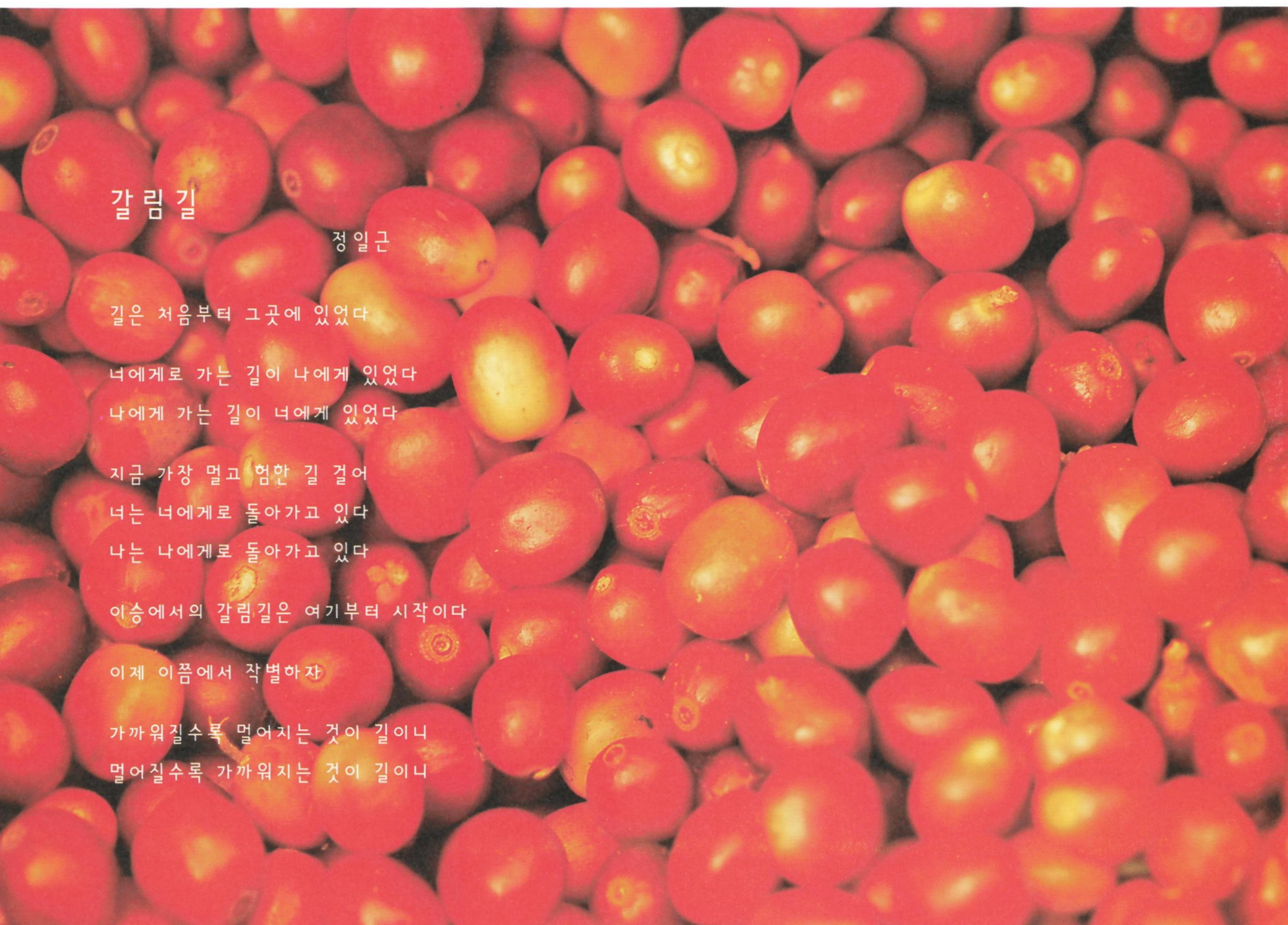
저는 루이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루이스 친구를 소재로 한 그림동화를 한 편을 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하지만 귀국 길에 말라리아가 발병해 사경을 헤매다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보니, 루이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올해도 커피열매를 따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못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엔 거창한 다짐을 하지만 연말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서 12월이 찾아오면 자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 뿐입니다. 당신의 12월도 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연재이다 보니 부족한 제 글을 사랑해주신 많은 독자 분에게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 자신의 뉘우치는 회한도 큼니다.

미리 받은 2012년 달력을 보니 '임진년' 용띠 해입니다. 용띠도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 띠라고 합니다. 돼지띠에도 황금돼지띠가 해가 좋고 호랑이띠에는 백호랑이띠가 좋듯이 흑룡띠 해에는 상서로운 기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 기운 여러분께 가득하길 충만합니다.

2년간 부족한 제 글과 사진과 시를 애독해주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두 해 동안의 '아름다운 동행'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박수가 있어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충전을 하고 꼭 다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고 정중히 작별의 인사를 청합니다. 편안히 가시길.



갈림길

정일근

길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

너에게로 가는 길이 나에게 있었다

나에게 가는 길이 너에게 있었다

지금 가장 멀고 험한 길 걸어

너는 너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나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승에서의 갈림길은 여기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쯤에서 작별하자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것이 길이니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길이니

사진 정일근

2년 동안 아름다운 은현리 풍경을 전해주신 시인 정일근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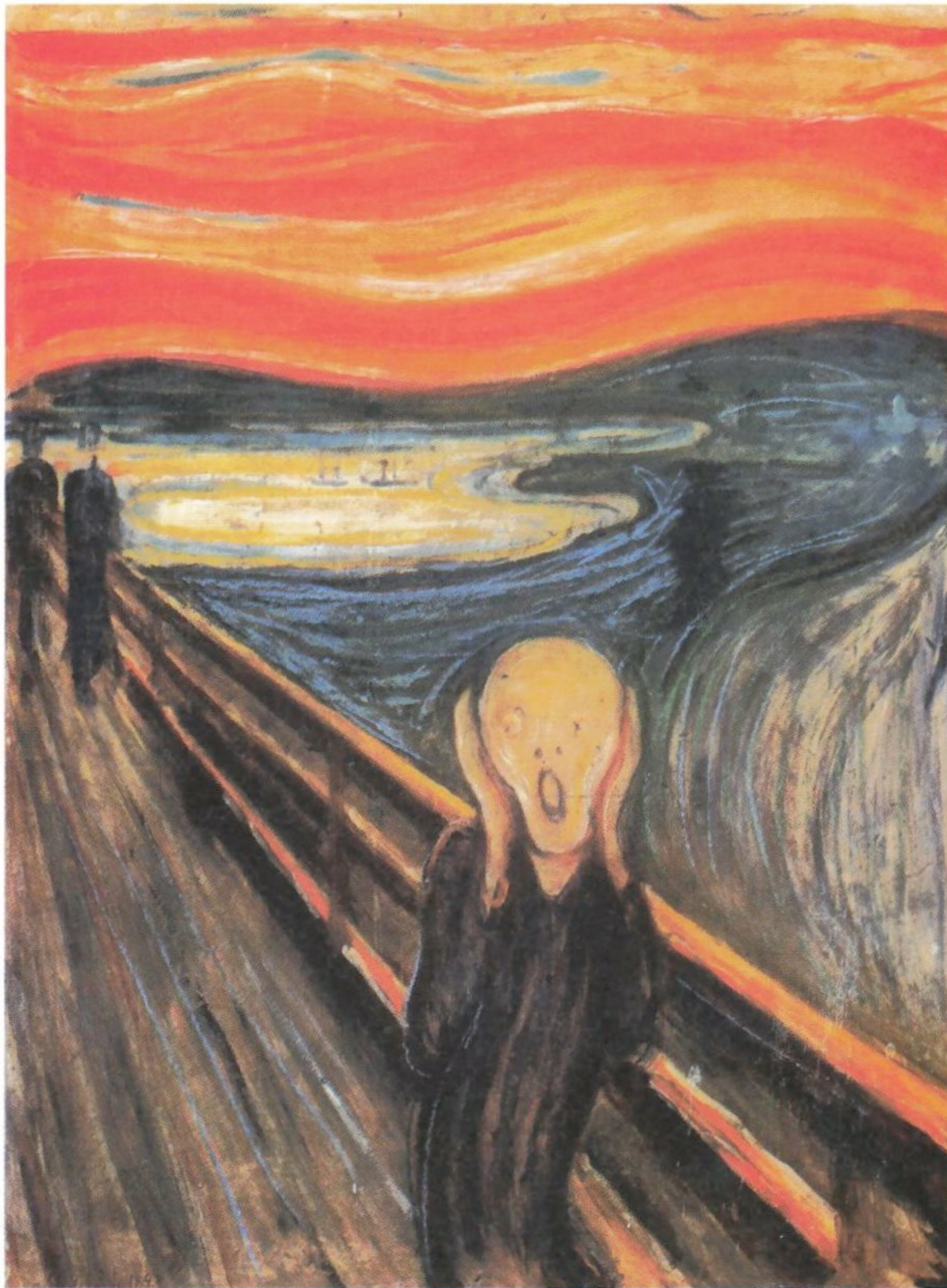
'몽크, 그 현대적 시선전' 몽피두국립현대미술관

파리 국립현대미술관 랑데뷰: 만남 혹은 희망

이재걸_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예술사 박사과정

수줍은 사춘기 소녀의 형용하기 어려운 성적(sexual) 혹은 존재적(existential) 불안(사춘기 1893). 인간이 막연한 공포 앞에서 지르는 강렬한 외침(절규 1893).

아름답고 숭고한 삶의 단편보다 거칠지만 좀 더 근원적인 감성과 문학적 우수를 화폭에 담아낸 노르웨이 표현주의의 대가 몽크(Edvard Munch, 1863~1944)의 대규모 전시가 파리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몽크의 '절규'



몽크의 '죽어가는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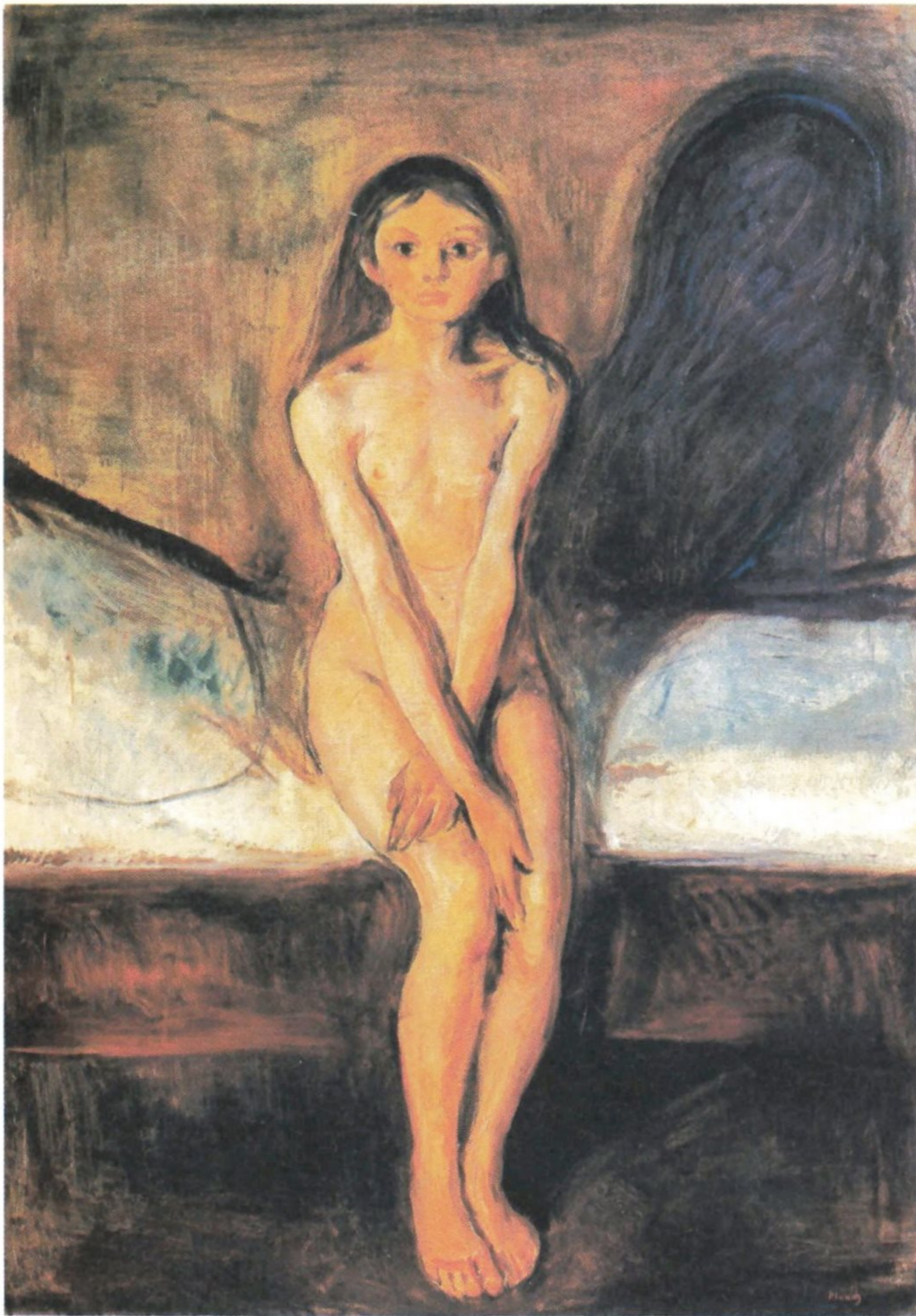
사실적 묘사가 주는 기술적 완성을 배제하고, 단순하지만 극적이며 유동적이나 솔직한 그의 예술 세계는 나약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고통의 현실과 만나는 우울한 <랑데부>의 장소이다.

랑데부(Rendez-vous)란 프랑스어로 만날 약속이라는 뜻인데 몽크의 작품에서 우리는 이 이질적이고 불편한 진실과의 랑데부를 경험하게 된다. 해의 강렬한 밝음과 그림자로 대변되는 어둠의 격렬한 대치는 몽크가 그려내는 랑데부의 핵심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서의 우리를 만나게 된다. 이미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를 결핵으로 잃은 몽크에게는 생명의 환희와 긍정보다는 그것의 병약함과 허무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이 오히려 당연했을 것이다. 그에게 죽음의 이마주(image)는 이러한 우울한 유년시절 체험을 통해, 암시를 뛰어넘어 극단적인 상황(<죽음의 방 1892>,<병든 아이 1888>...) 안에서 표출되고 있다. 고독은 치유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도사리는 감정으로, 고통은 죽음으로의 행위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beauty)는 즉흥적이고 깨져버리기 쉬운 봄날 한철 피는 여린 꽃 처럼...

몽크의 작품 안에 내재한 이 부정적인 서사들은 불쾌(disgust)의 영감과 우울한 정서(멜랑콜리 MELANCOLIE)로 가득 찬 잔인한 현재를 꿰뚫어 보는 듯하다. 행복은 우연적이며 불행은 절대적인 것 같은 몽크의 삶에 대한 성찰은 그러나 근대 인간의 고뇌를 열정적인 표현주의 기법으로 훌륭히 담아냈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그의 감정의 격동 혹은 참된 실재를 부정적, 신비적으로만 해석하려 한 주관적 잣대가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 안에서는 정돈되고 조화를 이룬 세계에 반하는 혼동과 비합리적인 이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와 회화방식은 몽크의 작품에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예술이 고통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예술적 정화(catharsis)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이유로 비록 스스로 소진되는 낭만적 열정일지언정, 삶을 대하는 이 화가의 시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는 건 비단 미술평론가나 미술사학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다.

파리의 이번 겨울을 채우는 것은 뭉크의 작품들 뿐만은 아니다. 계획적이지는 않았겠지만 한 세기를 차이로 뭉크의 음울한 세계와 견줄만한 현대미술의 거장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 1938~)의 전시도 파리시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독일의 신표현주의자로 불리는 바젤리츠는 우리에게 거꾸로 그려진 인간의 초상들로 유명한데 이번 파리 전시는 주로 그의 목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그는 일찍이 가공을 최소한으로 한 거친 화법과 강렬한 색채로 현대 표현주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는데, 그려진 그림을 거꾸로 매달아 전시하면서 초상들의 실존이 더욱 불안하게 표현되고 감각적으로 우연화되는 효과를 얻어냈다. 그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순간과 본능의 감정에 충실히 하려고 통일과 규칙이 기본이 되는 이상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주관과 감정, 변화와 다양성 등에 인간의 양상을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뭉크의 '사춘기'



바젤리츠, '조각가로서 전' 파리시립현대미술관

구 동독 출신의 그는 동구권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도, 서구권에서 유행하던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식 지적 예술행위도, 국제적 서정 추상 운동도 모두 거부하고 비 이성이 지배하는 광기에 찬 인간의 형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조각들도 회화 못지않게 원시적이며 유아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와 문화제도에 대한 극명한 저항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



바젤리츠, '조각가로서 전' 파리시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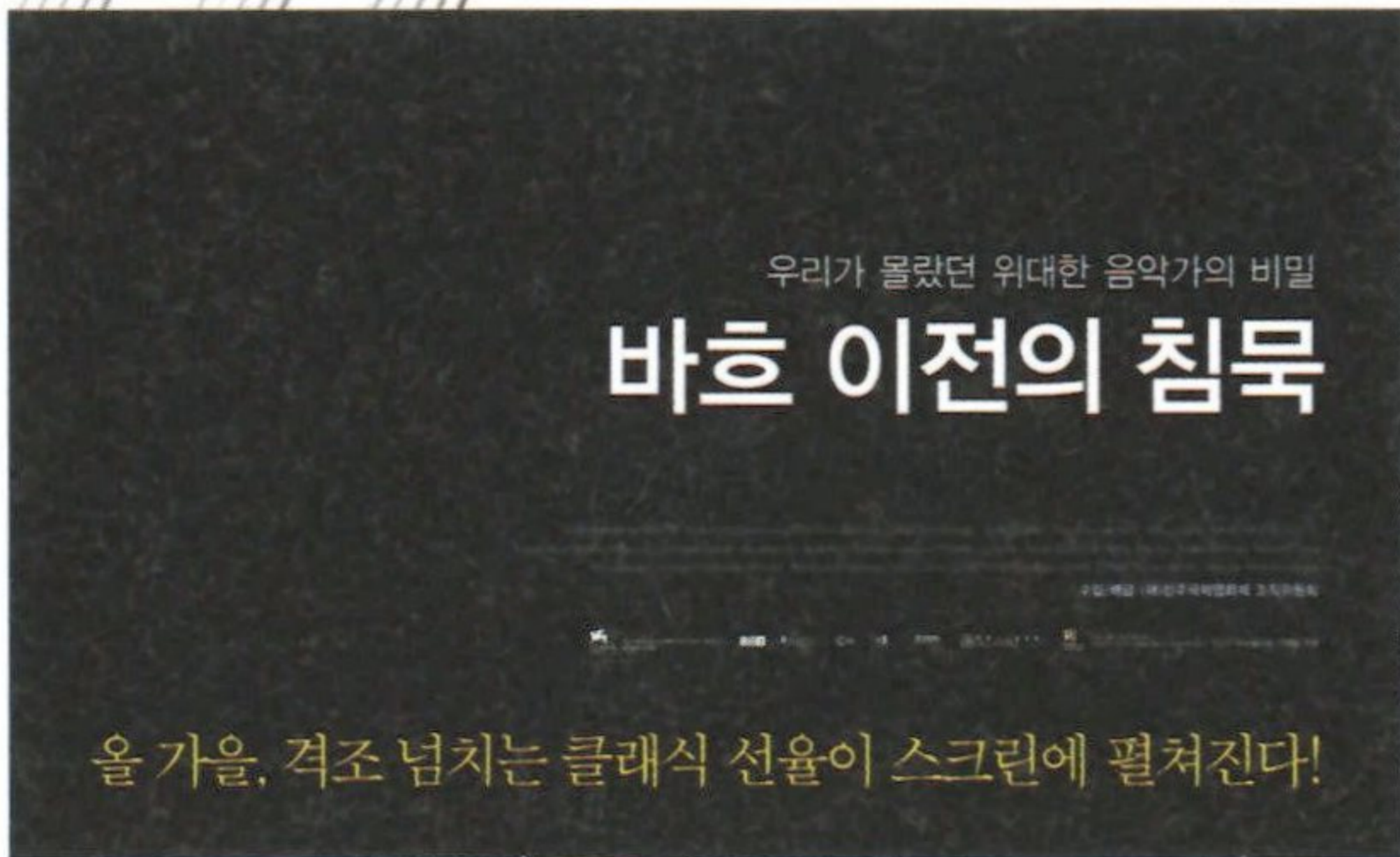
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고통은 뭉크에게서 볼 수 있듯이 바젤리츠에게도 작품의 주제이며 형태의 단조로움이나 상징적인 인물구성, 그리고 역동적인 미학은 이 두 예술가의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순수한 목적의 분노는 패자들의 전용으로만 이해하는 이상한 사회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거의 모든 일상을 바치고 있다. 짧은 생각이나마, 뭉크가 경험했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우리는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이 또한 즐겁게 포장된 지금의 현실 안에서 고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뭉크와 바젤리츠 작품 안의 감정들이 이런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 겪어야만 했던 소외와 그 산물인 공포에 가까운 실망인 것 또한 떨쳐버리기 힘든 사실이다.

우리의 자화상은 외면적으로는 늘 달랐겠지만 한 편으로는 같은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자신을 탓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리의 우울한 겨울 풍경 안에서 이 두 전시회를 가득 메운 사람 중 누군가에게는 인간 삶의 이러한 어두운 단면도 슬픔과 아쉬움과 포기의 상징이 아닌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의 시작으로도 보일 것이다.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알고, 진심으로 분노할 줄 알고, 진심으로 후회할 줄 아는 그 누군가는 뭉크와 바젤리츠의 작품들이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누이를 엄습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뭉크는 결국은 사랑을 보았던 것이다. 옮겨올 파리의 멜랑콜리는 여지없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시작되어 희망의 랑데부를 향해 미소 짓는다.

바흐 이전의 침묵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영화라기 보다는 바흐의 음악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한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

음악가를 다룬 영화는 대부분 그의 천재성이나 숨겨진 이야기 혹은 화려한 연주를 주제로 다룬다.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인 '바흐'를 다룬 영화이지만 보편적인 음악영화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영화는 시간의 흐름도 내용의 전개도 없이 비연속적인 에피소드만을 엮어 나간다. 현재에서 느닷없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의 삶으로 돌아온다. 바흐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흐 음악과 관련 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내러티브가 없는 영화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장르로 명명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스페인의 감독 '페레 포르타베야'는 바흐의 음악을 관객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반 영화들이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로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을 만들었다. 영화라기보다는 바흐의 음악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한 한편의 다큐멘터리라 부르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단조로운 하얀 회벽을 배경으로 자동피아노가 스스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인상적인 오프닝 시퀀스가 끝나면 영화는 별 설명도 없이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 조율사, 하모니카를 늘 가지고 다니며 틈만 나면 부는 트럭운전자, 바흐의 생애를 좇아가며 관광객을 인솔하는 가이드 등을 따라가며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흐의 음악과 만나는지를 묘사한다. 마치 인터뷰가 없는 다큐멘터리 풍의 에피소드들과 아직은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지 못한 재능 있는 오르간 연주가 바흐를 쫓아가는 드라마가 교차로 편집되어 관객을 혼란스럽게 한다.

'마태수난곡'이 발견되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극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다. 바흐가 작곡한지 약 100년 후 작곡가 멘델스존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연주된 마태수난곡은 20세기 초 첼리스트 카잘스에 의해 발견된 무반주 첼로 조곡과 함께 음악사상 최고의 발견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이 에피소드와 가난한 오르간 연주가이자 가장이었던 바흐의 삶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그의 생애를 담담하게 조명한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이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영화 속에 함께 배치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그의 아름다운 음악들이 주는 감동



시간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이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영화 속에 함께 배치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그의 아름다운 음악들이 주는 감동을 한편의 영화 속에 녹여낸다.

을 한 편의 영화 속에 녹여낸다.

192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페레 포르타베야 감독은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배우, 촬영과 편집 등 영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일흔일곱의 나이에 불구하고 지금도 스페인 영화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있는 거장이다. 그는 이 영화의 초점을 바흐의 만년인 1723년에서 세상을 떠난 1750년까지의 라이프치히 시대에 맞춘다.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감독(칸토르)로 봉직하면서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푸가의 기법, 음악의 헌정, B단조 미사, 수난곡과 칸타타 등 무려 500곡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던 라이프치히 시대는 바흐의 생애에서의 절정기였다. 루터파의 독실한 신자였던 바흐는 신에 대한 신앙심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고 매주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칸타타를 작곡했다. 그렇게 탄생한 200곡이 넘는 칸타타들은 바흐 이전이나 그 이후 어떤 작곡가도 이루어내지 못한 방대하고도 뛰어난 유산이다. 성 토마스 교회의 종교음악을 총지휘하는 칸토르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칸토르를 맡고 있는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빌러는 영화의 끝 장면에서 직접 출연하여 예배와 연주일정, 그리고 비신자였던 합창단원들이 매주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독실한 신자로 바뀌는 모습에 대해 증언한다.

그밖에도 2차 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독일군 장교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해야 했던 폴란드계 유대인 음악가이자 시인 시몬 라스가 남긴 '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음악은 상처에 불과했다'는 말과 함께 피아노를 강물에 던지는 인상적인 장면, 지하철 안에서 20여명의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무반주 첼로조곡 1번의 프렐류드, 바흐의 피아노곡에 맞추어 승마하는 모습과 성 토마스 교회에서 연주되는 파이프 오르간의 추상적인 모습 등은 바흐의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포르타베야 감독의 시적인 표현이다. 무엇보다도 바흐가 1742년 불면증에 시달리던 카이저링크 백작을 위해 작곡한 걸작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야말로 영화의 전편을 관통하며 이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묶어준다. <바흐 이전의 침묵>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변주를 이루며 바흐의 음악과 삶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지적 여행이다.

어떤 규칙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의 공통분모는 오로지 '바흐'라는 음악가와 그의 음악이다. 그러나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 첼로, 어린이 합창단 등 바흐의 음악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연주들을 통해 '바흐'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장치임을 깨닫게 된다. 감독은 우리에게 '바흐'라는 인물이 그의 위대한 음악을 통해 우리네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기승전결이 뚜렷한 드라마가 아닌 독특한 영화 형식으로 보여준다.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호 부터는 음악에 녹아있는 진솔한 문학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국유학 전후의 창작활동

김창욱_음악평론가



흥남파의 미국유학 출발 전 가진 송별 음악회

서우드음악학교에서의 작품창작

조선의 음악인들의 구미유학은 이미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1928년에서 1929년 사이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 1930년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테너 안기영은 포틀랜드의 엘리슨 화이트 음악학교를 2년 반만인 1928년 6월에 마쳤고, 시카고 건대학에서 수학한 28세의 현제명은 1928년 8월에 귀국한다. 훗날 경성음악학원을 개설해서 음악교육에 공헌한 바이올린 전공의 김재훈 역시 1928년 9월에 독일로부터 고국땅을 밟았다. 이들의 구미 유학은 당시 조선의 음악가들이 제도권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유학을 다녀온 음악가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

을 수 있었다. 1933년 현재 미국유학을 다녀온 안기영(성악·엘리스 화이트 음악학교)·박경호(피아노·신시네티 음악학교)·고봉경(피아노·웨슬리안 음악학교)·윤성덕(피아노·노스웨스턴대학) 등이 이화여전 교수로, 현제명(성악·시카고 음악학교)이 연희전문 교수로 각각 정착했던 반면, 일본에 유학했던 김영환(피아노·동경음악학교)·김원복(피아노·동양고등음악학원)·권태호(성악·일본음악학교)·이흥렬(피아노·동양음악학교)·홍성유(바이올린·동경고등음악학원) 등은 고등보통학교 및 보육학교의 교사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1931년 7월 말, 흥남파는 마침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가 도미(渡美) 유학을 결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좀더 배워 가지고 와야겠다”는 그의 음악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31년 9월 서우드음악학교 연구과에 입학, 이듬해 1932년 6월 졸업과 동시에 음악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기록은 흥남파가 1년, 또는 1년도 채 못되는 시간내에 학사학위를 취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러나 서우드음악학교의 학적부 자료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즉 관현악법과 작곡(Ochstration×Composition) 과목의 기록에 ‘Bachelor of Music Degree(Violin) 5/27/32’ 라고 쓰여져 있다. 곧 1932년 5월 27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그 기록 아래 ‘졸업식을 위한 모자와 가운 대여(Cap & Gown rental for commencement)’라는 기록도 있어 그의 졸업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6월에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는 그의 이력서와 거의 일치한다. 흥남파는 입학 당시부터 능력있는 작곡가로 인정받았고(A composer of no mean ability), 고급(advanced) 과목까지 수강하였다. 1년의 공부로 학사학위를 준 것은 흥남파가 일본 동경고등음악학원 본과에서 배운 3년간의 수업을 모두 인정해 준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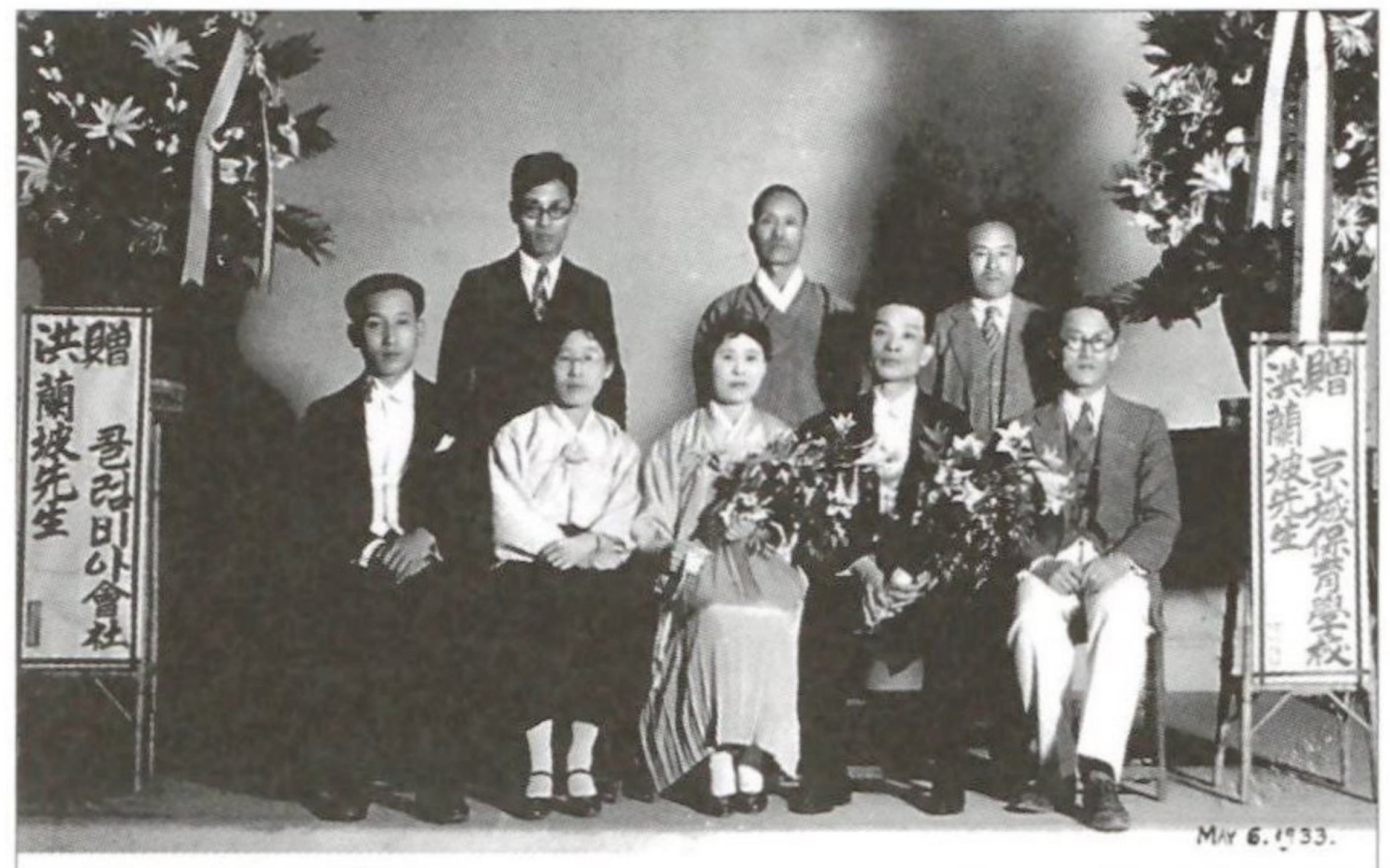
흥남파의 서우드음악학교 유학생들은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달팠다. 자신의 말처럼 생활비와 학비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서 낮이면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때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납부금과 레슨출석 상황을 주로 보여주는 그의 학적부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Financial' 자료에 의하면, 그는 'Balance Pay' 를 자주 했는데, 이것은 돈이 있을 때 있는 만큼 내고 돈이 생기면 덜 냈던 액수를 채우는 방식이었다. 그는 돈이 부족한 때가 많았으므로, 여러 번 'Balance Pay' 를 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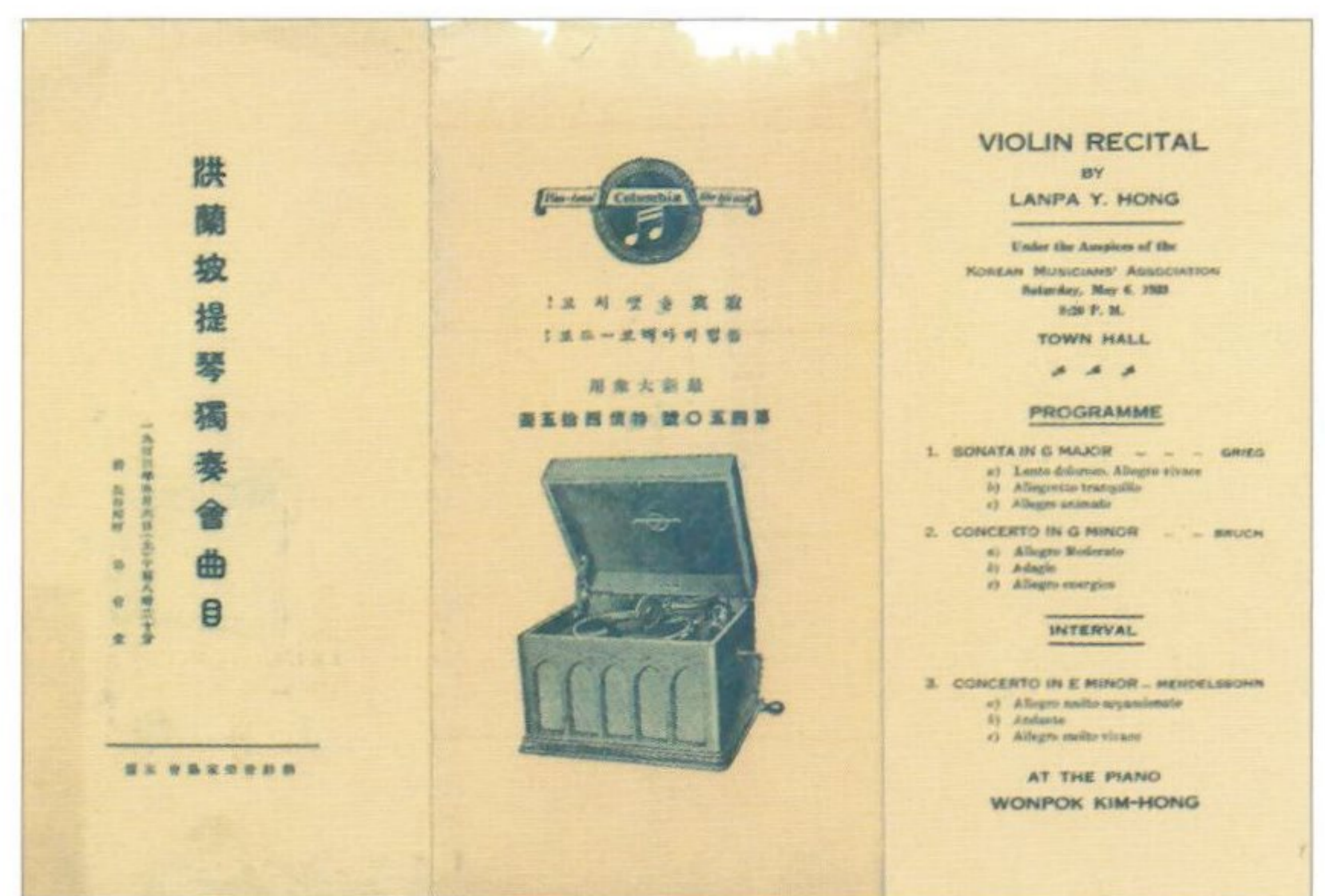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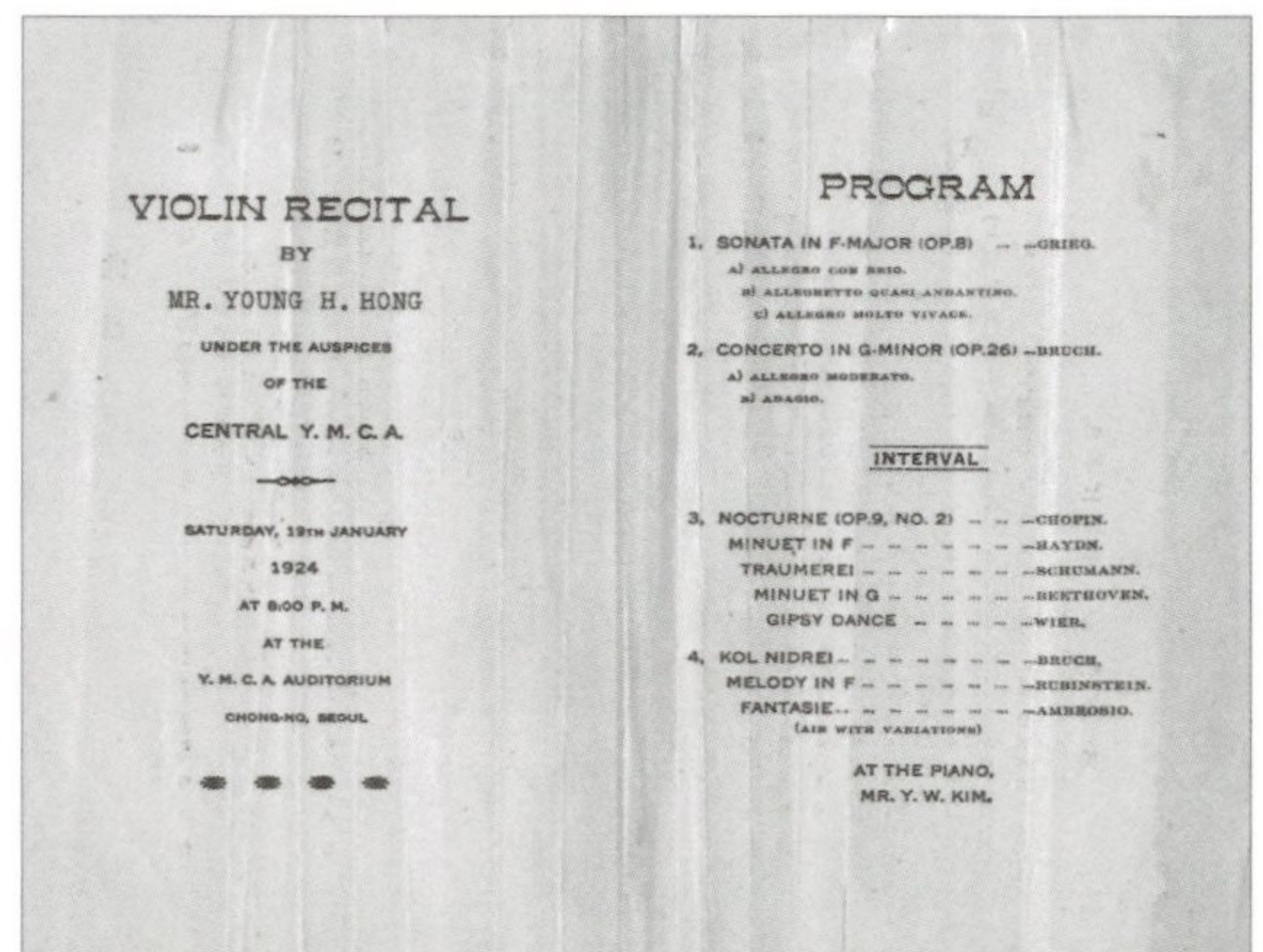
홍난파가 수강한 과목은 바이올린·관현악법·작곡, 그 가운데 대위법과 푸가였다. 그를 가르친 교수는 바이올린과 관현악법에는 폴센(P. Marinus Paulsen), 그리고 나머지 이론과목은 켈러(W. Keller)였다. 학적부 상으로는 다른 교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두 사람의 교수에게서만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33년 귀국독주회 프로그램에는 그의 바이올린 스승인 폴센의 사진이 자신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되어 있다. 이에 미루어, 미국유학 중 가장 큰 도움을 준 스승이 폴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유학 당시 홍난파는 이은상의 시조에 의한 '조선가요곡집' 제 1집과 '조선동요백곡집' 하편을 썼다. "나는 본업이 바이올린이지만 이번 길에는 바이올린은 한 주일에 한 시간만 배우고 음악이론과 작곡은 여덟시간씩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조선 동요가곡집 한 권과 조선 시조작곡집 한 권을 수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는 그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1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15곡의 가곡과 50곡의 동요를 작곡한 것이다. 귀국 후 1933년 5월 16일에 그는 이들을 연악회에서 출판한다. '봄 처녀', '고향생각', '옛동산에 올라', '사랑', '성불사의 밤', '그리움', '장안사', '금강에 살으리랏다' 등 그의 대표적인 가곡들이 모두 이 무렵에 작곡된 셈이다.

한편 유학시절, 홍난파는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 미주본부에 가입한다. 가입번호 266번의 통상단우였다. 1932년 11월 17일 홍난파가 흥사단 미주본부에 보낸 편지에는 학비문제와 지방단우회 모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1932년 9월 30일에는 자신의 교통사고에 대해 격려해 준 미주본부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1933년 1월 제 19회 흥사단대회 때 미주본부 단우들과 찍은 2장의 기념사진이 있고, 1931년 12월 8일 흥사단에서 작성한 그의 이력서를 볼 때, 그가 미국유학시절 흥사단 미주본부 단우로서 매우 활발한 민족운동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홍난파의 미국유학 후 가진 귀국 독주회



1933년 귀국독주회 당시의 프로그램.

흙벽에 종이창을 내고 비파를 연주하며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 '포의풍류'

조선시대 도화서(圖畫署) 화원들은 왕실이나 관청의 공적 임무를 띠고 기록화를 비롯하여 인물·풍속화 등 여러 분야의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었다. 공무에 종사할 때가 아닌 빈 시간에는 개인적 작품활동이 언제나 가능하였다. 김홍도는 젊은 시절부터 사대부 양반이나 중인 역관들에게 그림을 많이 그려 주었다. 또 이들 중에 부유층 인사들은 그의 재정적 후원자로서 많은 서화를 수장하기도 했다. 후원자 중에는 대청사행 역관 이민식(李敏植)이나 김한태(金漢泰) 같은 부자들도 있었지만(10월호 참조), 이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으로서 의관(醫官) 석농(石農) 김광국(金光國: 1727~1788이후)을 비롯하여 사대부 유한준(兪漢雋: 1732~1811), 역관 정사현(鄭思玄: 1738~?) 등과 같이 수장가로서 상당한 감식력과 문화적 눈높이를 가진 자들도 있었다.

정사현은 김홍도의 그림을 보는 눈이 여간 예사롭지 않았다. 일찍이 실학의 대가 이가환(李家煥)의 아버지였던 혜환(惠賔) 이용휴(李用休: 1708~1782)가 김홍도의 초상화를 보고 온화하고 고

상한 군자의 모습이라고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정사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다른 날 그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시고 음성의 기백을 접하시면, 이 초상이 도리어 칠분(七分) 밖에 되지 않음을 다시 깨달을 것입니다.

-이용휴, <탄만집> 대우암김군상찬(對右菴金君像贊)

이로 보아 정사현의 통찰력을 알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사현의 친구가 김홍도와 함께 활동했던 화원 김응환(金應煥: 1742~1789)이었으니, 가까이서 많이 듣고 배웠을 게다. 김홍도보다 세살 위였지만 둘은 늘 함께 그림을 그렸고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한 공로로 금강산과 영동지방의 사생(寫生) 기행의 특별 배려를 받은 적도 있었다.

유한준은 양반 사대부로서 고문(古文)에 뛰어난 문장가였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뜻을 접고 성리학 연구에 몰두한 사람이었다. 그는 문장이야말로 이름을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사업이라는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52세에 <자저(自著)>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시문집을 편찬하는 등 많은 글을 보충하고 편찬하였다. 평소 대수장가이면서 대단한 감식안을 지닌 김광국과도 가까이서 교류하고 있던 터였다. 그가 쓴 준본(準本)에서 김광국(자: 원빈(元賓))의 감식안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김광국은 그림을 이해하는 경지가 오묘하였다. 그가 그림을 보는 것은 형(形)이 아니라 신(神)으로서 보았다.

-유한준, <자저준본> 석농화원발(石農畫苑跋)

김광국은 부친을 따라 내의(內醫)를 지낸 의관 집안이며, 중국에 여행사와 함께 다녀오면서 왕실과 관청용 약재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곧 그의 재산은 엄청난 고서화와 골동품으로 바뀌어져 집안에 쌓여갔다. 하지만 그는 컬렉션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서화를 보는 안목이 상당한 사람이었다. 김홍도가 최고의 화원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 물론 그의 신필(神筆) 능력이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건을 도와주고 작품을 감상해주는 후원자들의 역할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은 김광국과 인연이 있는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종이담채, 27.9×37cm, 개인소장)> 작품을 만나보자. 흙벽으로 지은 소박한 초가의 방 안에 어느 선비가 단아하게 앉아 있다. 사방관을 쓰고 소창의(小釐衣)를 입고서 손에는 당비파(唐琵琶)를 쥐고 연주에 몰입해 있다. 주위엔 기물이 많이 보이는데 앞에는 생황과 칼이 놓여져 있고, 좌우로 문방사우를 비롯하여 서책질·도자기·고대(觚臺)속의 불로초·과초 및 표주박 등이 있다. 손때 묻은 기물들이 어지럽지 않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자연스런 배치를 보이면서, 고상한 문인의 정취와 그윽한 신선풍의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게 돋보인다. 맑은 얼굴색과 백의의 자연스런 옷주름이 잘 조화를 이루었고, 굵고 얇은 필선의 흐름이 자연스레 대비되고 있다. 이 작품은 김홍도가 원숙한 50대에 그린 자화상이다. 아마 그가 51세에 연풍현감에서 해임된 이후 벼슬살이에 대한 양반 관료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잊고 편안한 자연속의 삶을 살고픈 심경을 반영한 듯 뭔가 내면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표정이다. 화면의 왼쪽 위편에는 제화시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흙벽 집에 종이창을 내고(紙窓土壁)
평생토록 벼슬살이 아니하며(終身布衣)
그속에서 시가나 읊조리려다(嘯咏其中)

벼슬에 연연해 않고 노년엔 비파나 생황을 연주하고 시와 그림을 지으며 호방한 자연을 벗삼아 자적(自適)하려는 김홍도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여기서 흥미있게도 이 시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바로 김광국의 인문(印文)에서 발견된다. 그 내용은 “만권의



김홍도 '포의풍류 세부도'

기이한 서책을 수장하여 평생토록 그 속에서 시가나 읊조리고 싶구나(欲藏萬卷異書 終身嘯咏其中)”인데 뒷구절이 똑같다. 김광국의 많은 지원을 받은 김홍도인지라 시구의 영향도 받았던 듯하다. 내의원의 재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약재무역을 하다가 의관직을 박탈당한 김광국은 사대부처럼 살 수 없는 처지를 극복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원없이 서책을 모아놓고 유유자적 살려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포의풍류도>는 커다란 과초잎을 깔고 앉아 생황을 부는 <월하취생> 작품(10월호)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다만 생황을 부는 작품인 후자는 인물표정과 배치 및 내용상의 무게가 <포의풍류도>보다는 원숙함이 덜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로 보아 50대 전반과 후반에 각각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파는 우리 선조들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즐겨 연주하던 친근한 악기로서 <삼국사기> <고려사> <악학궤범> 등의 기록에 자주 등장한다. 종류는 당비파와 향비파가 있으며, 전자는 현이 4줄로 목이 굽어 있고, 후자는 5줄로 목이 직선으로 펴져 있는 것이 차이이다. 연주할 때 손을 안팎으로 통기는데, 밖으로 밀치며 훑는 것을 비(批=琵琶)라고 하고,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훑는 것을 파(把=琵琶)라고 하기 때문에 비파라는 이름이 비롯되었다. 오늘 독자 여러분께서는 낭랑한 물결 위로 흐르는 듯 울리는 비파의 선율을 들으면서 <포의풍류도>를 감상해 보시기를 권한다.



S & D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공간

지난 11월 10일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숲에서 흘러나온 아름다운 선율에 분주히 지나가던 사람들의 걸음이 멈추었다. 음악회의 주인공은 바로 도심 속 문화공간 'S & D'가 주최하는 '갤러리 작은음악회'.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여 일하는 이웃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통한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를 통해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권 나라와 꾸준히 문화 교류를 가져오고 있는 김영근, 이진옥 부부가 지난 11월 4일 개관한 'S & D'는 밀집된 사무실 한가운데인 9층에 자리하면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 인근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찾고 있다. 문화공간 'S & D'가 자리한 벽산E센텀 클래스원은 도심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신흥복합단지, 수십개의 IT업종들이 들어서 있다. 일부러 음악회장, 갤러리를 찾지 않아도 잠시 여유를 내 찾을 수 있어 벌써부터 직장인들의 호응이 크다. 'S & D'는 'Sound'의 'S'와 'Design'의 'D'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그림을 감상하며 연주회를 즐길 수 있는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을 꾸미고자 한 'S & D'의 의지를 담고 있다.

1998년 슬로바키아 수도에 있는 국립 음악원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유럽과 인연을 맺은 김영근 씨는 지금까지 동유럽 국가와 500회 이상 교류음악회를 가져왔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교류하면서 한복보내기 운동, 한글학교 설립, 고려인을 위한 우리 전통문화공연 등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 '고려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S & D는 정식 개관에 앞서 10월 5일부터 폴란드 현대미술의 거장 ‘마렉 와브로(Marek Wawro)’ 초대전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작가이지만 마렉 와브로는 폴란드 미술협회 회원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감성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1999년부터 5년간 폴란드 필하모니 지휘자로 활동하던 당시 김영근 씨와 친분을 맺어온 마렉 와브로 씨가 ‘S & D’ 개관 소식을 듣고 기꺼이 자신의 작품을 보내오면서 첫 한국전이 성사됐다.

개관전이 열린 지난 10월 5일에는 첫 번째 갤러리 콘서트를 가졌다. 기타리스트 고충진 씨와 소프라노 신정순,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규, 피아니스트 이아정 씨가 출연한 그날 무대에서는 입주해 있던 인근 직장인들이 참여하면서 ‘S & D’의 존재를 알렸다. 11월 4일 정식개관일에 맞춰 열렸던 두 번째 갤러리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진용재, 테너 정거화, 소프라노 김유진, 아코디언 연주자 송용창 씨가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펼쳐진 연주회에 참석자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지난 11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빌딩 입구 로비에서 열린 ‘정오의 콘서트’에서는 300여명이 관객들이 열띤 호응을 보여주었다. 오는 12월 15일 세 번째 갤러리 콘서트에서는 송년의 흥겨움을 전해줄 낭만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클래식 명곡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문화사랑방이 되고싶다”는 김영근 씨. 개관전에 이어 12월에는 도예가 김영미 초대전을 열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작가전을 시작으로 동서 유럽작가 초대전을 통해 국내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동유럽 국가의 작품을 부산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또한 전시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젊은작가들에게도 ‘S & D’의 문을 활짝 열어줄 계획이다.



수십개 IT업종들이 들어서 있는 복합단지에 위치한 'S&D'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음악과 미술로 편안한 휴식을 주고있다.



'S&D'는 Sound & Design의 조합으로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개관 후 가진 첫번째 갤러리 작은 음악회.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지난 11월 10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두 번의 강산이 바뀌는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우리가락을 배우고 전승해온 '부산YWCA 전통 문화연구회 옛소리' (이하 옛소리)의 뜻깊은 성년무대가 펼쳐졌다. 20년 세월 푸릇푸릇했던 젊은 회원들이 40대 중년여성으로 변했지만 우리가락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더욱 견고해졌다.

'옛소리'의 역사는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우리국악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유아교육과 출신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탄생한게 바로 '옛소리'이다. 당시 부산YWCA의 지원을 받아 풍물강습반이 꾸려졌고 장구채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회원들이 그때부터 우리가락의 신명에 빠져들었다.

긴 세월동안 수많은 회원들이 거쳐가고 현재는 회장을 맡고 있는 최양숙 씨를 비롯해 배혜영, 송화순, 김영희, 강이샘, 류금숙, 박난숙 등 7명의 회원이 '옛소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회원들은 요즘도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두차례 모여 우리가락을 공부하고 연주한다.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수줍게 잡았던 장구채는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문화 전문가의 연륜을 담은 신명이 느껴진다. '옛소리' 회원들은 사물놀이는 기본이고 판굿, 오고무, 모듬북, 대북 퍼포먼스 공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락이라면 전문가를 모셔다 열심히 배웠다.

지난 3월부터는 풍류전통예술원 대표인 박종환 씨로부터 사물놀이, 판굿을 배우고 있다. 그 어렵다는 상모돌리기 실력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옛소리’ 회원들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여러 무대에 올랐다. 13회를 맞는 정기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에 초청받아 우리가락의 신명을 선보였다. 특히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악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강좌도 자주 열어 우리가락 전승에도 앞장서왔다.

“우리 전통 가락도 좋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20년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 이제는 한가족이나 마찬가지죠.”

20대에 만나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둔 회원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절친한 친구들이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사히 건너온 것도 서로 서로를 이해해주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옛소리’를 지켜온 회원 배혜영 씨. 당시 유치원 교사로 있으면서 ‘옛소리’ 창립에 힘을 보탰던 그는 현재는 국악 전문강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현재 중학생으로 자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도 계속 무대에 섰던 배혜영 씨에게는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많다. 8개월의 배를 안고 무대에 섰다 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던 웃지 못할 상황에서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용두산공원에서 연습하던 중 아이가 사라져 전 단원들이 찾아 헤매던 아찔했던 순간까지 다양한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엄마의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모니터를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배혜영 씨의 제자로 우리가락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옛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류금숙 씨. 아내의 취미활동에 무관심 하던 남편이 요즘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5기 강습생으로 ‘옛소리’와 인연을 맺은 회장 최양숙 씨. 초창기 친구대타로 무대에 섰던 요양원 공연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는 그는 공연이 시작된 후 무표정하던 환자들의 얼굴에 퍼지던 밝은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번 20주년 기념공연 제목이 바로 ‘처음처럼’이었습니다.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당시 그 열정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옛소리는 내년에는 새로운 단원들을 충원하고 20년 역사에 걸맞는 실력 있는 연주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 문 의 |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회장 최양숙(010-7515-4098)



20년 세월을 함께해온 ‘옛소리’ 회원들.



‘옛소리’ 회원들은 요즘도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두차례 연습시간을 갖는다.



지난 11월 10일 창립 20주년 기념무대를 가진 ‘옛소리’.



제 20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박진홍_음악평론가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는 자신의 스무 번째 독주회를 통해 연구하는 연주자의 자세를 잘 보여 주었다.

2011년 11월 9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의 스무 번째 독주회가 열렸다. 그는 경성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뮤즈앙상블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악장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연주가이다.

이번 무대의 반주는 일본 활동에서 인연이 된 피아니스트 야마카타 아키라가 맡았다. 야마카타 아키라는 동경국립예술대학을 졸업하고 Takrazuka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였으며 독주자이자 실내악 반주자로 일본에서는 뛰어난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로 시작한 연주회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 <헌정>, <위로> 등의 연주를 통해 차분한 서정과 절제된 감성을 보여 주었다. 마음을 저미는 풍부한 감성을 보여 주는 것이 최근 중국 연주자들의 특징이라면 차분하고 서정적이며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듯 표현하는 것이 일본적인 연주일 것이다. 야마카타 아키라의 이런 피아노 연주는 바이올린과 담백한 조화를 이루었다.

전반부 마지막곡인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에서는 경쾌하고 때로는 강렬한 리듬으로 이전까지의 절제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 긴장의 해소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군더더기 없이

효과적인 몸의 움직임은 음악의 표현력을 높여 주었고, 표제가 나타내고 있는 늙은 나무에 부는 찬바람과 해골들의 음산한 춤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후반부에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가 연주되었다. 1악장은 매우 걱정적이었으나 서정적 멜로디에서는 지나친 낭만성을 절제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정작 사랑 앞에서는 냉담한 듯 자신을 숨기는 베토벤의 모습을 그려냈다. 2악장에서는 1악장에 비해 감정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 마치 마지막 3악장의 클라이맥스를 예고하는 복선이 깔리는 듯 했다. 역시나 3악장에서는 기대했던 절정이 있었고 1, 2악장의 긴장은 카타르시스를 위한 준비였음을 실감케 했다. 전 악장을 연주하는 긴 시간 동안 야마카타 아키라의 피아노는 흔들림 없이 넓은 음역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바이올린을 위협했고, 바이올린은 그런 피아노를 유연하게 받아 내거나 역공으로 응수했다.

연주회가 끝나고 만난 야마카타 아키라는 피아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큰 흔들림 없는 그런 면이 연주회 전반에 걸쳐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임병원 교수와 조우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는 자신의 스무 번째 독주회를 통해 연구하는 연주자의 자세를 잘 보여 주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노련함과 열정이 함께 녹아 있는 <크로이처>의 연주에서 그런 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이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나아갈 바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 연주가이며 내일의 훌륭한 연주를 가르치는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은 아직도 발전 중이다. 그런 그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여배우의 섬세한 감정의 결이 보인다 극단 아센의 '웨딩드레스'

김문홍_연극평론가



아센의 웨딩드레스는 두 여배우의 감정과 호흡의 일치에서 비롯되는 절묘한 앙상블이 없이는 관객석의 흐느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가장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그 서사구조와 내용을 들여보지 않아도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핵이 들어 있다. 우리는 그 둘의 관계를 흔히 '애증'으로 축약하여 표현한다. 딸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섭섭하고 안타깝고 미운 감정을 드러내다가도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서 그 속 깊은 모성의 을씨년스런 풍경을 발견하고 난 뒤 비로소 사랑의 의미를 새기게 된다.

그런데 극단 아센의 <웨딩드레스>(유진월 작, 호민 연출, 2011. 10. 7~11. 6, 미리내 소극장)는 그러한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철없던 어머니가 노처녀 딸이 죽고 나서야 딸의 속 깊은 사랑과 아픔의 속내를 발견하고 흐느끼는 이야기이다.

이 연극은 2인극으로 여배우 두 사람만 등장하여 모녀의 시시콜콜한 일상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관객의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여성 관객들은 그 두 배우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심리와 감정의 결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관찰하고 점검하면서 관극한다. 노처녀 딸을 연기하는 구민주는 부산 연극계에서 정확한 발성과 예민한 감수성으로서의 리액션, 무엇보다도 순발력 있는 연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 역을 연기하는 옥순주는 연기 경험이 일천함에도 연기적 계산보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역할 속에 자신을 투영하여 연기하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머니는 정말 철이 없다. 그러기에 딸의 심리적 통증과 현실적 어려움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옥순주는 다소 어눌한 발성과 어긋나는 리액션, 그리고 멍한 듯한 시선 처리로 철없는 어머니라는 인물의 외피를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딸의 황량한 심리적 풍경과 속내를 감지하는 본능적인 모성으로서의 섬세한 내면적 에너지의 표출에는 다소 미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빈틈을 딸 역의 구민주가 잘 메워주고 있다. 철없음을 포용해 주는 넉넉함, 어머니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극복하는 너그러움, 어머니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빈틈없는 시선 처리와 다양한 변화의 표정과 마임으로 옥순주의 빈틈을 막아주고 있다. 그러나 두 여배우의 감정과 호흡의 일치에서 비롯되는 절묘한 앙상블이 없이는 관객석의 흐느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가장 귀중한 교훈을 이 연극은 깨닫게 해준다. 그러한 호흡의 일치하는 두 배우의 연기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연출의 철저한 작품분석에 힘입은 바도 컸을 것이다.

부산은행과 함께 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2회 정기연주회 말러 서거 100주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오충근



양경아

말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32회 정기연주회.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충근이 지휘하고, JK양상블 단원, 아미쿠스 퀼렛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양경아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작품219 '터키편으로'

말러/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거인' 등

- 지휘/오충근(수석지휘자)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악장 임병원)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관람료 VIP 30,000원 · R석 20,000원

A석 10,000원(학생 50% 할인)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3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불가리아의 고도(古都) 슈멘을 대표하는 불가리아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창단 150여년이 된 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탁월한 곡해석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상임지휘자 스타니슬라프 우셰프가 지휘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 1번 나장조

하이든/첼로 협주곡 라장조 Hob VIIb:2 등 수곡

· 지휘/스타니슬라프 우셰프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주)프로아트(02-585-2934~6, www.pro-art.co.kr)

정안선, 전경화 피아노 듀오 연주회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독일 악헌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이자 첼발리스트 정안선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제자 전경화가 함께 하는 피아노 듀오연주회.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차이코프스키/꽃의 왈츠

리스트/랩소디 1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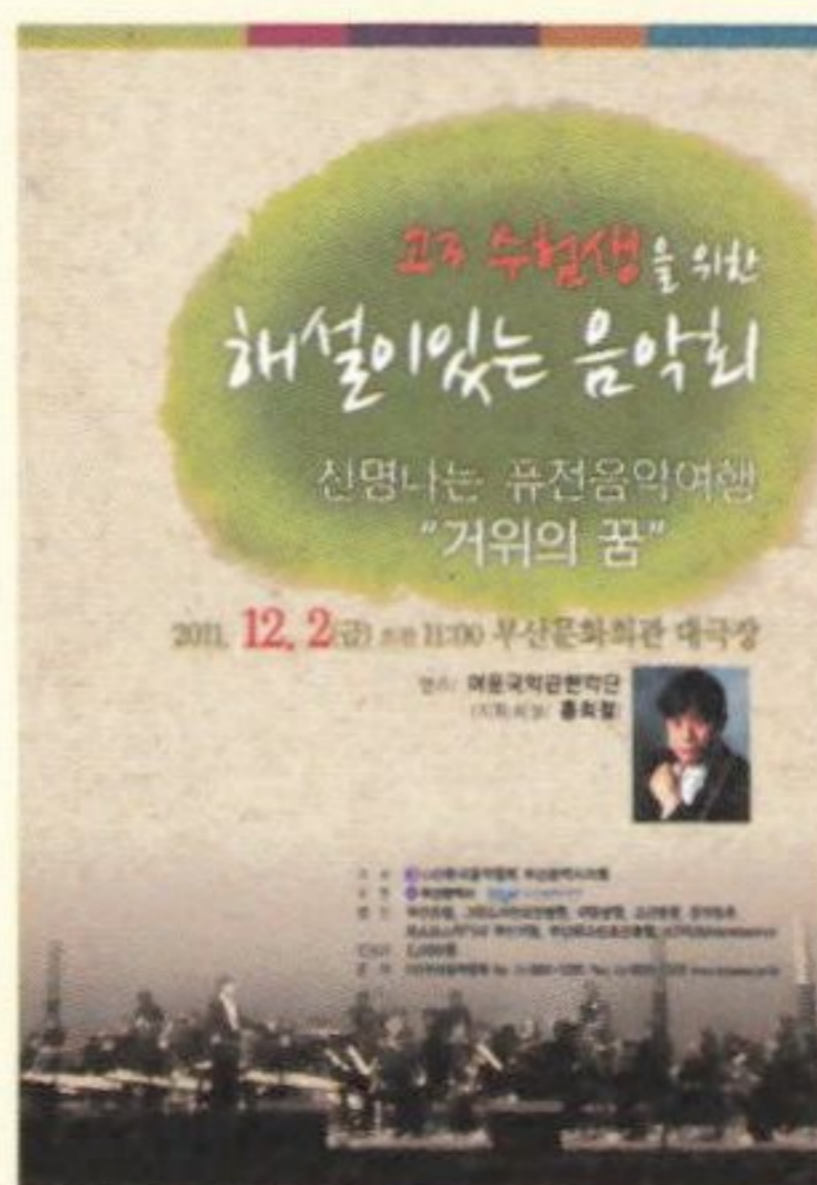
그리그/페르귄트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정안선(010-2545-2291)

고3수험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신명나는 퓨전음악여행 '거위의 꿈'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1:00 >>> 대극장



::프로그램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서양음악/라데츠키 행진곡
바리톤과 국악관현악/경복궁타령, 마이웨이, 박타령

공연장을 찾을 기회가 없었던 수험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홍희철이 지휘하는 여운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난 퓨전음악여행을 떠난다.

가수 최재은과 함께하는 감미로운 국악관현악/인연, 거위의 꿈, 아리요 등 수곡

- 지휘, 해설/홍희철
- 바리톤/김창돈(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민요/이나영(중요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보존회 전수자, 우리소리국악원 원장)
- 가야금, 보컬/최재은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제 6회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12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 중극장

숨은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제 6회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퓨전국악 '아비오', 색소폰 연주 '신유식', 난타팀 '당나귀', 기타연주 '전병건', 나사함 '오르프 연주단', 부산해원학교 '베데스다 합창단', '나사함 합창단'이 출연, 비장애인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나사함(627-856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사랑과 평화 콘서트

12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1970년대 말 미8군 부대의 최고의 프로 뮤지션들로 출발, 30년이 넘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온 '사랑과 평화'의 부산공연.

사랑과 평화는 원년 멤버인 이남이, 김태흥, 이철호, 김명곤, 이근수, 최이철 등이 당시 한국에서 연주하기 힘든 Funky라는 장르를 연주하여 흑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1978년 '한동안 뜸했었지, 1979년 '장미'로 큰사랑을 받았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1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교향곡 제 25번
브리튼/심플심포니
영화 OST/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인생은 아름다워,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 협연/이정윤(감천여중 3년, 바이올린)
::관람료 초대
::문 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10-4842-6688)

겨울을 여는 클래식 감사 음악회
12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 중극장

가톨릭교회의 영성운동 모임인 '포콜라레'(Focolare) 마리아사업회가 마련하는 겨울을 여는 클래식 감사 음악회.

::프로그램
바흐/첼로 모음곡 제 1번 사장조
피아졸라/리베르탱고
거쉬인/랩소디 인 블루 등 수곡
연주
이예찬(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재윤(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문록선(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김광조(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 임신숙(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윤동(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외
::관람료 무료
::문 의 서상희(010-2003-4467)

제 2회 함수경 개인공연 '프리즘-Red'
12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빛이 프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듯, 몸짓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함수경의 두 번째 개인공연무대.

함수경은 Mills College Master of Fine Arts in Dance를 졸업하고(M.F.A. 취득),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감성무용교육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출연/정두순, 박병철, 박경호, 고혜림, 박지현, 함수경
(공연예술진행:Performing Arts Moderator)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함수경(010-8526-6835)

**2011 부산콘서트콰이어 제 13회 정기연주회
'12월 겨울, 사랑, 희망...음악 여행'**
12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2년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으로 출발한 부산콘서트콰이어의 제 13회 정기연주회.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부산콘서트콰이어는 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 '콩쥐 팥쥐' 등을 제작,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한국가곡/눈, 고향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성가곡/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팝풀러 뮤직/나팔수의 휴일, Nella Fantasia 등 수곡
· 지휘/전상철

· 특별출연/바리톤 최상재, 영도경찰서녹색어머니합창단,
초량가브리엘콰이어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0-5555-3825)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제 33회 합창정기연주회**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제 33회 합창정기연주회 '하이든 사계'.

'사계'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의 하나인 '천지창조' 이후에 작곡되어 '천지창조'에 가려졌지만 오라토리오의 극적인 면은 오히려 더 돋보이는 작품이다.

· 지휘/김정일 교수
· 솔리스트/소프라노 김현주, 테너 조동훈, 바리톤 양종근
::관람료 초대
::문 의 고신대학교(990-2231)

아가페남성중창단 송년발표회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00 >>> 소극장

아가페남성중창단의 2011년 송년무대로 독창, 중창 등으로 중후한 남성양상בל을 선사한다.

· 지휘/김태건 · 반주/정혜진
::관람료 무료
::문 의 아가페남성중창단(010-6495-2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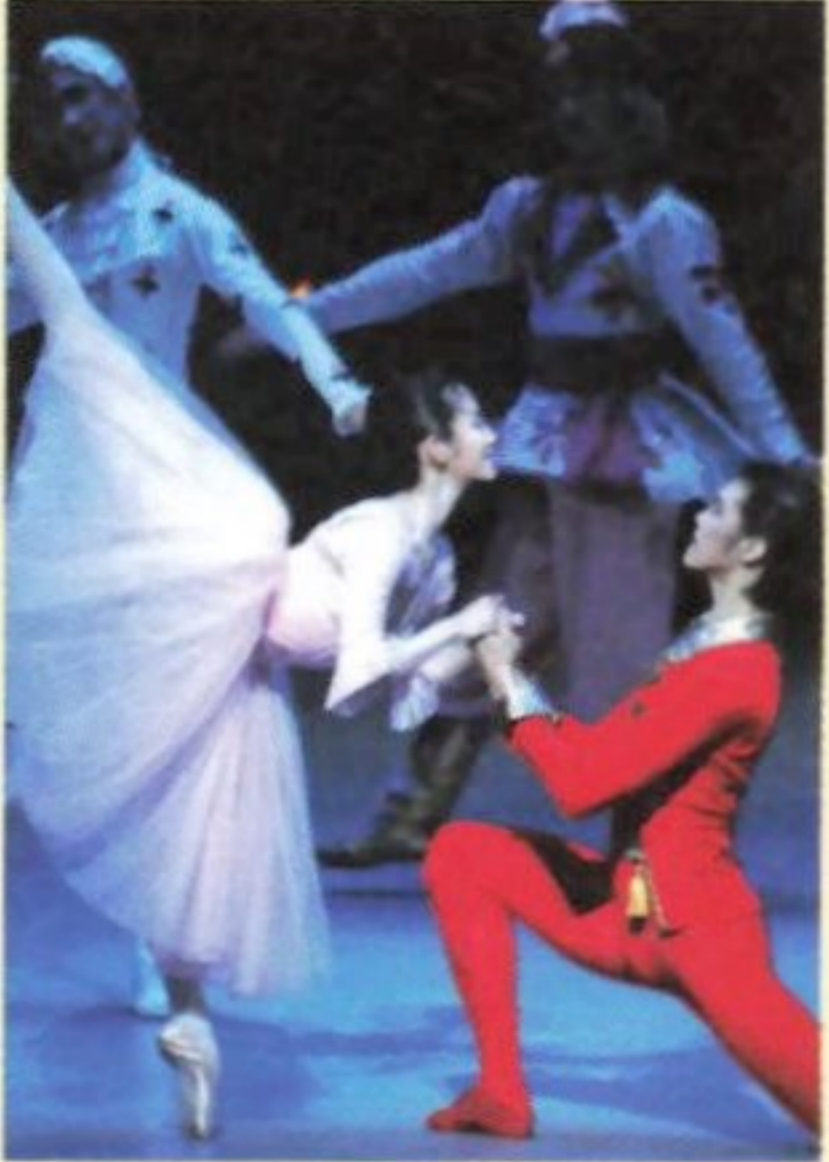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12월 7일-8일 수-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차이코프스키의 경쾌한 음악과 33년 동안 볼쇼이발레단의 수장으로 명성을 이어온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현대적 감각으로 탄생된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부산공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배경으로 주인공 소녀인 마리가 환상적인 꿈속으로 여행을 한다는 동화적인 내용을 담은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 쥐왕, 눈의 나라,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크리스마스 랜드 등 동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프로그램으로 공연되고 있다.

- 안무/유리 그리가로비치
- 예술감독/최태지
- 캐스팅/7일 김지영, 이

동훈, 8일 김리희, 정영재(출연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연제여성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5년 창단된 연제여성합창단은 제 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에서 은메달, 제 3회 독일세계합창올림픽에서 금메달, 제 5회 오스트리아 그라츠 세계합창올림픽에서 은메달, 2011년 제 3회 부산시 구, 군 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김규환/황혼의 노래

김동진/수선화

이수인/가지산 억새바람

영화음악/사랑은 아름다워라(영화 모정) 등

· 지휘/윤정운 · 반주/이현주

· 특별출연/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해군군악대금관

5중주

::관람료 초대

::문의 최갑순(010-8631-815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피아노음악 박유미 피아노 렉처 리사이틀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 소극장

파리국립음악원,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프랑스문화원 초청 '파리에서 서울까지', '파리에서의 추

억' 등 연주 및 '테마양상블'의 단원으로 10년째 연주회를 개최해온 피아니스트 박유미의 렉처 리사이틀.

::프로그램

신베르크/클라비어 작품 11 제 1번, 3번

발콤/뱀의 키스(1969)

마르탱/플라멩코 리듬에 의한 환상곡(1973)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박유미(010-4280-7365)

제 1128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96년 부산, 울산, 마산, 포항의 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창단,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려준 부산윈드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MBC목요음악회.

::프로그램

도니제티/사모니의 린다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26

한/로스 로이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송호섭(클라리넷), 김혜원(소프라노), 이승우,

박현민(테너)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윤두현(010-5872-8480)

임수정 피아노 독주회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테크닉과 음악성을 겸비한 감각적이고 찬란히 빛나는 표현력으로 매력적인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부산출신 피아니스트 임수정 독주회.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립고등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한 임수정은 정통 독일학파의 토대 위에 러시아 학파의 피아니즘을 전수받았다. 임수정은 유럽

전역,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독주회, 협연, 실내악 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프로그램

쇼팽/4개의 발라드

피터 퍼이히트방어/오리엔탈 언어 연습곡 모음

베버/고유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집

멘델스존/안단테 칸타빌레 & 프레스토 아지타토 등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부산시립무용단 2011 풍류風流 제 4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온 시민 무용교실 수강생들과 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풍류 제 4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프로그램

춤과 북가락(출연/하순연, 박진숙, 박선희, 이경선, 김

진선, 신금조, 최필선, 감성희, 박옥순, 송정숙)

장고춤(출연/김순금, 류혜숙, 전성숙, 배미옥, 김순남,

이명희, 엄혜선, 김숙희, 김명숙, 조공심, 황미숙)

사랑가(부산시립무용단 특별출연/권봉정, 류권홍)

성주허튼춤(부산시립무용단 특별출연/이현정, 이화성,

김주연)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관람료 균일 3,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공동제작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및 2011 송년음악회
환상적인 꿈의 동화속으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 대극장



2011년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국내외에서 분주한 연주활동을 펼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2011년 송년무대.

동화 '백설공주'와 영화로 인기를 얻었던 '슈렉'을 아름다운 합창 선율이 살아있는 뮤지컬로 재해석, 관객들에게 합창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 뮤지컬 슈렉(Shrek)/Travel Song, Who I'd Be Make a Move, When Words Fail 외
- 박지훈/도라지 꽃
- 로저스/여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들'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오카리나 박종근,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부산시립합창단 아카펠라 앙상블 에코소울, 전상천(드럼), 문지은(신디사이저)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 리사이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 중극장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공연의 화려한 Finale를 장식하는 김정원 전국 투어 리사이틀.



섬세한 감성과 강렬한 카리스마, 내면의 깊이까지 고루 갖춘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학창시절 동아음악콩쿠르 1위, 롬브로 스테파노프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뵘도르퍼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금메달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 음악계에 활동영역을 넓혀왔다.

:: 프로그램

- 베토벤/소나타 마장조 작품 109
- 리스트/밤의 선율(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제 11번)
-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 :: 관람료**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 :: 문의** 스톰프뮤직(02-2658-3546)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5:00 >>> 대극장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의 반주로 듣는 2011 송년음악회. 인코리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부 바이올린, 첼로 협연 무대, 성악가들의 클래식 공연과 2부 순서로 가요계의 음유시인 정태춘·박은옥, 팝페라 가수 손영희, 가수 최대호 등이 출연, 주옥같은 레파토리로 송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 프로그램

- 포퍼/헝가리안 랩소디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신이여 자비를 주소서'
- 가요/쫄블, 떠나가는 배, 회상, 사랑하는 이에게 등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 문의** 부산문화(1600-1803)

**2011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걸쳐노마드
디아스포라의 꿈**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00 >>> 중극장

외국인 노동자, 해외이주여성 등의 다문화 디아스포라를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마련하는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걸쳐노마드 '디아스포라의 꿈'.

2007년 내한 독창회를 가진 바 있는 중국동포 테너 김영철을 비롯해 민요가수 변영화, 새터민예술가 조미영 등이 출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

- 어머니생각, 별거아니야, 아리랑 난, 어머니, 부친산, 모친강,애 장백산, 아리랑, 도라지, 진도아리랑 등 수곡
- :: 관람료 무료**
- :: 문의** (재)부산문화재단(745-7264)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과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 기량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장한나 부산연주회. 장한나는 11살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국제콩쿠르에서 거장 로스트로

포비치를 비롯하여 10명의 심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과 현대음악상을 모두 수상하며 세계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 프로그램

-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작품 34 제 14번
- 라흐마니노프/첼로 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 피아졸라/그랜드 탱고 등
- 피아노/피닌 콜린스
- ::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김유진과 함께 하는 제자음악회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유진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무대.

출연

김유진, 석희진, 윤재원, 정은지, 최수정, 성주영, 김미소, 김지윤, 임채원, 박소정, 임미소, 이단비, 서정훈

::관람료 무료

::문의 김유진(010-5015-9215)

It's a Gift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 소극장

백현주, 이건영, 이은희, 신희정, 이은경 등 5인의 피아니스트들이 클래식과 재즈 등을 솔로, 4Hands, Band 합주 등 다양한 스타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4Hands 헝가리무곡, 하차투리안 토카타, 8Hands & Band 합주 캐롤메들리 등 수곡

::관람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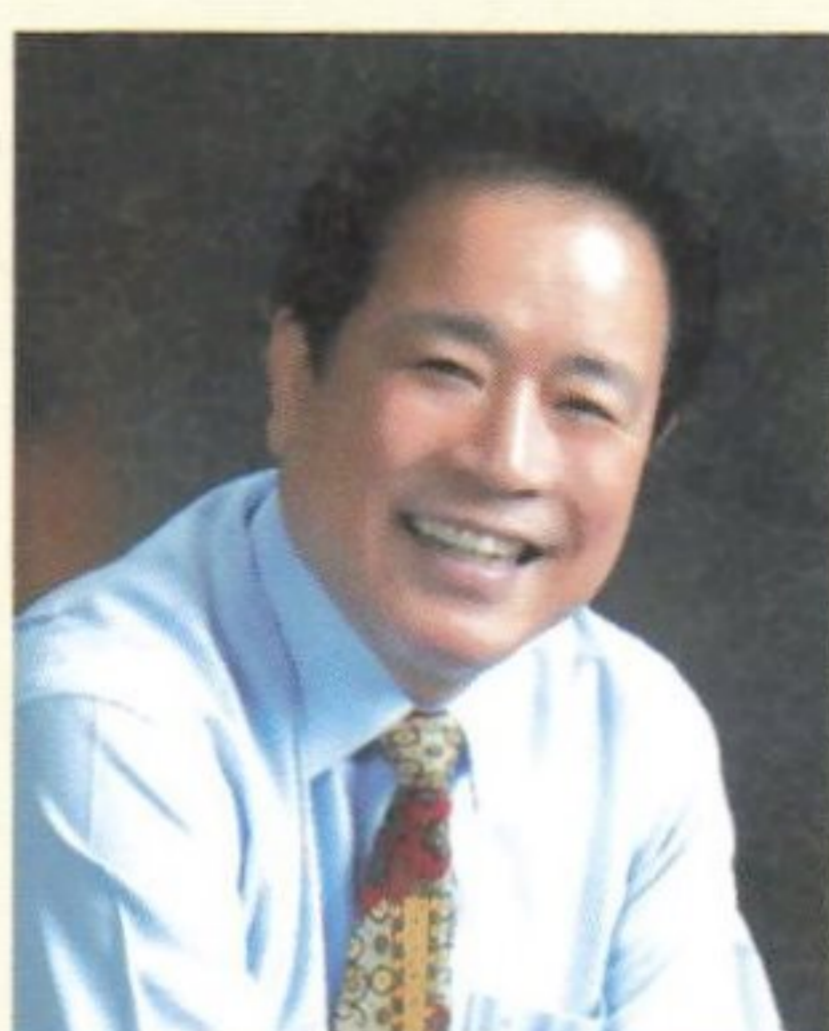
::문의 백현주(010-4585-2052)

2011 남성성악가대상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박신화



엄정행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그리고 각 음악대학 성악 전공 남성 교수 및 강사 등 국내 최정상급 남성 솔리스트 70여명이 들려주는 2011 남성성악가대상. 2000년부터 시작된 남성성악가대상은 매년 가곡,

오페라합창곡, 성가, 민요, 등의 레퍼토리를 남성특유의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사운드로 품격 있는 남성합창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칼 오르프/카르미나 브라나

Opera Choruses/Nessun Dorma, 사냥꾼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병사의 합창

한국의 노래/향수, 한계령, 살짜기 읊서예 등 수곡

· 지휘/박신화(안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이화여대 교수)

· 반주/김인재, 박미은

· 특별출연/성악가 엄정행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부산일보 문화사업국(461-4436~8)

제 18회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2월 15일 오후 7:30 >>> 중극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아르스 현악4중주단 리더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조현미 교수의 열여덟번째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인 친언니 조현선 교수의 피아노와 클래식기타

리스트 고충진의 기타 반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크라이슬러/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라장조 등

::관람료 무료

::문의 Jung 매니지먼트(011-589-3111)

카페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창립 4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7:00 >>> 소극장

카페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창립 4주년을 맞아 카페에서 형성된 시니어들의 모임인 아모르합창

단이 특별한 송년무대를 연다. 2007년 12월 창립된 아모르합창단은 지금까지 3회의 발표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음악을 생활화해왔다.

::관람료 무료

::문의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010-8381-2392)

부산MBC 창사 52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5회 정기연주회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I 2011 송년음악회'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리 신차오



김선정

2011년 말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말러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I'.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중국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CNSO),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KSO),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구성,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는 가장 긴 교향곡인 말러 교향곡 3번에 도전한다.

::프로그램

구스타프 말러/교향곡 제 3번 라단조

· 지휘/리 신차오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중국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경성대학교합창단, 소리바람합창단

· 메조소프라노/김선정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대학교,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동대학원의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최고연주자과정(UM II)을 졸업한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리스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의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소네트(Sonette), 소나타(Sonate) 등을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김은주(010-3471-8943)

부산극동방송 2011 송년음악회 Love Christmas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 대극장

2008년 개국한 부산극동방송이 마련하는 2011 송년음악회로 부산극동방송국 전속 어린이합창단, 권사합창단, 여성코랄, FEBC 싱어즈 등이 출연, 방송가족과 청취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연다.

·출연/부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권사합창단, 여성코랄, FEBC 싱어즈 외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인혜, 소프라노 전미나, 삼손중창단 외

::관람료 무료(초대권으로 배부)

::문의 부산극동방송(780-2832)

부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 2011 정기연주회 'Jazz Christmas'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 대극장

2008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국내외 연주회를 통해 찬양선교사로서 자질을 키워온 부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의 2011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Stage 1/합창 Hallelujah(기타, 켈레), Gloria(더블베이스), 나 주를 찬양하라, Nella Fantasia & You raise me up(신디사이저)

Stage 2/Jazz Christmas with Band 등 수곡

·지휘/이건륜 ·반주/최지연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인혜, 삼손중창단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극동방송(780-2832)

Son Young il Dance Stage-N.01 미친 개미들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동아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휘트니스어터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영일의 첫 번째 무대.

손영일은 개천 신인안무가전 최우수상, 부산무용콩쿠르 은상, 부산무용제 연기상, 부산무용제 안무

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7,000원

::문의 손영일(010-3581-2156, 010-9868-0420)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3:30, 7:00 >>> 대극장

2009 제주국제합창제 대상, 2010 부산국제합창제 대상, 지휘자상을 수상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매년 뉴욕, 런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100회 이상 공연을 가졌다.

·지휘/Boris Abalyan(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문의 (사)국제청소년연합(627-0852)

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24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금난새

박현정

김지호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의 사랑 나눔음악회.

::프로그램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선곡

김성태/동심초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루돌프 사슴 코-울면 안돼 -
고요한 밤-실버 벨-창 밖을 보라 등 수곡

·지휘/금난새(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소프라노/박현정 ·테너/김지호

·합창/KBS부산어린이합창단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Jung 매니지먼트(011-589-3111)

UKYO(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제 3회 정기연주회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 자선단체인 UKYO(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중
마르케스/단순 제 2번

맨시니/독주 세트드럼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지휘/전영수(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UKO 음악감독)

·드럼/박철우(박철우 Trio, 웅산 Band 단원)

·마림바/김채윤(UKYO 단원)

·합창/KBS부산어린이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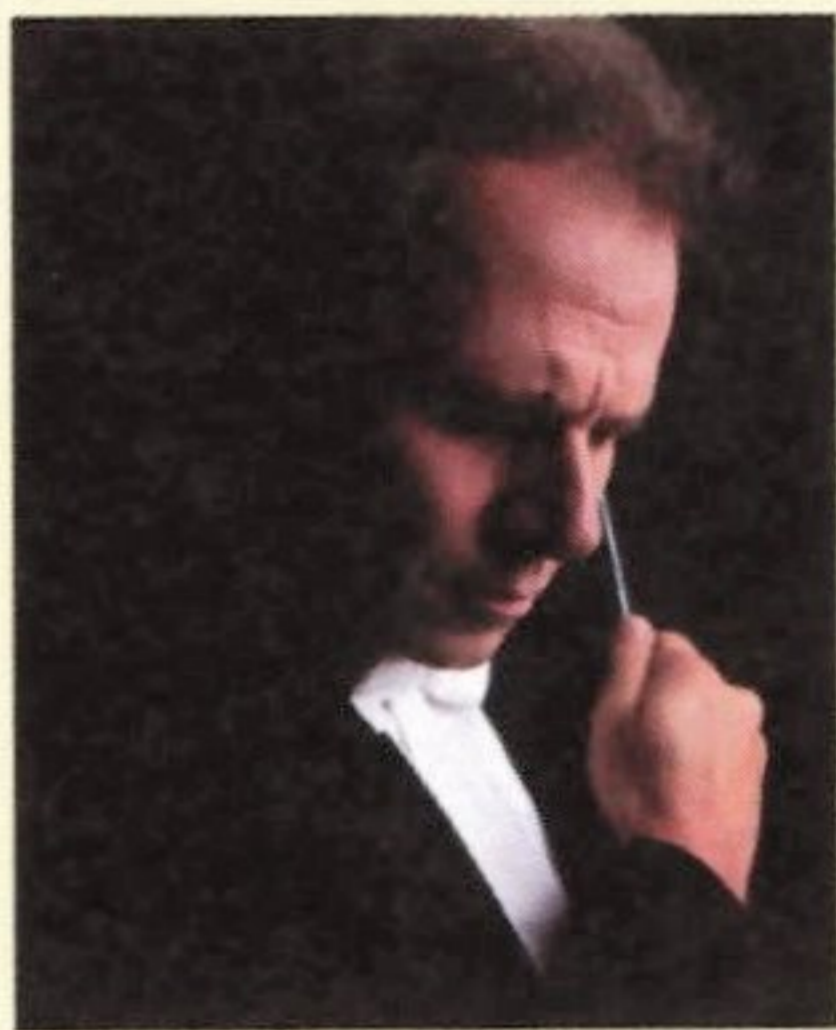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재복(010-5540-1538)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5주년 기념 마르코 발데리(Marco Balderi) 초청 2011 송년 오페라 갈라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마르코 발데리

4인 4색의 각기 다른 모양과 빛깔의 사랑이 변주되는 오페라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등 오페라 4편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5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 콘서트.

마르코 발데리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제지휘콩쿠르와 알렉산드리아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해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지휘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 지휘/마르코 발데리(이태리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 음악감독/홍지혜 · 합창/부산오페라합창단
- 오케스트라/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출연

테너 나승서, 소프라노 고미현, 메조소프라노 한예진, 바리톤 전기홍, 소프라노 박효강, 바리톤 이창룡, 소프라노 박현정 외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2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11월 '동토유케'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 부산시립극단이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2011년 마지막 무대를 연다.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

순지의 연출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찾아본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1 송년음악회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011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즐거움 가득한 새해를 준비하는 무대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역대 악장, 단원 등을 초청,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다양한 명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코렐리/크리스마스 협주곡
- 풀랑크/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 쇼송/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시곡' 작품 25 등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김지윤, 이정림, 김호빈 · 첼로/김기량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원영아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 2011 송년음악회

F.Poulenc의 Gloria & Merry Christmas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011년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부산시립합창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



이동신

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F.Poulenc의 대표작 'Gloria(영광)', 2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뿔랑/Gloria
존 윌리엄스/영화 '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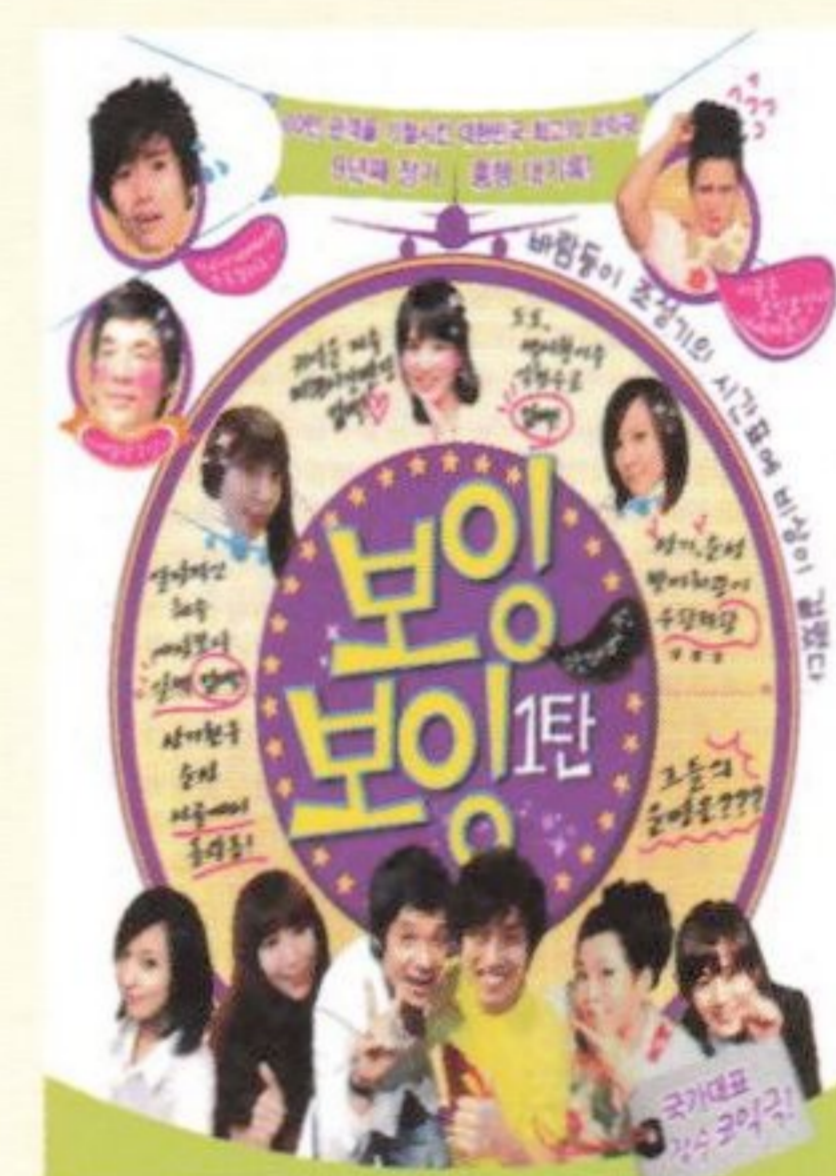
로 집에' OST 등 수곡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 · 소프라노/김유진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연극 '보잉보잉'

12월 23일-31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24일 오후 2:00, 5:00, 8:00, 25일 오후 1:00, 4:00, 7:00) >>> 중극장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보잉보잉' 부산무대.

코믹극의 대가인 원작자 마르고 까블레띠의 명성을 입증하는 완벽한 대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안된 보잉보잉은 각

기 다른 개성의 세 명의 스텐디스와 바람둥이 성기가 특별한 웃음을 선사한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루시드 폴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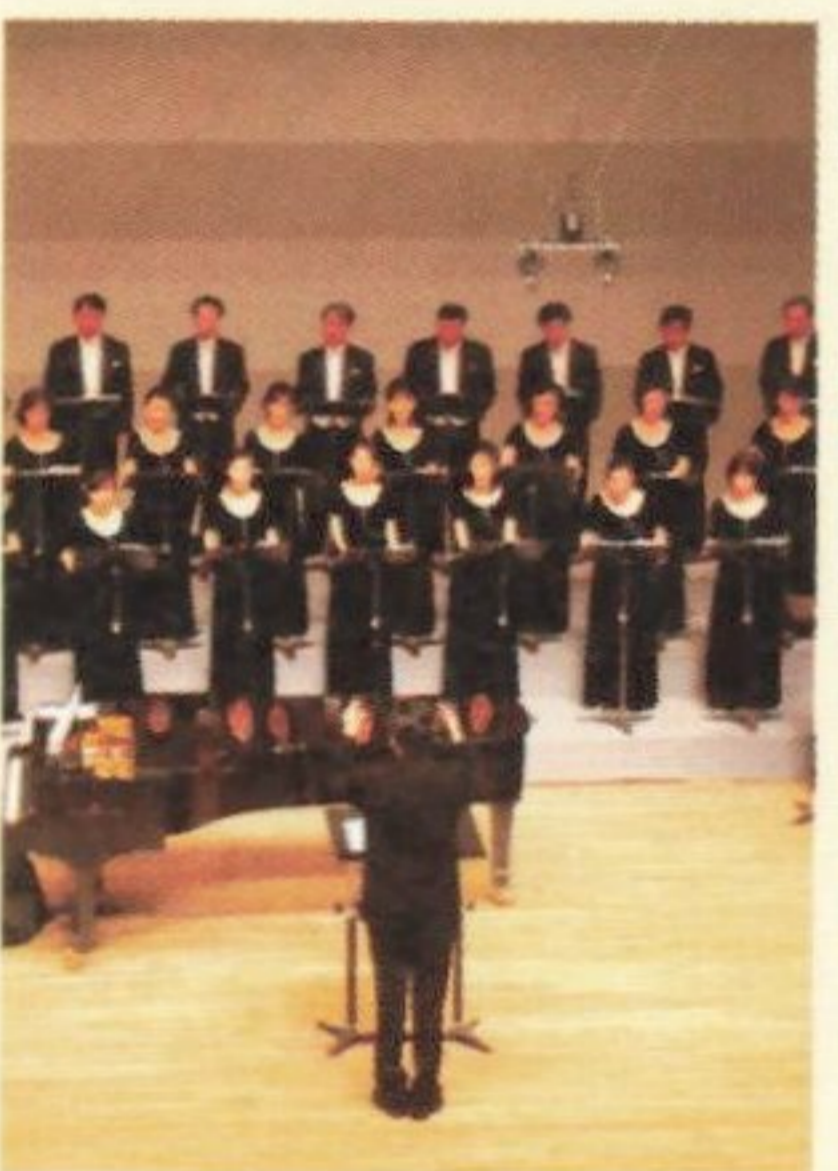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8:00,
25일 일요일 오후 4:00 >>> 대극장



'가요계의 음유시인' 루시드폴(본명 조윤석) 콘서트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 부산공연. 서정적인 선율의 곡을 만들어 직접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루시드 폴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노래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노엘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제 52회 정기연주회 '추억...그리고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학생합창단으로 출발,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노엘합창단의 제 52회 정기연주회. 노엘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전국우수교회합창단 초청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열기도 했다.

::프로그램
하순봉/노엘찬가(변원탄 시, 창단 50주년 기념위촉곡) 비발디/글로리아(Gloria) 라 장조 RV.589 추억이 있는 노래모음(백현주 편곡)/그리워라 등 수곡
· 지휘/김강규
::관람료 초대
::문의 노엘합창단(010- 4183-229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0회 정기연주회 2011 송년음악회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으로 우리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11년 마지막 무대 '2011 송년음악회'.



김철호 황병기 김권식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가야금 협주곡,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연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김권식, 드라마 '동이' '짹짹' 주제가 연주에 참여하며 화제를 모은 평양예술대학 출신의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 경상도소리보존회 회장 김옥숙 등이 출연, 흥겨운 한마당을 연다.

::프로그램
황병기/가야금 협주곡 '침향무' 이준호(편곡)/김권식의 전자바이올린과 국악관현악 '고구려의 혼' '하바나길라' 이경섭/북한 개량악기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과 국악관현악 '추상' 팔도민요 모음곡/한강수타령, 몽금포타령, 천안삼거리, 강원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사회/김지현(TBN 교통방송 아나운서)
· 협연/황병기(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권식(경기도립팝스앙상블 단장), 박성진(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홍보대사), 김옥숙(경상도소리보존회 회장) 외
· 베이스기타/정우진 · 드럼/윤혁성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Art Ensemble Of Busan' 빅밴드 재즈콘서트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7:00 >>> 소극장

2011년 한해 한·일 문화교류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친 'Art Ensemble Of Busan' 재즈빅밴드가 2011년을 마무리하며 들려주는 재즈콘서트.

2010년 3월 창단된 Art Ensemble Of Busan는 일본 후쿠오카 초청 Gate7's 에서 한·일 합동 공연, 재즈 클럽 몽크 등에서 박진감 넘치는 음악을 선사해왔다.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이주미(782-1841, 010-2963-645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1 제야음악회'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0:30 >>> 대극장



2011년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렘을 함께 나누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제야음악회'. 소월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윤용운의 지휘로 소프라노 김유섬과 바리톤 우주호가 들려주는 희망의 선율, 영혼의 울림을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아카펠라 앙상블 에코 소울의 로비콘서트 등으로 특별한 2012년을 맞이한다.

::프로그램
웨버/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선곡 케니 지/고잉 홈 안현정/해금 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비제/'카르멘' 중 '당신을 위해 축배를' (투우사의 노래) 드보르작/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중 제 4악장 등 수곡
· 지휘/윤용운(소월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소프라노/김유섬 · 바리톤/우주호
· 해금/김소현 · 색소폰/제이슨 리
· 사회/이지희
· 특별출연/아카펠라 앙상블 에코 소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MUSIC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 20회 정기연주회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9년 창단된 후 정통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동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지휘/김지세 · 협연/고충진(클래식기타)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진홍(010-4563-7966)

아트카페 음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아트카페 음**

▶1일 바리톤 박기국의 '센치한(Sentimental) 콘서트'



경성대학교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몬울대학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부산극동방송 '오후의 향기' 진행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박기국 콘서트.

▶8일 소프라노 이소연의 '내 영혼의 음악'

독일 함부르크 요하네스 브람스 콘서트바토리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이소연 독창회.

▶15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송년음악회
소프라노 송윤경과 해금주자 강민정, 아코디언 연주자 송용창, 오바드 첼로 과르뎃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22일 크리스마스 캐롤 콘서트

교대부설초등학교 중창단과 부산챔버싱어즈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콘서트.

▶29일 송년음악회

2009년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음악대륙 가이아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관람료 무료

::문 의 아트카페 음(557-3369)

금요해피콘서트

12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무대와 객석이 소통하는 뮤직토크쇼로 마련되는 금요해피콘서트 12월 무대.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3일 프로그램

향발무, 가아금·거문고 중주 '침향무(작곡/황병기)', 동부민요, 태평무, 기악독주, 동래하춤, 남도민요 연곡, 설장구 협주곡 '모리(작곡/이경섭)'

▶10일 프로그램

대취타, 진주교방굿거리춤, 경기민요, 살풀이, 국악관현악 '아리랑(작곡/최성환)', 시조, 부채춤, 사물놀이와 비나리

▶17일 프로그램

삼고무, 판소리, 산조춤, 국악실내악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작곡/강상구)', 국악실내악 '아랑의 꿈(편곡/김계옥)', 한량춤, 가야금병창, 타악합주와 소리울림

▶24일 프로그램

퓨전국악실내악단 아비오의 창작국악 무대.

::관람료 균일 8,000원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수요일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7일 소프라노 김하영 귀국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김하영 독창회.

· 피아노/황선미 · 찬조출연/클라리네티스트 손기영

▶14일 백흥선 바이올린 귀국독주회

동아대학교와 프랑스 파리 중앙시립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백흥선 귀국 독주회.

· 피아노/이정화

▶21일 제 28회 뮤즈앙상블 정기연주회



1988년 뮤즈트리오를 시작으로 1989년 창단된 뮤즈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부산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KBS FM콘서트, MBC목요일음악회 등 다수 무대를 통해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563

말러/피아노4중주 등

· 연주/임병원(음악감독, 바이올린), 조현선(피아노), 이리나(바이올린), 최영식(비올라), 양욱진(첼로)

▶28일 동래구립오케스트라 아듀 2011! 송년음악회

2008년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동래구립오케스트라 2011 송년음악회.

::프로그램

스메타나/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크리스마스 캐롤/기쁜 크리스마스 등 수곡

· 상임지휘 및 음악감독/백원석(동부산대학 교수)

· 찬조출연/가톨릭연합합창단(지휘/유영철)

· 솔로/고영주(피아노), 원희선(바이올린), 백흥선(재즈 보컬), 황상연(베이스)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제 6회 정기연주회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6번째 정기연주회로,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정악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보허자, 대금독주 '청성곡', 현악합주 '수연장지곡', 자진한임 중 '수룡음', 가곡 '태평가', 대취타 등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울속도 명품 콘서트

12월 8일 목요일 오후 8: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나라 피아노음악의 선구자인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웅장하면서도 당당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를 들려준다.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지휘/임준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1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충근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가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합동무대.

· 지휘/오충근(고신대교수)

· 협연/소프라노 장은영,

테너 조윤환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2,000원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2011 타로 정기연주회 창작음악극 '신춘향전'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젊은 타악 연주자들과 가(歌), 무(舞), 악(樂)을 아우르는 전문 예인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새롭고 실험적인 무대로 대중과 만나온 타로(TARO, 打路)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창작음악극 '신춘향전'.

· 해설/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연출/강열우(부산예술대학 교수)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의 타로(583-7958)

환경콘서트 '모래로 그리는 음악회'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모래와 빛으로 그려내는 아름다운 세계 '샌드 아트'와 함께하는 환경콘서트.

::관람료 폐건전지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건반 위의 구도자' '회화적 피아니즘의 소유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초청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인터메조 가장조
작품 118 제 2번

베토벤/소나타 제 14번 올림다단조 작품 27 '월광'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재)영화의전당(780-6000)

송태주 오르간 귀국독주회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 중앙성당



총신대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오르가니스트 송태주의 귀국독주회.

::프로그램

바흐/이제 이방인에게 구
세주가 오시리니 BWV.659
리스트/울며, 탄식하며,

고뇌하며, 두려워하며 등 수곡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MOZART

모짜르트 레스토랑

영빈관 맞은편 1층

예약문의: 051-622-1456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오정해와 김덕수가 함께하는 앙상블 시나위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오정해



김덕수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오정해와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수가 국악계의 아이돌스타 '앙상블 시나위'와 함께 펼치는 신명나는 국악무대.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재)영화의전당(780-6000)

인제 챔버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 글로벌아트홀



인제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인제 챔버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연주/강민희, 어숙진, 최재윤(피아노), 김정혜, 이소리, 김혜진(바이올린), 최주원, 이현빈, 김한슬(첼로)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201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클래식 춤곡의 향연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프로그램
보로딘/오페라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오세일/바리톤 솔로를 위한 '개개비 연가' '뮤즈에게'
'한려일출' 등 수곡

·지휘/오충근(고신대 교수) ·협연/바리톤 박종화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제 63회 한낮의 유U; 콘서트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가수 유열과 소프라노 김유진,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중창단 칸토미리내와 함께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송년무대.

·연주/바다오케스트라
(지휘/박성완)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국제신문사(500-5222)

박종경 피아노 독주회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대학교 콘서트홀

세계 3대 피아노국제콩쿠르인 부조니, 루빈스타인, 퀸 엘리자베스콩쿠르를 비롯해 세계 우수 콩쿠르에서 입



상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경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10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제 6번 등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음악연구소(010-2604-5116)

금정문화회관 명품기획공연 실내악 시리즈 5

Happy Christmas with Ensemble Di Mare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디 마레



박소영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 '디 마레'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프랑스 ST-MAUR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현재 로댐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박소영이 협연한다.

·협연/박소영(플루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시민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48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2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송년음악회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합창'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을숙도문화회관 2011년 송년음악회.

::관람료 초대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PLAY

2011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8월 1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2/24-25일, 12/30-31일 제외하고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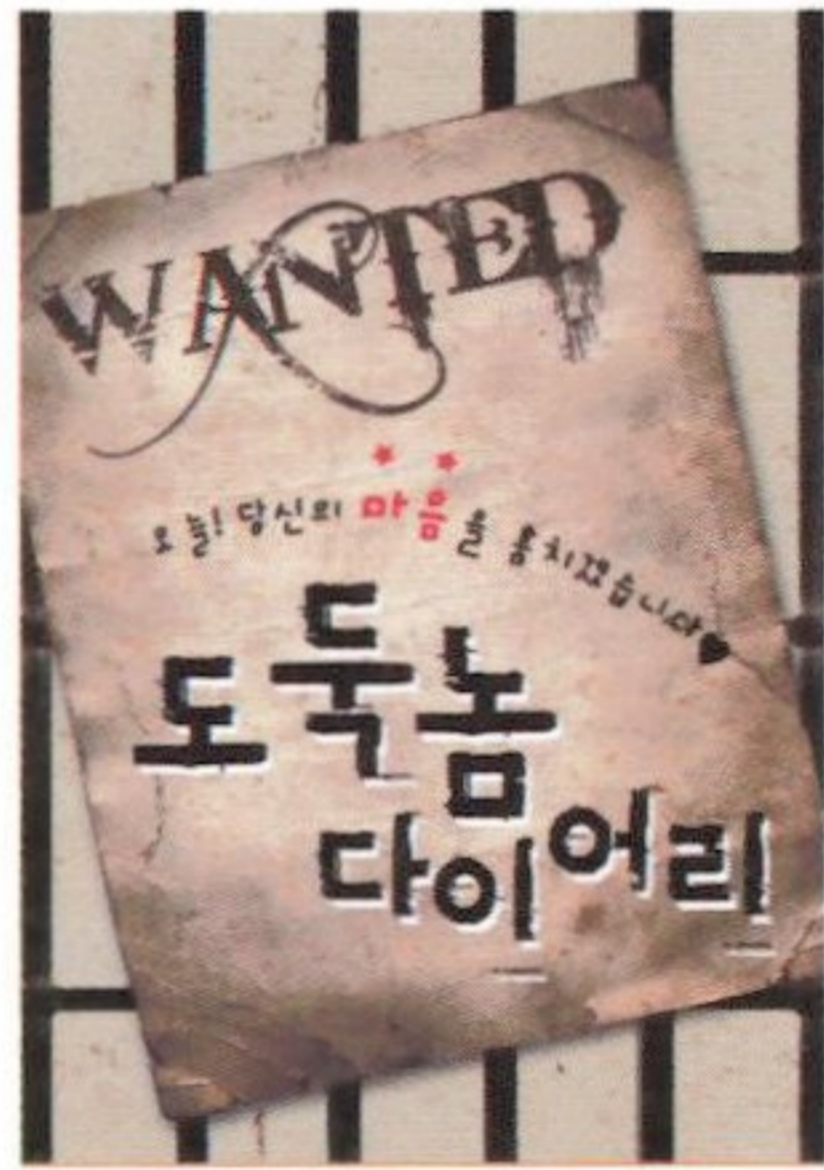
연극 '그남자 그여자'

10월 13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화요일 공연없음, 12/24-25일 오후 3:00, 6:00, 9:00) >>> 초콜릿 팩토리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사랑, 이별, 재회를 그린 감성연극 '그남자 그여자'.
·출연/허동원, 이도경, 박민우, 김아영, 김태범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초콜릿팩토리(621-4005)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2011년 11월 1일(화)-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1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사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좌충우돌 러브 버라이어티 '도둑놈 다이어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윤형빈쇼 with Friend

11월 5일(토)-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 윤형빈 소극장

부산 최초의 개그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개그쇼.



개그맨 '왕비호' 윤형빈과 '감수성 내시' 김영민이 밴드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직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윤형빈소극장 (610-1003)

콘서트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011년 11월 8일(수)-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3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콘서트뮤지컬 '배달왔습니다'

2011년 11월 8일(화)-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 디코소극장

첫사랑의 설레임을 감미로운 속삭임으로 노래하는 감성뮤지컬 '배달왔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선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2011년 극단 바문사 정기공연 '연애, 그 오래 된'

11월 9일(수)-12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 용천지랄소극장



첫사랑을 간직한 채 중년에 다시 만난 주인공들의 불꽃같은 사랑을 그린 연극 '연애, 그 오래 된'.

· 작/최은영
· 연출/이선주
· 출연/금정원, 김은옥, 엄태현, 김지희, 김선정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용천지랄소극장(612-4312)

연극 '아유 크레이지?'

11월 11일(금)-12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휴관)
>>> 좋은데이숨사탕아트홀 해운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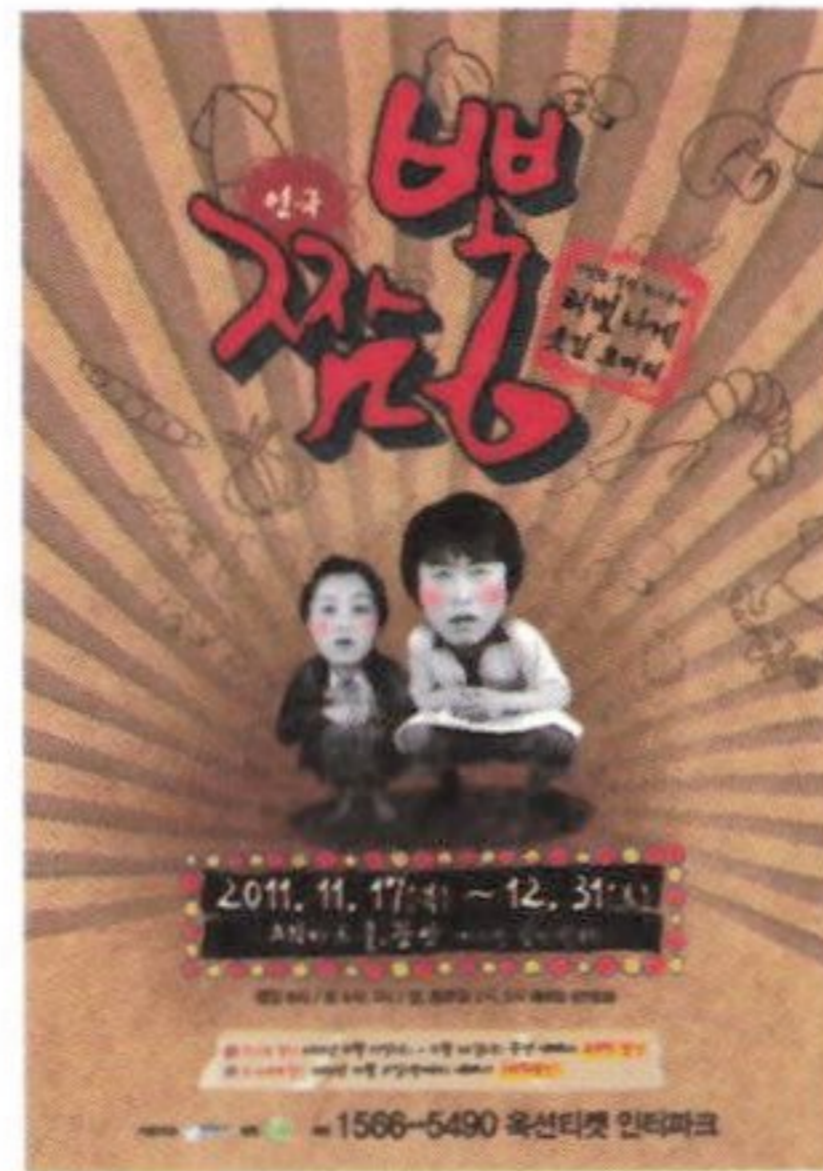
현대 정신의학이 정의하는 정신병 기준에 강한 의구심을 느낀 김희진 박사가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하면서 펼쳐지는 요절복통 코믹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좋은데이숨사탕

아트홀 해운대관(740-4888)

2011 황당해프닝 코믹연극 '짬뽕'

11월 17일(목)-12월 3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광안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발한 발상력에서 출발, 평범한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진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으로 그려낸 코믹 연극 '짬뽕'.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000원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2011년 11월 18일(금)-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24일 오후 1:00, 4:00, 7:00, 9:30, 12/31일 오후 4:00, 7:00, 9:30)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같은 회사 여직원 장미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의 노총각 진성, 그 앞에 나타난 소원을 들어주는 여자 진희, 과연 진성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창작 로

맨틱 뮤지컬.
· 작, 연출/이원준
· 작곡/허수현 · 안무/이승우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연극 '오구'

11월 18일(수)-12월 11일(일) 화-수요일, 금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4: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팔순 노모의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망자에 대한 슬픔을 한국 특유의 해학적 정서로 신명나는 곱판을 펼치는 연극 '오구'.

· 작, 연출/이윤택
· 출연/남미정, 하용부,

배미향, 김소희, 김미숙, 윤종식, 김철영 외
관람료 일반 30,000원 · 대학생 25,000원
초·중·고, 65세이상 어르신 20,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1월 24일(목)-12월 4일(일) 평일 오전 10:30(수험생 단체공연),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 MBC롯데아트홀



크리스마스 이브날 병원에서 사라진 하반신 마비 환자 최병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사연많은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아련한 감동을 전해주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장유정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로맨틱 코믹극 '오직, 사랑'

2011년 11월 25일(금)-2012년 1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월요일 공연없음) >>> 에저또소극장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보면 알게 되는 미성숙한 성인남녀의 코믹 로맨스극.

· 원작/머레이 쉬즈갈 · 연출/최재민

· 출연/최재민, 이지훈, 김지연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미니티켓(1600-1716)

발칙한 코메디 폭소연극 '달링_Darling'

2011년 12월 2일(금)-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24일 오후 1:00, 4:00, 7:00, 9:30, 12/25일 오후 3:00, 6:00, 12/31일 오후 4:00, 7:00, 9:30)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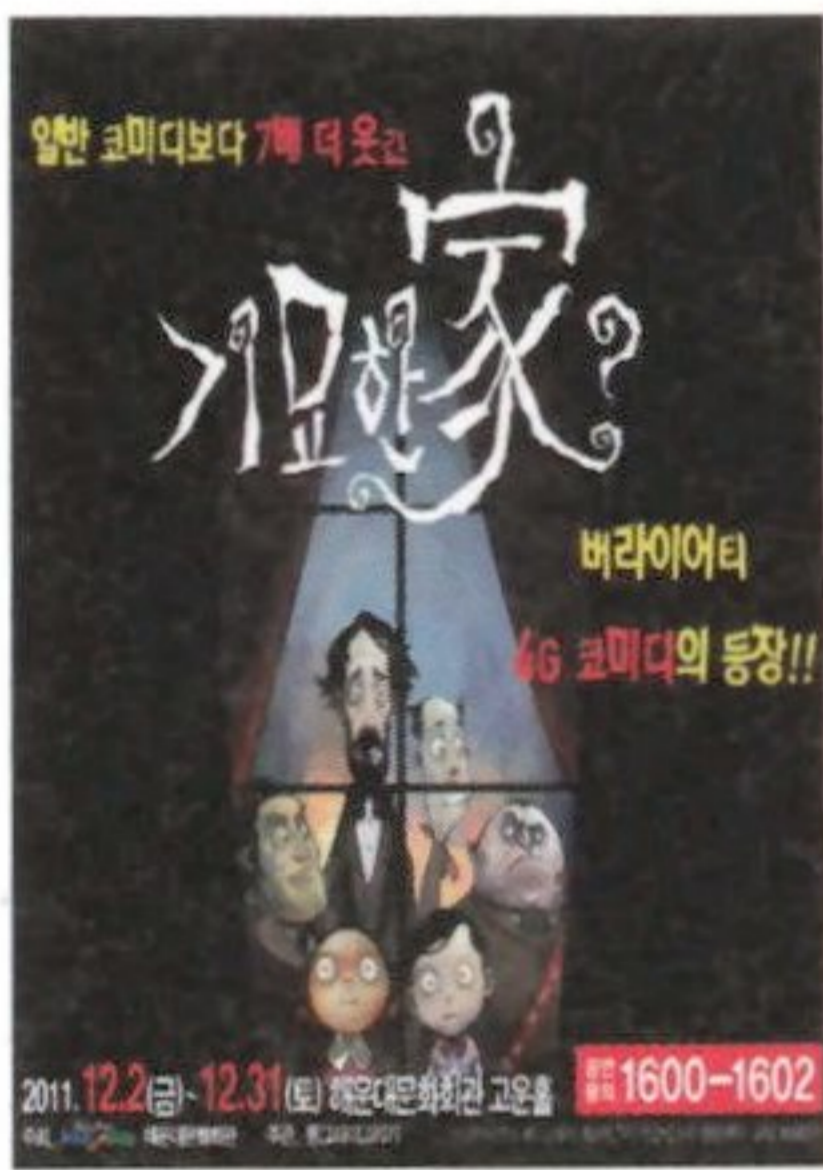
결혼이라는 달콤함에 불륜이라는 짜릿함을 더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오해들을 신나는 막장 코믹극으로 탄생시킨 폭소연극 '달링'.

관람료 균일 30,000원 (12/24~25일, 31일 공연 제외하고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연극 '기묘한 家'

12월 2일(금)-3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폐가에 사는 괴짜가족과 그들을 몰아내려는 마을 사람들, 그 속에 탈옥수가 끼어들면서 펼쳐지는 한 바탕 소동이 영상을 이용한 독특한 무대로 선보이는 버라이어티 코믹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

12월 3일-4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 **시민회관 대극장**

용기있고 모험심 강한 알라딘과 아름다운 공주 자스민, 요술램프 요정 지니와 떠나는 환상의 모험세계가



족뮤지컬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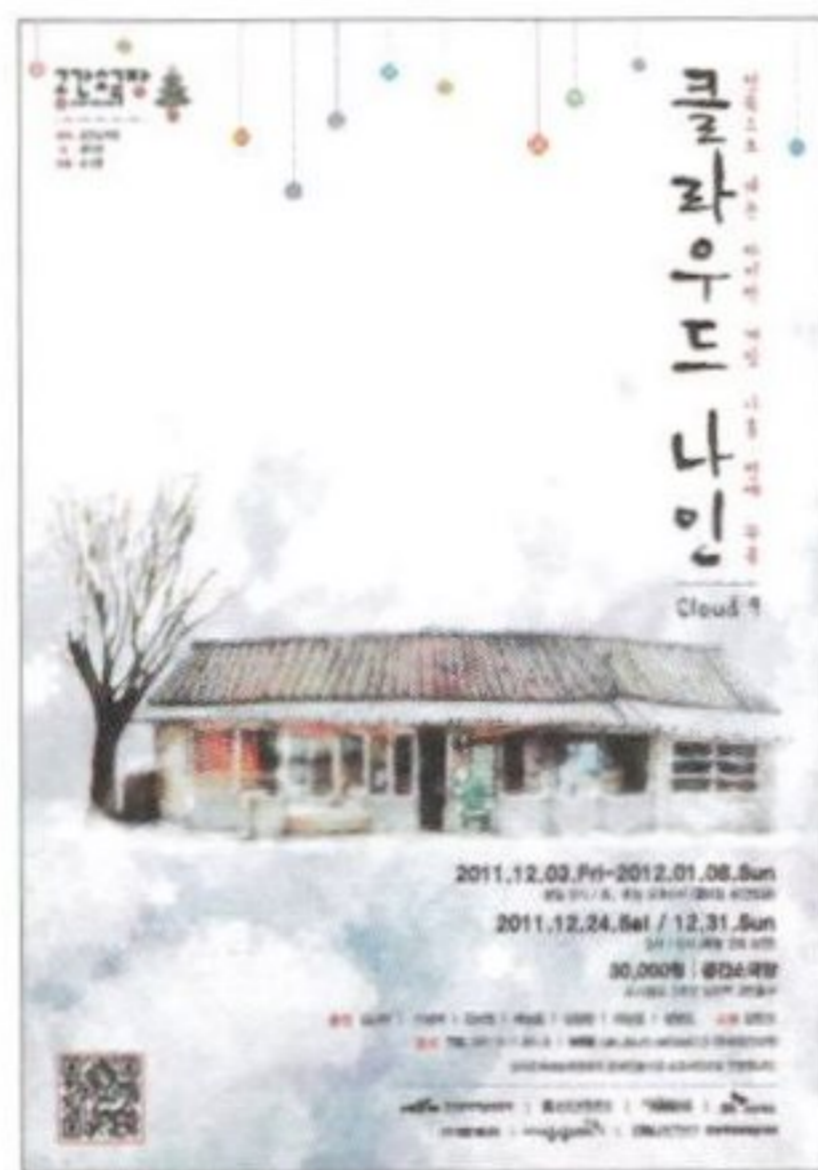
관람료 VIP석 4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예매시 30%,
4인 이상 예매시 40% 할인)

문의 극단 예일(02-555-0822~3)

연극 '클라우드 나인'

2011년 12월 3일(금)-2012년 1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12/24일,
12/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한적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연을 안고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으로 펼쳐지는 연극.

- 작/채지하
- 연출/조기왕
- 출연/김근아, 이정비,

김하영, 배성윤, 엄창완, 이성원, 정영인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1년 12월 6일(화)-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극장**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을 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삶은 소중한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블랙코미디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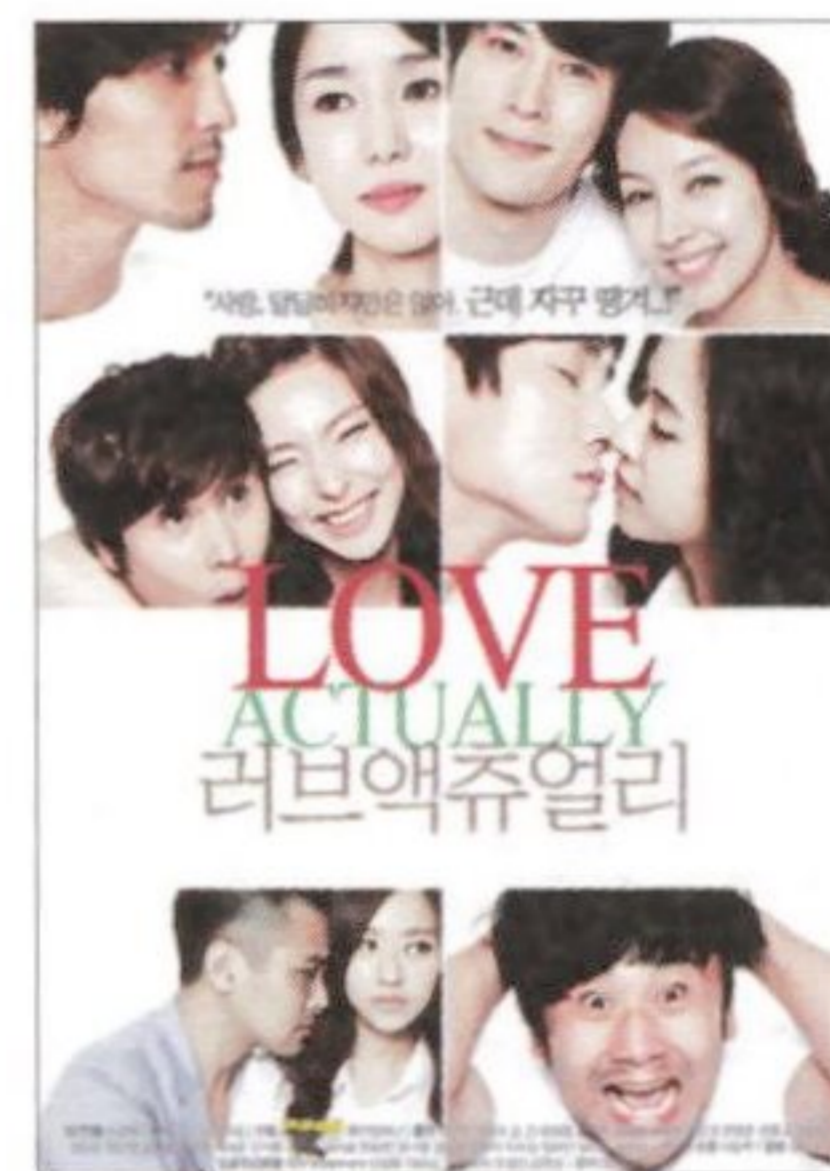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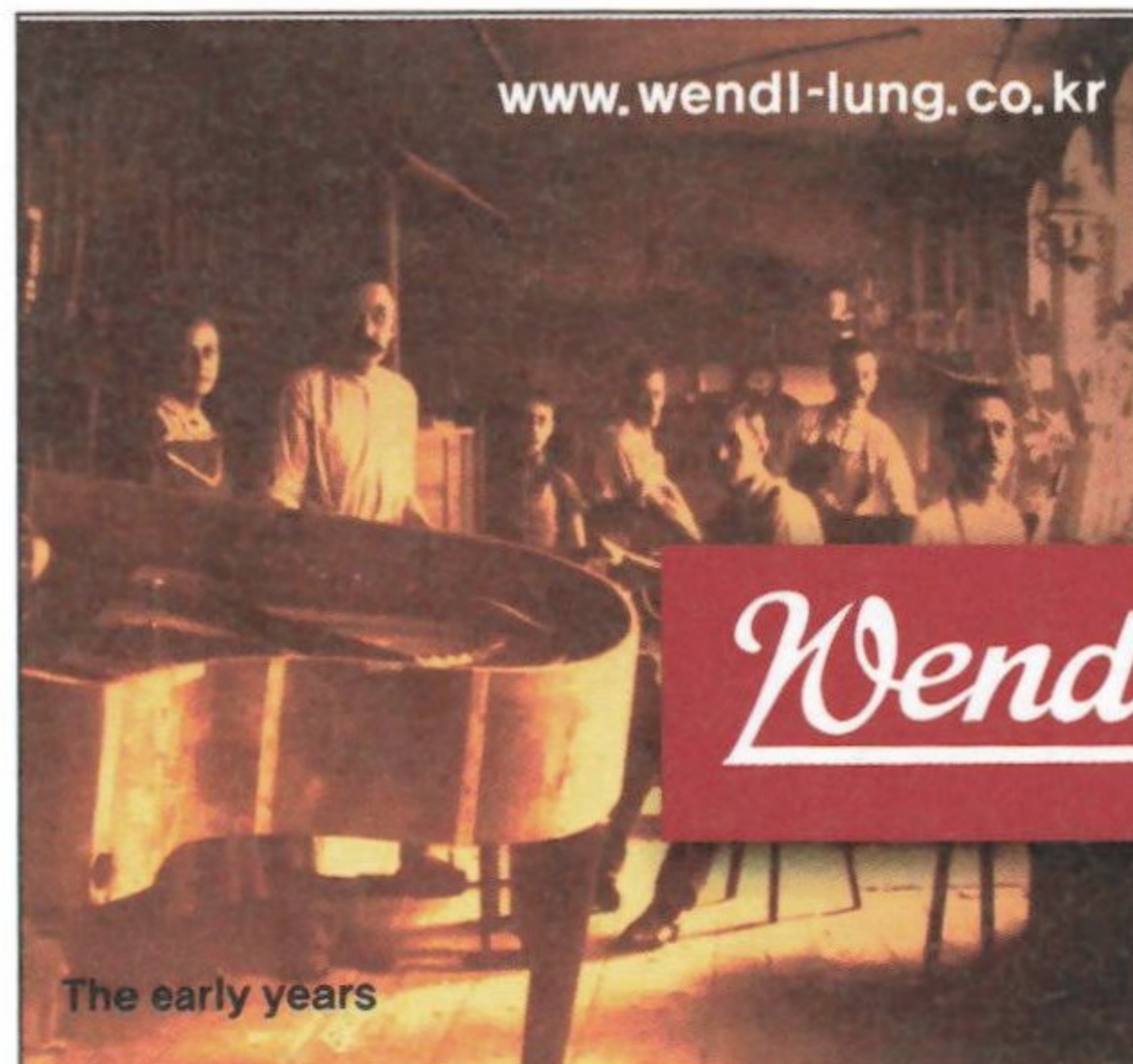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러브 액츄얼리'

2011년 12월 7일(수)-2012년 1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2:00, 5:00, 8:00, 12/25일 오후 1:00, 4:00, 7:00, 월요일 휴관) >>> **SM아트홀 2관**



1990년대를 배경으로 이제 사랑을 시작한 100일 커플, 권태기에 접어든 1,000일 커플, 연인이라기 보다 부부같은 10년 커플 등 세 커플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사랑의 감정을 그린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감성연극 '러브 액츄얼리'.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저작권 뮤지컬 '꿈을 향해 달려라'

12월 8일-9일 목-금요일 오전 10:00, 11:20,
오후 2:00 >>> 글로빌아트홀

201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극본 공모에 당선된 '청실홍실'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다룬 창작뮤지컬.

::관람료 무료

::문 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02-2669-0024, 0015)

링키지 프로젝트 2011 프로젝트팀 이틀 '정의의 사람들'

12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5:00 >>> LIG아트홀 부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예술인들이 풀어내는 거침없는 공연예술의 상상패키지 '링키지 프로젝트 2011' 첫 번째 무대.

카뎬의 대표적인 희곡을 재구성, 연출한 이번 작품에서 연출자 김지용은 연극이 지닌 본연의 힘을 바탕으로 채, 작품이 가진 서사와 배우와의 교감을 무기로 관객과 정면으로 맞선다.

·출연/정애경, 엄준필, 신동훈, 유상훈, 라세흠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3공연 통합관람권 40,000원)

::문 의 LIG아트홀 부산

(661-8701, www.ligarhall.com)

극단 아센 연극 '웨딩드레스'

12월 9일(금)-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수요일 공연없음) >>> 미리내소극장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엄마와 나이 마흔이 넘도록 시집가지 않는 딸, 두 사람의 일상에서 엿보는 다툼과 엇갈린 애정방식을 통해 모녀간의 진정한 신뢰와 애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웨딩드레스'

앵콜무대.

·작/유진월 ·연출/호민

·출연/구민주, 옥순주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연출/이제희

::관람료 R석 25,000원

S석 20,000원

(예매시 R석 17,000원 · S석 12,000원)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창작극연구회 새 작가/새 무대 4 세월의 집...길목에서

12월 10일(토)-20일(화)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 >>> 액터스소극장

수차례 토론을 통한 수정, 보완작업을 거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창작극연구회의 2011년 무대.

시골의 폐가를 배경으로 걸쭉한 사투리로 인간 욕망의 그림자를 비극적으로 그려낸 신진작가 김미영의 작품을 선보인다.

·총감독/김문홍

·작/김미영 ·연출/이성규

·출연/손영민, 전현우, 김강울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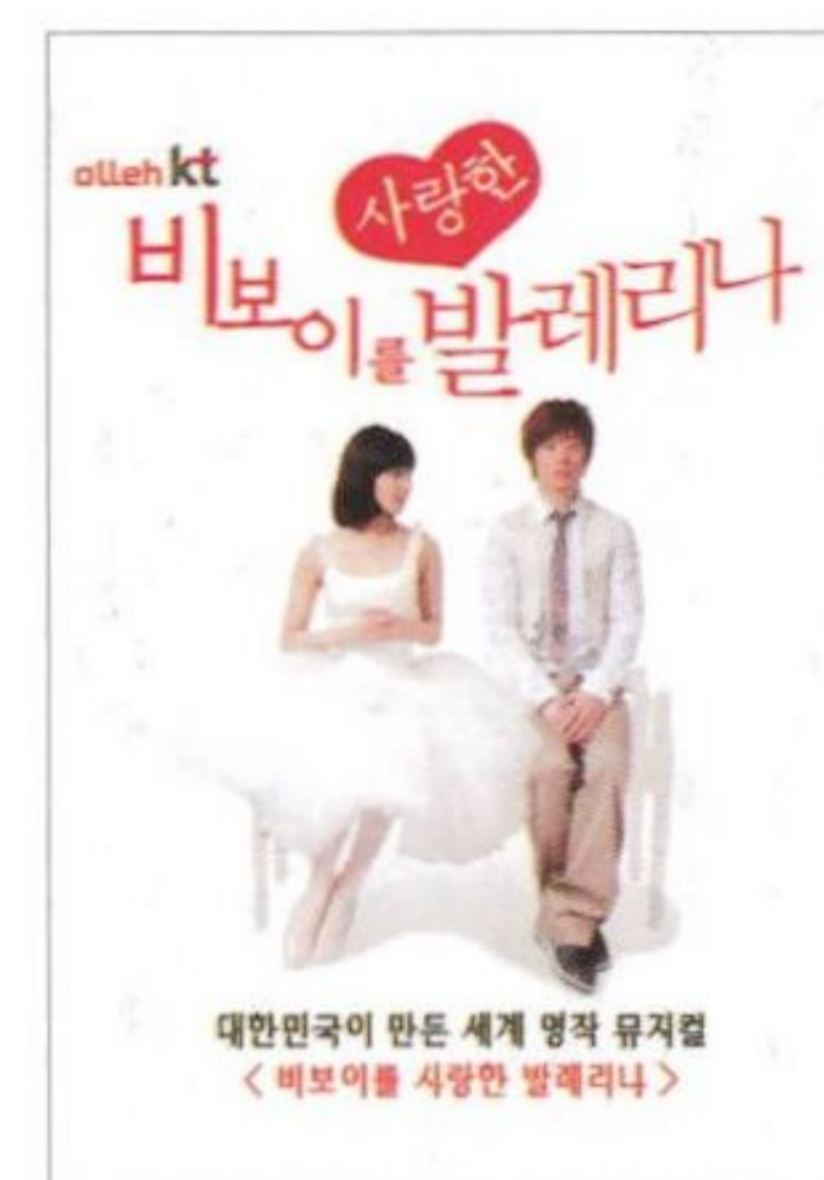
(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2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첫눈에 비보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발레리나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비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화려한 브레이크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난버벌 퍼포먼스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관람료 VIP석 60,000원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문 의 소비보이(02-2266-3727)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1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화려한 트리조명, 신나는 율동과 노래가 함께하는 성탄맞이 창작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크리스마스 특집 개그 판타지쇼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KBS부산홀

TV에서 방영되는 화제의 개그코너를 생생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개그버라이어티쇼.

::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공연예술 전위 제 101회 정기공연 '나생문'

12월 13일(화)~21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 가마골소극장



1951년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을 무대에 올린 '나생문'은 살인 사건에 얽힌 네 인물의 각기 다른 진술을 통해 사건 이면에 감춰진 인간의 본성과 기억의 왜곡을 이야기한다.

· 원작/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연출/전성환
· 출연/전성환, 권철, 김진욱, 이민영, 장민, 박현형 외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공연예술 전위(583-2096)

코믹 버라이어티 난버벌 퍼포먼스 '버닝맨'

2011년 12월 16일(금)~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다섯 명의 소방대원, 버닝맨에게 어느날 일확천금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다이나믹한 춤과 신나는 음악으로 펼쳐지는 코믹 난버벌 퍼포먼스극 '버닝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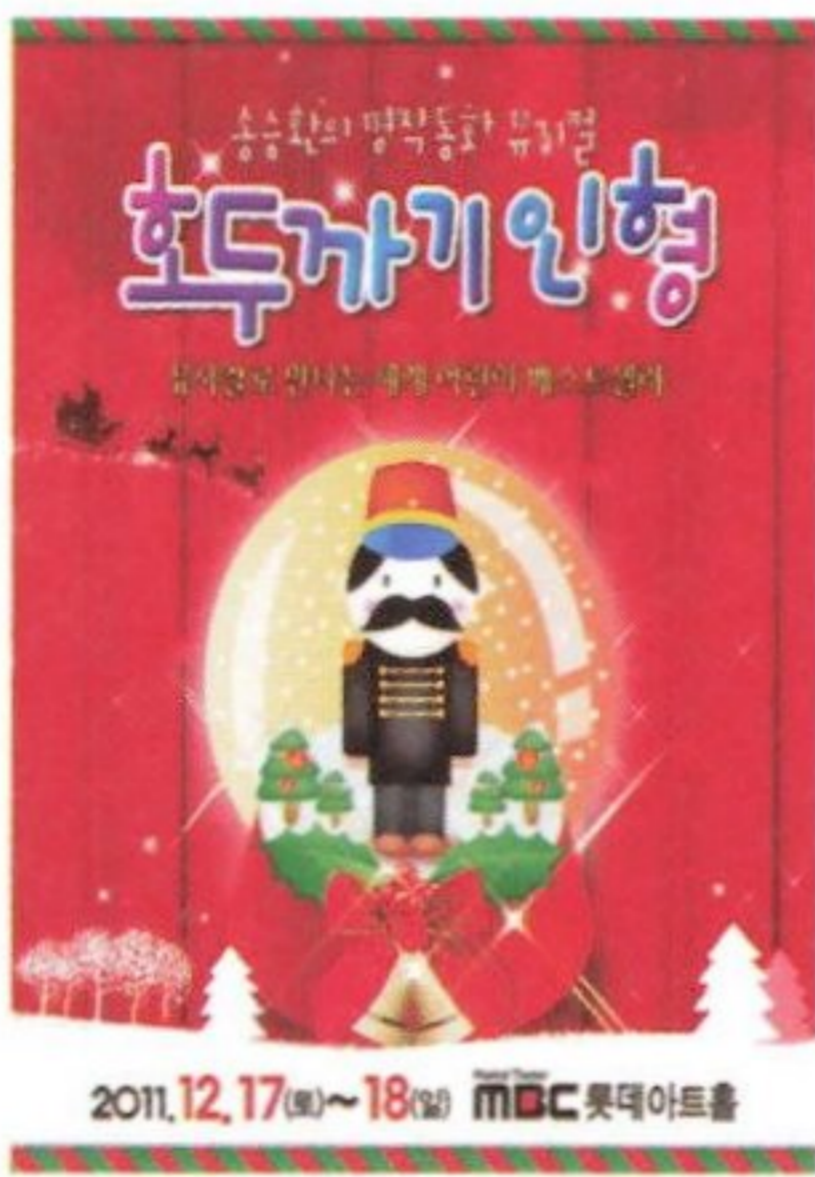
· 총감독/오정국 · 연출/심문섭
· 출연/송준승, 허철녕, 김상균, 안제현, 하준영, 서해미, 박희상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1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 MBC롯데아트홀



뮤지컬로 만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동화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원작동화에는 없는 착한 어린이들의 친구 '마음요정'이 극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이번 작품은 아기자기한 무대와 아름다운

음악, 배우들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재미를 더해준다.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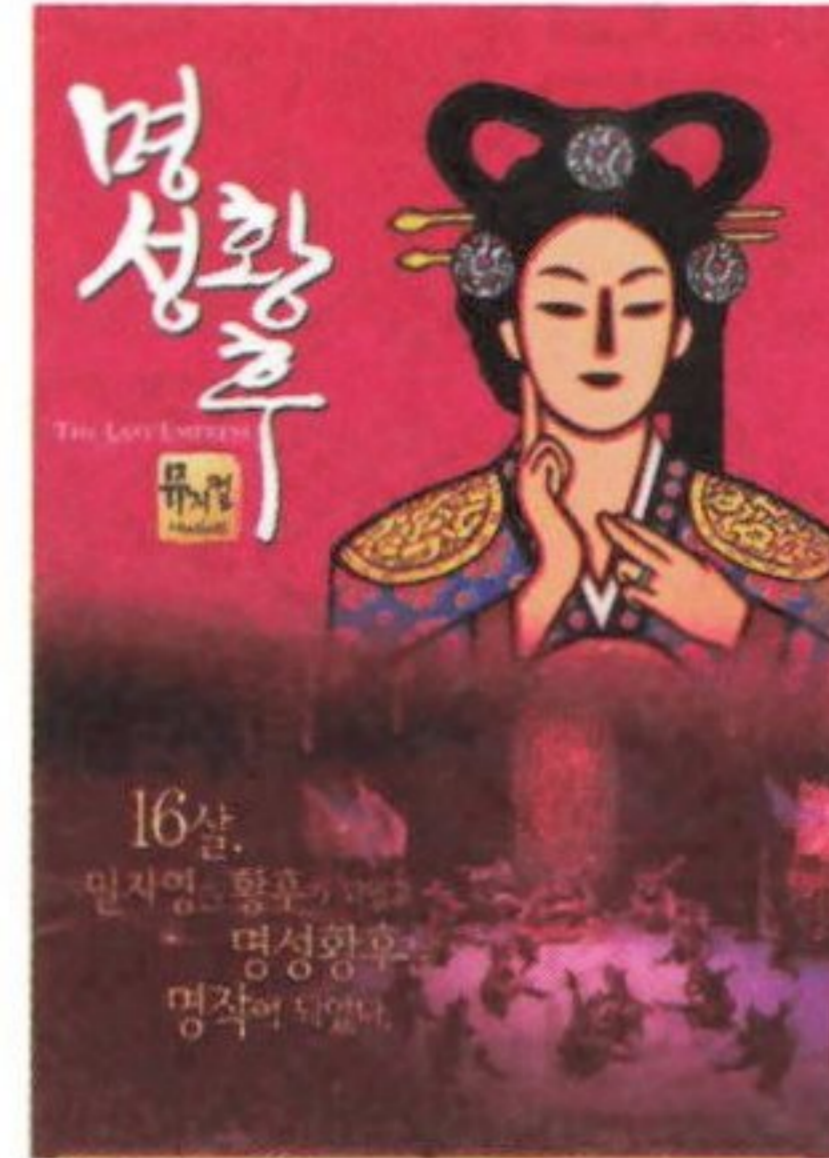
A석 20,000원

::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뮤지컬 '명성황후'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1995년 초연된 후 국내 최초 뉴욕 브로드웨이 진출, 최초 100만 관객 돌파, 공연 횟수 1,000회 돌파 등 숭



한 화제를 낳았던 창작뮤지컬 '명성황후'.

뮤지컬 '명성황후'는 1866년 고종과 민자영의 혼례부터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에 이어 1895년 을미사변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드라마틱하

게 그려내고 있다.

· 출연/이상은, 서영주, 김순택, 이희정, 김성기 외

:: **관람료** VIP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 **문의**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을숙도 연극열전 '환생신화'

12월 21일~23일 수~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5: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금오신화 중 박생의 저승 체험 이야기를 담은 '남염부주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몸져누운 어미를 두고 벌어지는 가족간의 재산다툼이 한바탕 마당극으로 펼쳐지는 연극 '환생신화'.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극단 맥(010-5232-1350)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대여, 수리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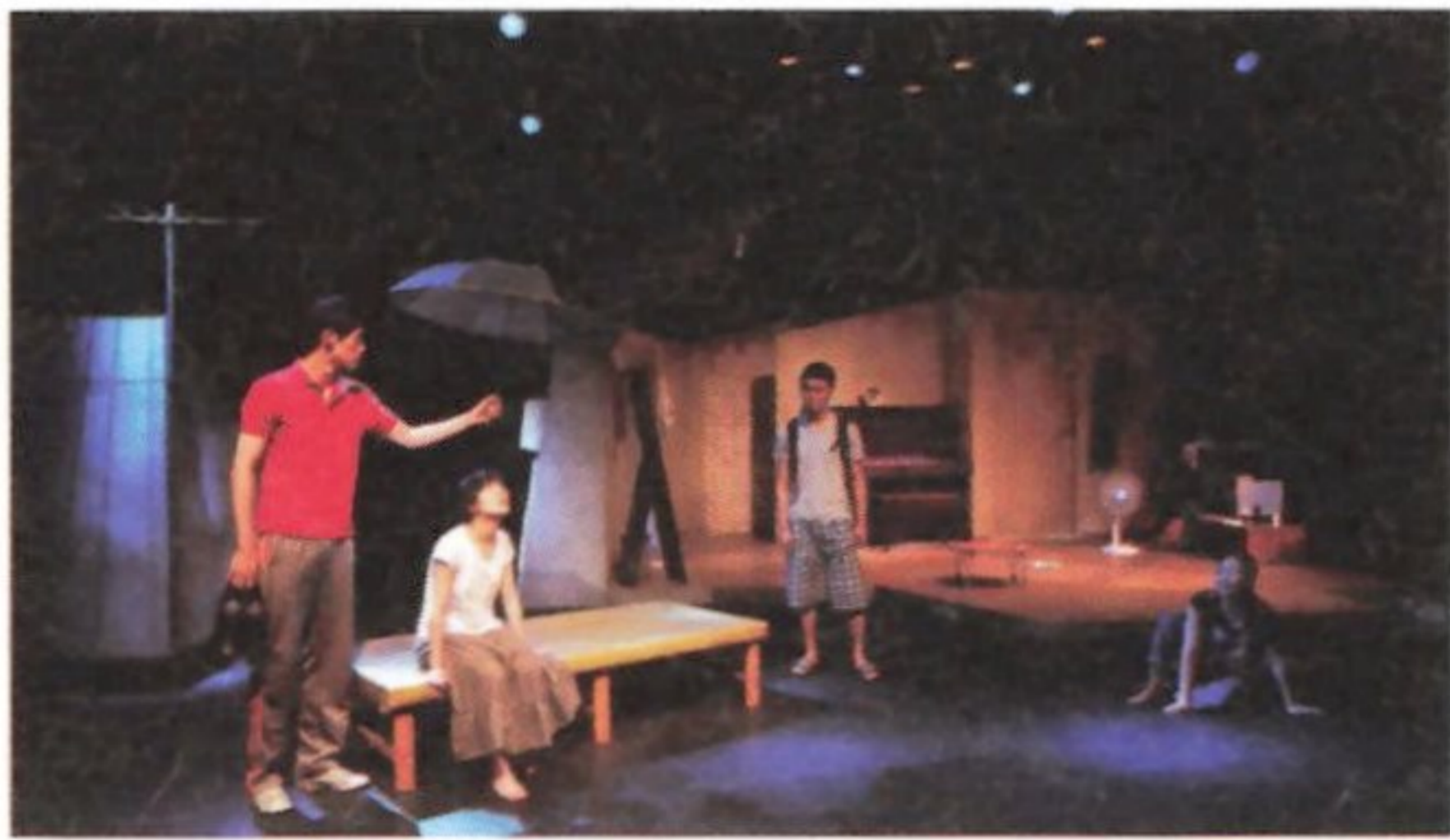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링키지 프로젝트 2011
달나라동백꽃 '달나라 연속극'
12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5:00 >>> **LIG아트홀 부산**



테네시 윌리엄스의 '우리동물원'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창작한 작품으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가 빚어낸 소외계층의 삶의 모습을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진지하면서도 경쾌하게 그려낸 연극 '달나라 연속극'.

· 작/김은성 · 연출/부새롬

::관람료 균일 20,000원(3공연 통합관람권 40,000원)

::문 의 LIG아트홀 부산(661-8701)

뮤지컬 '환상의 커플'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5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MBC롯데아트홀**



오만한 재벌 상속녀 만나 조와 뽀뽀하고 단순한 장철수가 우연히 만나 벌어지는 초절정 코믹 로맨스.

· 원작/홍정은, 홍미란

· 작, 연출/이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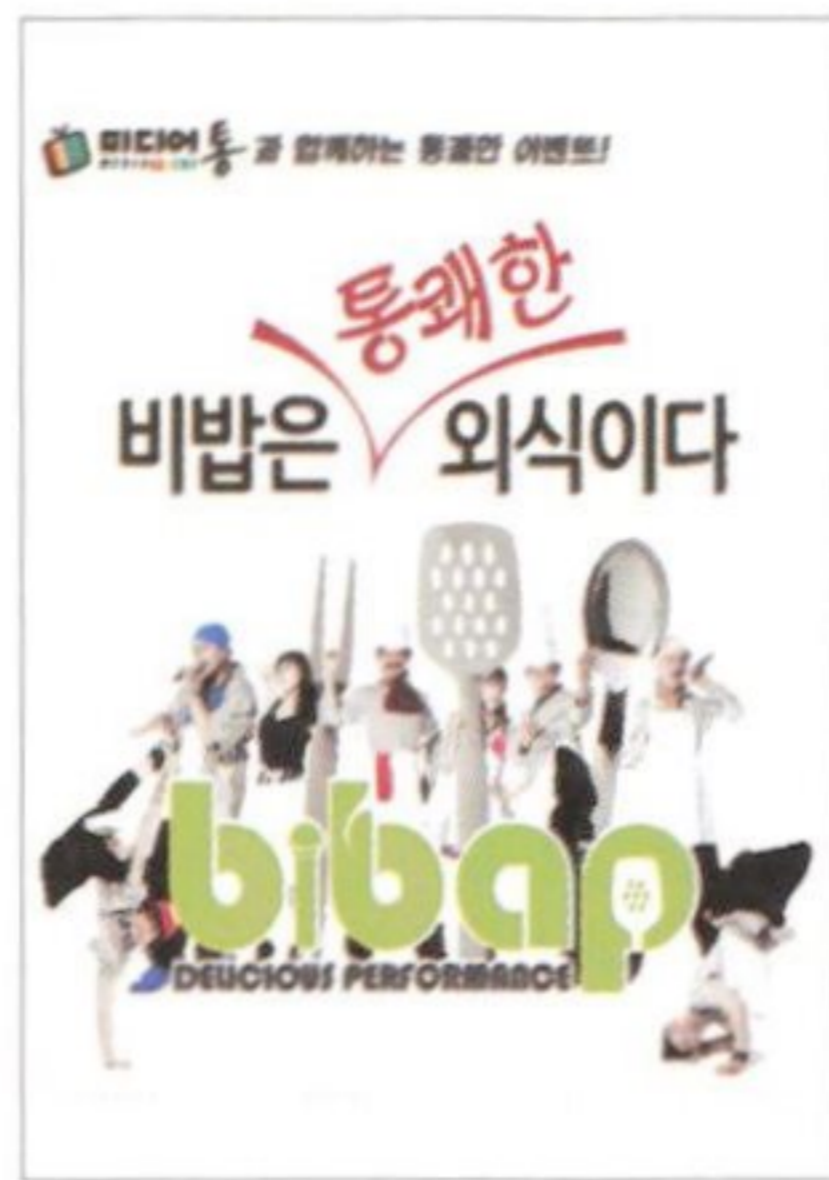
· 출연/김보강, 이가은, 박소향, 문슬아 외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 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뮤지컬 '비밥(Bibap)'

2011년 12월 23일(금)-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을 소재로 한 퍼포먼스극 '비밥'.

비빔밥을 두고 벌어지는 달인과 자객의 팽팽한 대결이 비트박스과 아카펠라, 아크로바틱 등 역동적인 무대로 펼쳐진다.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000원 할인)

::문 의 (주)WSM(1566-5490)

뮤지컬 '잇츠유'

12월 23일(금)-3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2:00, 5:00, 8:00, 12/25일 오후 1:00, 4:00, 7:00, 월요일 휴관)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역 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과 사랑의 로맨틱 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SM기획

(1600-1602)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5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크리스마스 이브 호두까기 인형과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 마리의 꿈 속 이야기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R석 25,000원

S석 20,000원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연극 '메모리'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2:00, 5:00, 8:00, 25일 일요일 오후 1:00, 4:00,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친구인 두 남자가 연인이었던 한 여자를 추억하며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창작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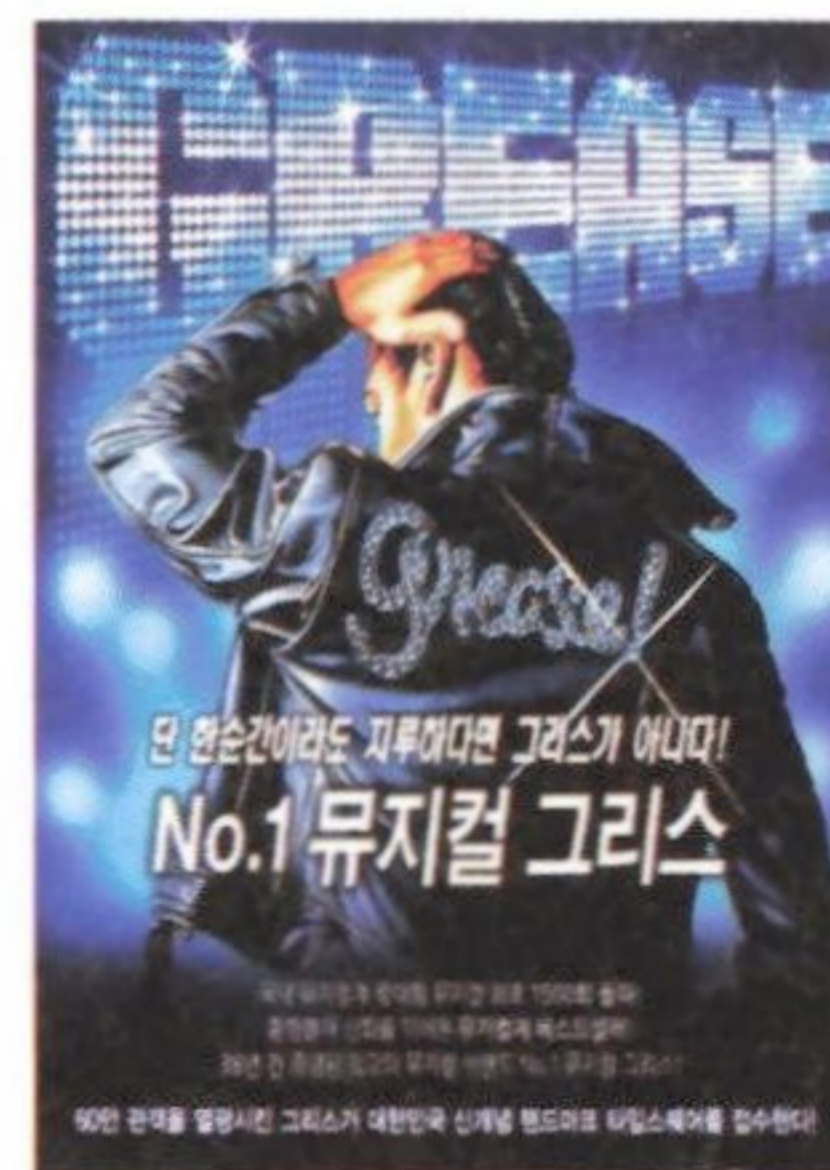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2011 아듀 NO.1 뮤지컬 '그리스'

2011년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6:00, 9:30, 2012년 1월 1일 일요일 오후 3:00, 7:00 >>> **KBS부산홀**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 '그리스'. 청춘들의 사랑과 성장통을 그린 '그리스'는 'Summer Nights', 'Those magic changes'

등 흥겨운 뮤지컬 넘버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WSM(1566-5490)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2011년 12월 31일-2012년 1월 1일 토-일요일 오후 3:00, 8:0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1950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이 선사하는 화려함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정교하게 짜여진 스토리, 옥주현,

김영주, 진구 등 실력파 배우들이 2011년 새로운 '아
가씨와 건달들'을 선사한다.

· 연출/이지나 · 음악감독/김문정

· 출연/김영주, 옥주현, 이용우, 김무열, 이율, 진구 외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780-6000)

DANCE

2011 Feel(必)yo! 공감-화요예술무대 장선희무용단 '춤터의 풍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사)새한전통예술보존회 부산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장선희무용단 춤터 예술감독으로 우리춤 전승에 힘쓰
고 있는 춤꾼 장선희가 이끄는 장선희무용단 전통춤판.

· 특별출연/권은영(거문고, 부산대학교 교수)

::관람료 균일 5,000원

::문 의 부산예술회관(631-1377)

해외관광객공연 '자갈치 아리랑'

12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화사하고 고고한 동백꽃을 닮은 부인과 주색잡기에 능
한 박한량의 사랑, 결혼 등 삶의 이야기가 영남의 춤과
소리로 펼쳐지는 무용극 '자갈치 아리랑'.

· 대본/서연호 · 연출/조수동

::관람료 균일 8,000원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링키지 프로젝트 2011 예술공동체 마르 '농담'

12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5:00 >>> LIG아트홀 부산



밀란 쿤데라의 동명소설을 모티브로, 관습이나 인습에
서 벗어나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
망하는 예술공동체 마르 창작춤 '농담'

· 안무/강희정

· 대본/구현철 · 음악, 연주/전현미

· 출연/문라옥, 김종현, 이정임, 김호민, 강수빈

::관람료 균일 20,000원(3공연 통합관람권 40,000원)

::문 의 LIG아트홀 부산(661-8701)

이현미 한국무용전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하고 그동안 전통춤과 창
작춤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춤꾼 이현미의
한국무용 춤판.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춤으로 갈무리하다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무용협회, 부산시립무용단 등
부산의 주요 3개 춤 단체가 펼치는 춤 교류전.
전통춤과 창작춤을 포괄하는 풍성한 우리 춤 무대로
저물어가는 2011년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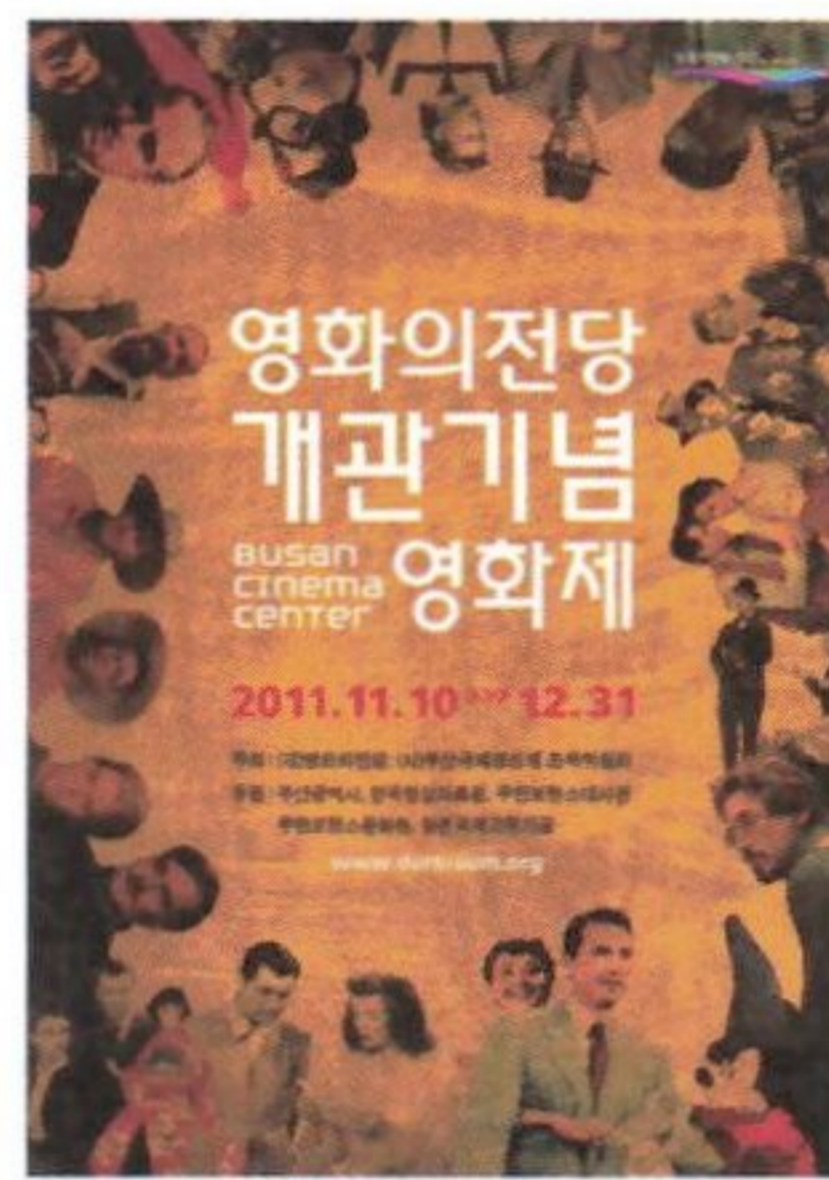
::관람료 초대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MOVIE

영화의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1월 10일(목)-12월 31일(토) >>> 영화의전당



110여년 역사를 지닌 영
화의 대채롭고 풍성한 유
산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의
전당 개관기념 영화제.

1902년 제작된 '달세계여
행'에서부터 2008년 발
표된 대작 '멜랑콜리아'에
이르기까지 영화사의 걸

작 100편을 만날 수 있는 '백화열전(百畵列傳)', 추억
속의 명화를 만날 수 있는 '에픽의 향연', 관객과 평단
의 사랑을 받은 2000년대 예술영화를 만나는 '21세기
가 사랑한 영화', '칸 비평가주간 50주년 특별전' 등
8개 섹션 22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관람료 균일 3,000원

::문 의 영화의전당

(780-6058, www.dureraum.org)

CONCERT

나팔꽃 인생 송해 빅쇼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KBS부산홀

영원한 방송인 송해가 생애 처음으로 펼치는 노래와
예능쇼.

· 사회/이상벽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관람료 VIP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2011 이승철 콘서트 '엔플러그드 라이브' -부산

1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 사직실내체육관

::관람료 VIP석 121,000원 · R석 110,000원
S석 99,000원 · A석 88,000원
B석 77,000원

::문의 대웅E&S(1588-1718)

현미밴드 Show & Show 사랑은 사랑이다

12월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8:00

>>> 문화골목 in 노가다

관객과 함께하는 현미밴드의 라이브 무대.

·출연/전현미, 백상호, 서상기, 김효진, 엄준필, 이창환, 노설화

::관람료 균일 20,000원(전화예매시 균일 10,000원)

::문의 용천지탈소극장(612-4312)

박정현+성시경 Love Concerto '그해, 겨울' -부산

12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7:3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VIP석 121,000원 · R석 110,000원
S석 99,000원 · A석 88,000원

::문의 SPA 엔터테인먼트(1599-7448)

김경호스러운 김경호 콘서트 IN 부산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 KBS 부산홀

::관람료 VIP석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B석 55,000원

::문의 PS엔터테인먼트(1599-0701)

조항조 전국 투어 콘서트-부산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의 아우라기획(1577-9881)

리쌍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리쌍극장' 부산공연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6: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문의 (주)WSM(1566-5490)

조관우 '겨울이야기' 부산콘서트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나윤선 2011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11년 프랑스 최고 가수 상, 대한민국 대중음악상, 독일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하며 유럽 정상의 재즈보컬로 돌아온 재즈가수 나윤선과 울프 바케니 우스(기타), 뱃상 빼라니(아코디언), 씨몽 따이유

(콘트라베이스) 등 프랑스의 재즈뮤지션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관람료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6)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 부산공연

12월 21일-22일 수-목요일 오후 8:00 >>> KBS 부산홀

·출연/김세환, 송창식, 한대수, 정훈희, 이상벽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문의 (주)더블유엔터테인먼트(02-517-0394)

슈퍼스타K3 TOP11 CONCERT 부산공연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97만대 11의 경쟁을 뚫고 슈퍼스타K3의 TOP11에 오른 실력자들이 펼치는 열정의 무대.

::관람료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A석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이바디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산공연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25일 일요일 오후 4: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균일 55,000원

::문의 FACE ENT(1661-3253)

2011 이문세 붉은노을-부산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25일 일요일 오후 6: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문의 에스제이이엔티(1599-2005)

**바이브, 이영현, 포맨 콘서트
'크레이지 소울' 부산**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8: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 B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 A석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해운대300 콘서트
12월 24일(토), 30일(금), 31일(토) 오후 7:00, 10:00
>>> 좋은데이숨사탕아트홀 해운대관

· 24일 내 귀에 도청장치
· 30일 레이저본
· 31일 TOXIC
관람료 균일 55,000원
문의 좋은데이숨사탕아트홀 해운대관(740-4888)

**YB 초심유지 인증 콘서트
'청춘' -크리스마스 부산 콘서트**
12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 A석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남진 데뷔 45주년 기념 송년콘서트
12월 27일-28일 화-수요일 오후 8:00 >>>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2011 장윤정 송년콘서트 '놀러 Olleh' -부산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3:00, 6:30
>>> 시민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66,000원
문의 (주)라이브엔터(1544-1555)

2011 콘서트 '김범수★이소라' -부산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8: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R석 121,000원 · S석 110,000원
A석 99,000원 · B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2011' 형제의 난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9:30 >>> 사직실내체육관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88,000원 · B석 77,000원
문의 (주)WSM(1566-5490)

재즈, 와인에 빠지다 33번째 콘서트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8:00 >>> 시민회관 소극장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무대공감(623-0678)

EVENT
제 108회 시울림 시낭송회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종미, 권정일, 조풍호, 박춘석, 박재울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0-5516-1867)

제 4회 어린이, 청소년 연극캠프
2012년 1월 7일(토)-13일(금), 14일(토)-20일(금)
>>> 밀양연극촌

모집정원 및 작품
· 저학년반(1~3학년) 30명 '스쿠르지'
· 고학년반(4~6학년) 30명 '오즈의 마법사'
· 청소년반(중고생) 30명 '천국과 지옥'

모집기간
· 1차 캠프/1월 7일(토)-13일(금)
· 2차 캠프/1월 14일(토)-20일(금)

접수기간
· 1차 캠프/1월 5일(목)까지
· 2차 캠프/1월 12일(목)까지

참가비 1인 300,000원
문의 밀양연극촌
(055-355-2308, www.stt1986.com)

GALLERY

모네에서 워홀까지
9월 7일(수)-12월 11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모네에서부터 미국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까지 근·현대 서양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81명의 작품 112점을 감상할 수 있는 모네에서 워홀까지' 부산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8:00
관람료 일반 11,000원 · 초중고 9,000원
미취학아동 5,000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6-2970)

최병훈 아트퍼니처展
10월 21일(금)-12월 25일(일) >>> 조현화랑 부산

국내 최초로 아트퍼니처를 시도하고 있는 작가로, 도(道)와 선(善)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최병훈 아트퍼니처전.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문 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직면'

10월 29일(토)-12월 23일(금) >>>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이재갑 작 '나가사키 죽음의 섬 사키토 탄광'

· 참여작가/권순관, 김옥선, 변순철, 송승현, 이강우, 이재갑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김흥구 작가의 '좀네'展

11월 4일(금)-12월 19일(월) >>> 토요타 아트 스페이스

::문 의 토요타 아트 스페이스(744-3924)

강서예술인연합회 제 13회 회원작품전

11월 12일(토)-12월 30일(금) >>> 강서예술촌

::문 의 강서예술촌(972-3912)

이인철展 '겨울놀이'

11월 23일(수)-12월 6일(화) >>> 문화골목 갤러리 석류원

::문 의 갤러리 석류원(625-0765)

엄윤영 개인초대전

11월 24일(목)-12월 19일(월) >>> 갤러리 봄디

::문 의 갤러리 봄디(070-7720-6862)

김경애 개인전

12월 1일(목)-12월 30일(금)

>>>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차명주 '푸른기억속의 샤머니즘'

12월 3일(토)-12월 9일(금) >>> 대청갤러리



샤머니즘 '고향같은 그리움' '두려움이 아닌 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던 따뜻한 영매'라 칭하며 화폭에 담은 샤머니즘 작가 차명주 초대전.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Noel, Noel...크리스마스 선물전

12월 1일(목)-12월 31일(토) >>> 갤러리 움

2011년 한 해 동안 갤러리 움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작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마련하는 특별전.

::참가비 무료

::문 의 아트카페 움(557-3369)

'의자를 말하다'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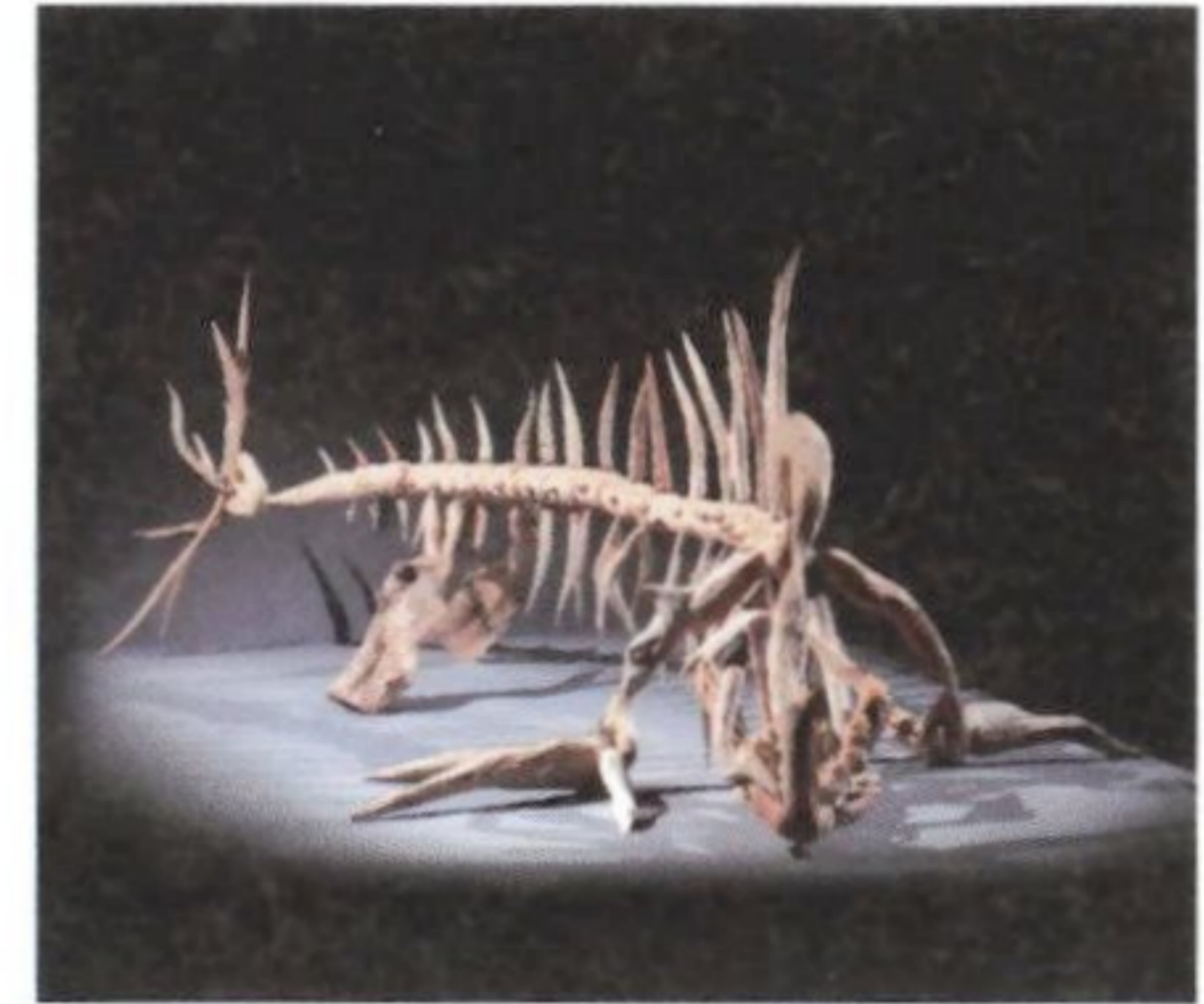
12월 7일(수)-12월 15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의자를 주제로 작가 25명이 풀어내는 다양한 설치전.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美친 전시

12월 8일(목)-12월 16일(금) >>> BS부산은행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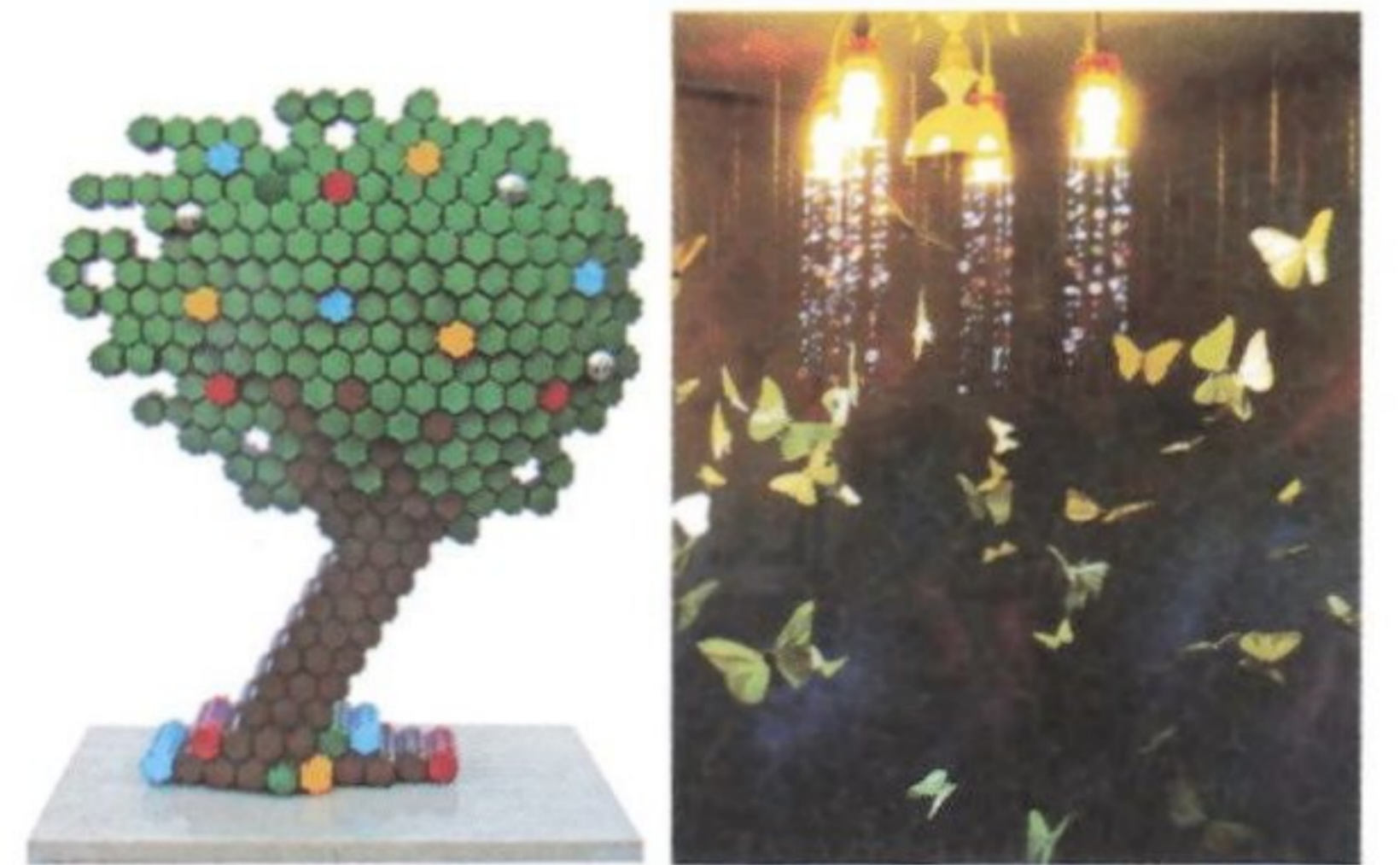


양훈 작

::문 의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Thank you 2011! 'Gift & Party' 展

12월 16일(금)-1월 5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제 39회 부산창작미술협회展

12월 17일(토)-12월 26일(월) >>>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김연우 개인전

12월 28일(수)-12월 31일(토) >>>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문 의 김연우(701-0465, 010-5755-0465)

우연이 다가와 무한 감동을 전해주는 홍혜경의 'Laudate domi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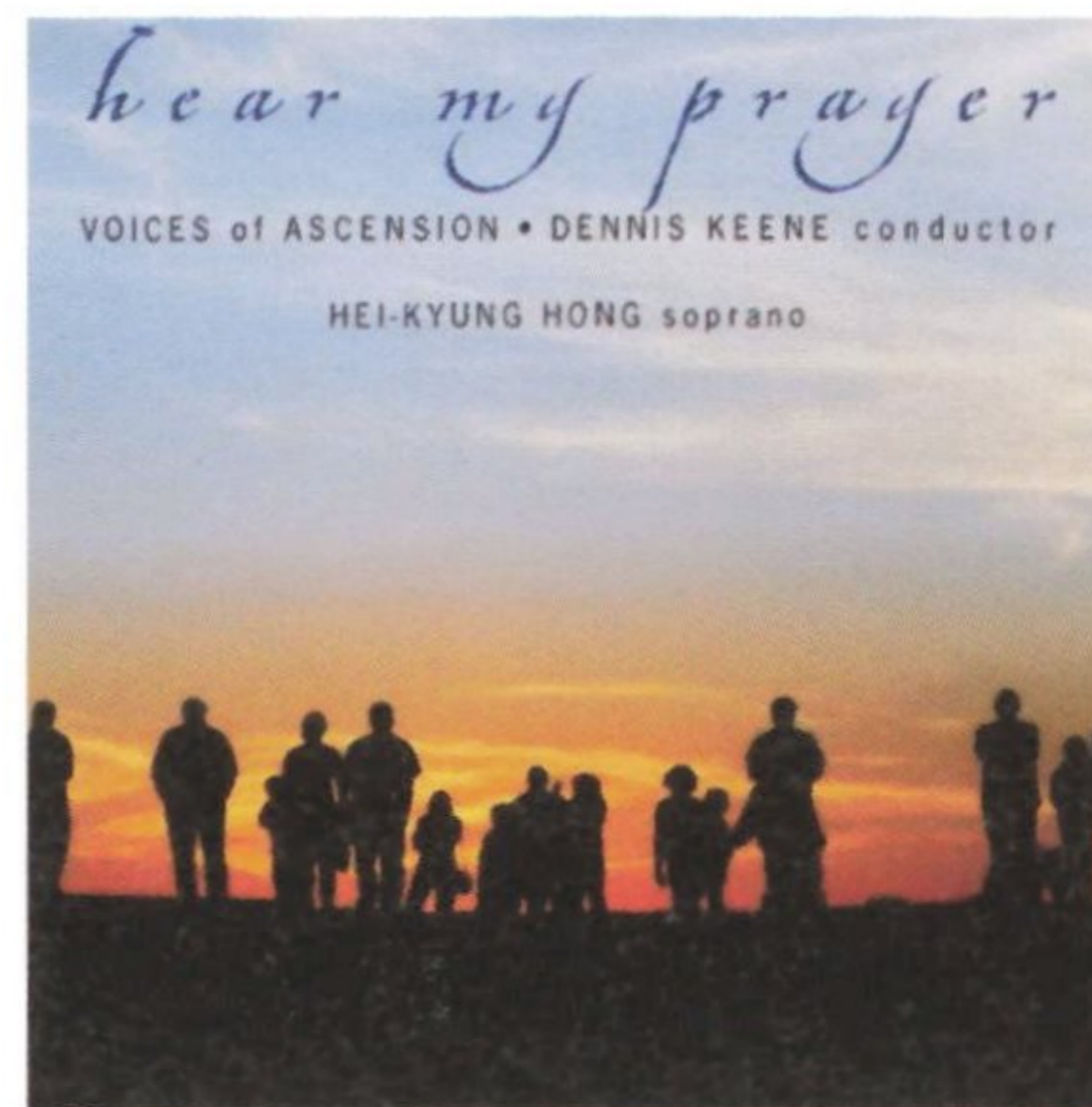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연말에 전세계적으로 개최되는 송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 중 대표적인 작품은 베토벤의 제 9번 교향곡 '합창' 과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일 것이다.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관현악과 성악이 동원된 대편성 음악을 감상하며, 연말연시를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한다.

작년과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송년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이다. 이것은 말러의 기념해에 따른 특별한 선곡으로 말러 탄생 150주년인 작년에는 교향곡 제 2번 '부활' 이 연주되었으며 사망 100주년인 올해에는 교향곡 제 3번이 예정되어 있어 기대가 된다. 작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에서 말러 교향곡 제 3번이 연주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의미있는 비교 감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는 늦가을부터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찾는 것처럼 음악도 따뜻한 음색의 곡들에 손이 더 자주 가게 된다. 특히 화려하고 빠르며 지속적인 고음이 연주되는 작품보다 푸근한 음색을 가진 악기와 협연하는 단아한 성악곡에 유독 손이 자주 가게 된다. 프랑크의 'Panis angelicus', 모차르트의 'Ave verum corpus', 존 루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등을 비롯하여 종교음악과 성가곡을 선호하는 것은 연말을 보내는 종교적인 의미와 종교에 기반을 둔 서양음악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연말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곡은 모차르트의 '구도자의 엄숙한 저녁기도 K.339' 중 제 5곡인 'Laudate dominum' 인데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미니크의 저녁기도 K.321' 과 함께 작곡되었다고 한다. 'Laudate dominum' 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의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다. 종교를 떠나 그 선율의 아름다움과 관현악과 합창이 소프라노 독창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천상의 음악을 들려준다. 5분 정도의 짧은 이 곡은 K.339 전곡으로 연주되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연주되는 경



우가 더 많다. 개인적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 을 가장 좋아하여 여러 음반들을 구입하여 감상하다보니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레퀴엠' 과 'Ave verum corpus' 혹은 'Laudate dominum' 을 함께 수록한 음반들이 제법 있어 자연스럽게 그 선율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국내의 한 음반사에서 만들어진 샘플러 CD에 수록된 이 곡을 듣고는 완전히 그 음악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다.

샘플러 CD에 수록된 연주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닌 오르간 독주 반주로 연주되며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합창을 조용히 뚫고 나오는 소프라노 솔로의 풍성하고 따뜻하면서도 미지의 힘마저 느낄 수 있는 음성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도대체 누가 부르는 연주인가 싶어 북클릿을 뒤져보니 나타나는 낯익은 이름은 홍혜경. 조수미, 신영옥과 함께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소프라노 중 한명인 홍혜경의 연주는 그때까지 접해본 그 어떤 연주보다 마음에 와 닿았고 한밤중이나 새벽녘의 조용한 시간에 눈을 지긋이 감고 감상하면 가슴 뭉클한 알 수 없는 감동마저 일어난다.

우연의 일치인지 조수미와 신영옥도 'Laudate dominum' 을 레코딩하였는데 모두 오케스트라 반주이며, 오르간 반주로 천상의 세계에서 부르는 듯한 홍혜경의 음성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Laudate dominum' 이 수록된 원 음반을 구입해보니, 이 음반에는 프랑크의 'Panis angelicus' 와 음반의 제목이기도 한 멘델스존의 'Hear my prayer' 를 포함하여 홍혜경이 연주하는 곡이 4곡이 수록되어 있어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명의 소프라노의 연주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지만, 우연히 만나 무한감동을 전해준 홍혜경의 연주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가슴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어 곡의 내용과 같이 영원한 사랑으로 항상 마음 가는 나의 애청음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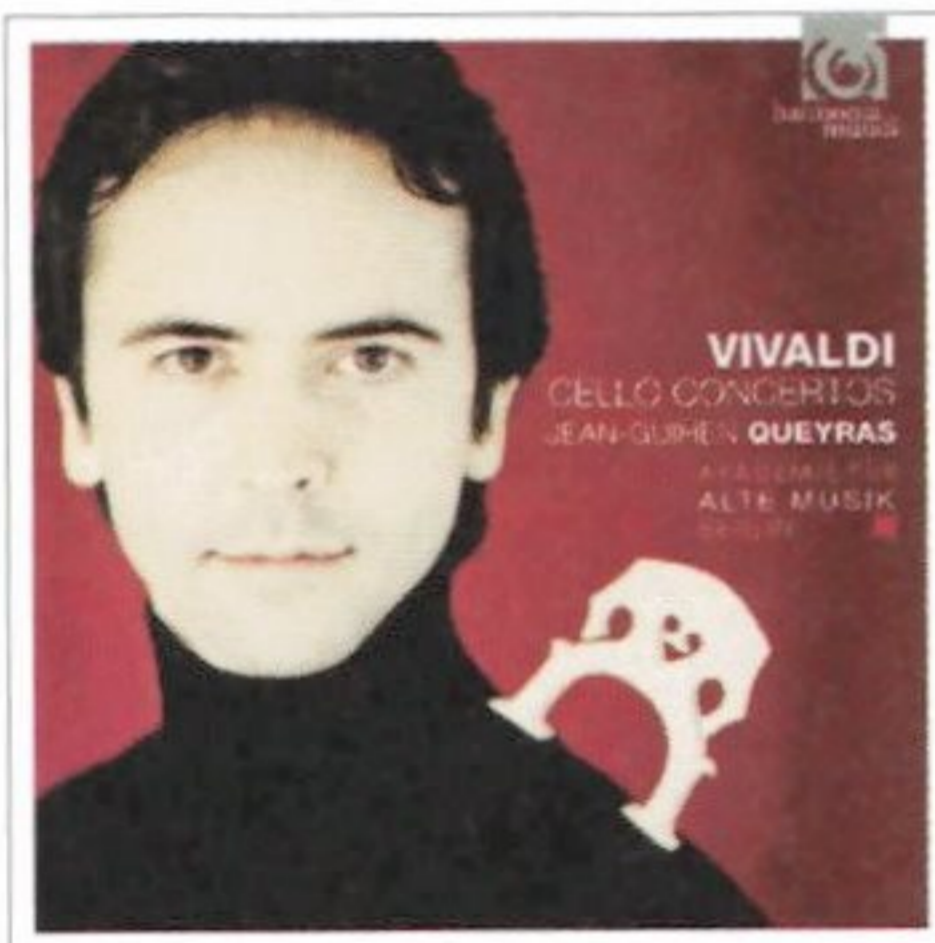


쇼팽 : 에튀드 전곡

▶연주/마우리치오 폴리니(피아노)

보통 연습곡으로 번역되는 '에튀드'는 일반적으로 손가락 연습을 위한 기교적인 의미만 부각되는 데 비하여 쇼팽의 에튀드는 기교 연마 뿐만 아니라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작품으로, 쇼팽의 작품 중에서도 연주하기 매우 어려운 장르에 속한다.

쇼팽의 에튀드 명반으로는 보통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가 손꼽히고 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가 쇼팽 콩쿠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우승한 직후인 1960년 9월 런던의 EMI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피아노 협주곡과 동시에 녹음했던 쇼팽 에튀드 전곡이 아카이브에서 살아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폴리니 특유의 수정 같이 투명한 피아니즘과 완벽한 테크닉, EMI의 명 프로듀서 피터 앤드리의 친밀한 녹음이 조화를 이룬 이 음반은 쇼팽 에튀드의 교과서라 불린다. 이 연주는 '훗날 DG에서 만든 두 번째 녹음에서 들을 수 있는 확고한 스케일의 해석과는 또 다른 섬세함과 감정적인 호소력, 직접적인 표현을 갖추고 있어서 스무 살 무렵 젊은 날의 청년 폴리니가 이미 얼마나 탁월한 피아니스트였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비발디 모음곡

▶연주/장-귀앙 퀘라스(첼로),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유명한 사계, 밤 등등의 협주곡 이외에도 비발디는 27편 정도의 첼로 협주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발디가 활동하던 시대에 첼로는 바소 콘티누오의 역할만을 담당하던 악기였으나 비발디는 진정한 첼로 비루투오조들과 작업을 함께 했으며 이들을 통해 첼로를 독립적인 솔로 악기로 다룬 독창적인 첼로 협주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다. 젊은 마에스트로 퀘라스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함께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들을 탐구한다. 함께 실린 칼다라의 작품들 역시 새로운 발견에 해당한다. 충분히 비발디적이면서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장-귀앙 퀘라스의 비범함이 고스란히 담긴 대작이다. 더 인디펜던트에서는 "퀘라스의 첼로가 뿜어내는 소노리티와 질감은 풍성하면서 고전적인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비발디적인 기쁨과 생기의 품격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이 음반에는 기억할만한 순간들로 가득차 있다"고 평하고 있다.



모차르트 & M.하이든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소나타집

▶연주/레이첼 포저(바이올린), 제인 로저스(비올라)

이미 우리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해석가로 공인받고 있는 레이첼 포저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꼽는 모차르트와 미하엘 하이든의 바이올린-비올라 이중주 소나타를 바로크 비올라 연주자 제인 로저스와 함께 들려준다. 모차르트 특유의 투명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이 흐르는 이 이중주 소나타는 작은 보석과도 같은 숨은 걸작으로, 연주자와 듣는 이에게 다 같이 즐거움을 주는 매력적인 작품들이며 하이든은 민속 음악의 정취가 가득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마치 오페라에서 소프라노와 테너가 펼치는 사랑의 이중주처럼 서로 다정한 대화를 나눈다. 포저와 로저스의 이중주는 진정한 실내악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레이첼 포저는 몇차례 내한 공연에서 다채롭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바로크 바이올린의 정수를 선보인 바 있다.



하루 하루가 잔치로세
우리 고유의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

김영조 지음 / 인물과 사상사
/ 544p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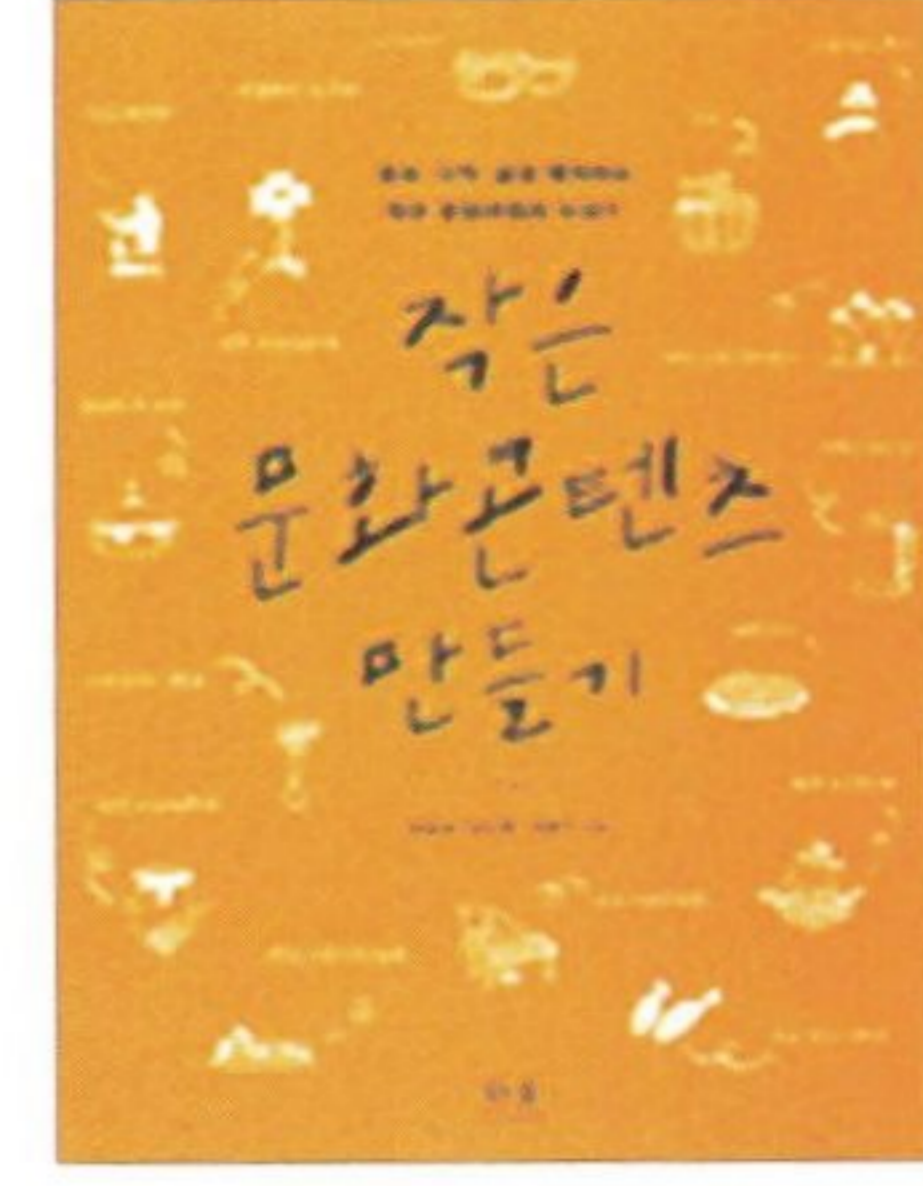
한국문화의 속살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글쓰기와 강연을 하는 '우리문화 알리기'로 알려진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김영조 씨의 책, 우리 고유의 문화와 세시풍속으로 알아보는 365일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노동시간과 강도는 생각보다 세다. 일을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야 할텐데,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0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3명보다 세 배나 높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옛날이 더 부러워진다. 우리 선조들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여유로웠던 같다. 농업국가에 기계문명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시시각각 변해가는 날씨에 농사만 바라보고 살면서도 옛사람들에게는 이웃과 함께 먹거리와 입을거리, 놀거리가 풍요로웠다. 책에는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겨레가 누려왔던 세시풍속과 민족문화의 풍경이 펼쳐진다. 우리 절기와 명절문화를 통해 본 선조들의 365일을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24절기, 4대 명절, 삼복, 속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림 모으는 남자
인사동 그림속을 거닐다

김생기 지음 / 스타북스
240p / 15,000원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과 소통하는 컬렉터인 김생기 씨의 그림 사랑 이야기. 저자는 초등학교 2학년, 뜻하지 않게 미술대회에 나가서 특선을 한 인연으로 미술과 친숙하게 되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출장과 많은 업무에 지칠 때면 인사동의 갤러리를 찾아 그림을 보는 즐거움에 빠지고, 좋아하는 그림을 보면 화가의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구입하는 컬렉터이다. 한 점 한 점 사연이 있는 그림을 모은 작가는 10년 간의 그림 감상의 즐거움과 낭만, 그리고 추억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림이 있다면 구입해 곁에 두고 매일 말을 건네며 작품을 그린 작가의 성향과 성격을 짐작하는 것이 김생기 씨의 취미이자 행복이다. 마음을 움직인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근심과 걱정도 잊고 그 그림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작가는 그런 행복이 그림을 감상하고 수집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림을 구입하는 일은 작품을 그린 화가와 소통하면서 더불어 한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정의 내린다. 작가의 경험이 그림을 보는 감동과 더불어 또 다른 즐거움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작은 문화콘텐츠 만들기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문화정책

류용재 외 지음 / 한울아카데미
/ 301p / 23,000원

이 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이 문화 향유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문화기획이 산업과 자본의 논리나 제작자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직접 소비하는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게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인프라 구축이나 일회성·이벤트성 축제기획에만 편중된 관심을 일상과 삶의 다양하고 작은 문화콘텐츠로 돌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문화기획의 중요성도 짚어준다. 즉 문화향유자의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 문제제기를 통해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 전망과 대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류용재 교수, 공주대학교 영상광정보공학부 영상학전공 강승묵 교수, 내밀사회문화연구소 이영주 소장 등 관련분야를 계속 연구해 온 전공자들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부산은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송년음악회 공동제작



지난 10월 13일과 14일 막이 오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을 공동 제작한 부산은행이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및 2011 송년음악회를 지원, 보다 풍성한 송년무대를 열어준다.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은행은 지난 8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꽃'을 공동제작한 데 이어 두번째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송년음악회를 공동제작하게 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어린 시절 모두가 읽었던 동화 '백설공주'와 영화로 인기를 얻었던 '슈렉'을 합창 뮤지컬로 재해석한 특별한 송년무대로 환상적인 꿈의 동화 속으로 안내한다.

12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12월 공연일정이 확정되었다. 12월에는 '지금세탁방지 국제회의' '자원봉사자 어울 한마당' '장애우와 함께 하는 송년공연'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일정

12월 7일(수)	20:00	벡스코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내사랑 부산공연 '지금세탁방지 국제회의'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12월 9일(금)	15:00	해운대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해운대도서관에서' (출연/시립교향악단)
12월 13일(화)	14:00	부산여성회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자원봉사자 어울 한마당'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2월 14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2월 15일(목)	10:30	부산해남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장애우와 함께 하는 송년공연' (출연/시립무용단)
12월 16일(금)	15:00	부산노인전문 제 2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출연/시립소년소녀합창단)
12월 20일(화)	14:00	부산정신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출연/시립교향악단)
12월 21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시립합창단)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5)

2012년 토요일상설무대 공연시간 변경안내 ▶

2012년 1월부터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공연시간이 오후 5:30에서 오후 4:00으로 변경운영됩니다.

우리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 37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 기간 : 2012. 1. 9(월)~1. 13(금) 5일간
- 강습 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 내용 : 교방살풀이춤(13:00~15:00),
춘앵무(15:00~17:00)
- 강습 대상 :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내외)
- 강 사 : 교방살풀이춤-홍기태(수석 안무자), 이화성
춘앵무-서정숙(훈련지도자), 김주연
- 강습 발표회 : 1월 13일(금) 1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준비물 : 살풀이 수건(小), 한삼 1쌍(각자 준비)
- 강습료 : 20,000원
- 접수 기간 : 2011. 12. 19(월)~12. 21(수) 3일간
(평일 10:00~18:00)

※ 방문 접수만 가능

제 26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 기간 : 2012. 1. 9(월) ~ 1. 13(금) 5일간
- 강습 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 내용 : 강강수월래(10:00~11:00),
부채춤(11:00~12:00)
- 강습 대상 :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 강 사 : 강강수월래-홍기태(수석 안무자), 이화성
부채춤-서정숙(훈련지도자), 김주연
- 강습 발표회 : 1월 13일(금) 1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준비물 : 어린이 부채 1쌍(각자 준비)
- 수강료 : 10,000원
(036-12-109517-0 부산은행 부산시립무용단)
- 접수 기간 : 2011. 12. 19(월)~12. 21(수) 3일간
(평일 10:00~18:00)

• 전화 접수 : 051-607-3131~2 ※ 전화 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마감 후 5일 이내 환불 가능 / 수수료 공제)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2월 3일(토) 오후 5:3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 :: 살풀이춤(춤/오숙례)
- :: 청실홍실(춤/박상용, 이상민)
- :: 꽤지나칭칭나네(춤/윤은하, 이현주(A) 이현주(B))
- :: 설장고춤(춤/김공주 김윤호)
- :: 멋든춤(춤/이현숙)
- :: 꼭두상모(춤/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 :: 흥부VS놀부(흥부/김병주, 처/정진희, 놀부/강모세, 처/김진영, 제비/최효선)

12월 10일(토) 오후 5:30 효원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후 중, 고교 및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시립예술단체에서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효원국악관현악단은 지금까지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환경사랑음악회, 초청연주회 등 100여 차례가 넘는 다양한 연주활동을 해왔다.

프로그램

- :: 국악실내악 '프론티어' '방향'
- :: 가야금과 대금을 위한 2중주 <강마을>(편곡/김병섭, 대금/김범석, 가야금 : 최주실)
- :: 아쟁산조 독주(아쟁/최영훈, 장구/박수진)
- :: 해금과 가야금 2중주 'You raise me up' '이등병의 편지'(해금/강민정, 가야금/황정원, 건반/김병섭)
- :: 노래하는 가야금연주자 최재은의 '인연' '거위의 꿈'(편곡/김병섭, 대금/박미정, 타악/박우정, 가야금·보컬/최재은)
- :: 국악실내악 '쑥대머리' '박타령'

12월 17일(토) 오후 5: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 :: 해령(집박/유경조·대금/이만형, 강영진, 최재호·피리/김용우, 박영은, 강영현·해금/정수경, 김소현, 정겨운·아쟁/권혜정, 최희정·장구/이장우·좌고/박재현)
- :: 가야금 산조 [김병호 류](가야금/송영남·장구/송강수)
- :: 천년만세 '계면가락도드리·양청도드리·우조가락도드리'(대금/김수일·피리/정주아·해금/최윤희·양금/장미진·단소/손한별·가야금/옥경화·거문고/전혜정·장구/이장우)
- ::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대금/한영길·피리/박순자·해금/윤해승·아쟁/하성진·가야금/윤경선·거문고/오상훈·장구/송강수)
- :: 사물놀이(뿃과리/이주현·장구/전학수·징/최오성·북/김명진)
- ※ 해 설/백규진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고장 함안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내린 지난 11월 11일, 아라가야의 고도(古都) 함안으로 예순 여덟 번째 테마 여행길에 올랐다. 2년만에 다시 찾은 이번 함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주아, 하지희, 손한별 씨가 동행했다.

1시간을 달려 함안에 도착하자 전정렬 문화관광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테마여행 첫 방문지는 지난 2003년 10월 문을 연 함안박물관. 아라가야의 독특한 유물인 ‘불꽃무늬 토기’의 형상을 한 함안박물관은 지금의 아라가야라 불리는 고대 인라국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전정렬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실을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고려의 충신 이오(李午) 선생의 충절이 살아있는 고려동(高麗洞) 유적지로 자리를 옮겼다.

고려동은 고려 후기 성균관 진사였던 이오(李午) 선생이 고려가 멸망하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이 곳에 거처를 정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19대 6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뜻을 받들어 ‘고려동’의 이름을 지켜오고 있다. 보수공사가 한창인 입구에 들어서자 고려 유민의 거주지임을 뜻하는 ‘고려동학(高麗洞壑)’ 비석이 방문객을 먼저 맞는다. 고풍스런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려동에는 고려 종택과 별당인 자미정(紫薇亭), 그리고 이오선생의 현손인 여주 이씨 부인의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해 우물에서 전복이 나왔다는 신기한 일화가 전해지는 우물 ‘복정(鰻井)’ 등이 자리하고 있다.

오전 일정의 마지막 장소는 아름다운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 ‘무진정’. 조선 명종 22년 무진 조삼 선생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후손이 지은 ‘무진정’은 팔작지붕과 누마루 형식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건물로, 조선 전기의 정자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진정 아래에 자리한 1천여평의 반월형 연못 주위에는 아름다운 낙엽길이 형성되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오후 일정을 위해 달려간 곳은 함안의 명산인 여항산의 수려한 산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여산팔경마을. 마을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



비한 식사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꽃감만들기 체험이 열리는 '감꽃향 꽃감농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체험에 앞서 먼저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남 시간을 가졌다. 잘 조성된 잔디밭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회원가족들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주아, 하지희, 손한별 씨가 빚어내는 멋진 국악양상블에 탄성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연주회 후 최종란 씨의 설명과 능숙한 감깎기 시범으로 꽃감만들기 체험이 시작됐다. 회원들이 서투른 솜씨나마 정성스럽게 깎은 이 감들은 두달 후면 맛있는 꽃감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이번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보물 제 71호로 지정된 대사리 석불. 대사골로 불리는 마을 앞 절터에 자리한 대사리 석불은 머리가 없는 좌불상과 좌우 협시보살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의 좌불상은 온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의 석질과 양식으로, 고려시대의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한 11월 테마여행, 2011년 가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2012년 1월에는 **안동**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2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김형집(부산진구 전포3동)
 박희일(해운대구 좌4동)
 선숙자(사상구 모래1동)
 안정미(연제구 연산7동)
 이미경(남구 용호동)
 전성숙(해운대구 우1동)
 정순애(남구 대연 2동)
 조종호(부산진구 전포1동)
 주영미(해운대구 중2동)
 한성권(부산진구 초읍동)

엽서당첨자

김경희(부산진구 연지동)
 김미애(해운대구 좌동)
 김태진(연제구 연산동)
 박동희(연제구 거제동)
 박춘태(연제구 연산9동)
 안혜정(북구 구포3동)
 이춘희(해운대구 우2동)
 조현숙(사하구 괴정4동)
 한미정(서구 토성동)
 황은주(양산시 물금읍)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 독일작가 호프만의 동화를 원작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춤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12월 7일과 8일 국립발레단이 이 작품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 히말리아 14좌는 물론, 7대륙 최고봉 등정, 지구 3극점 북까지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위대한 탐험가로, 지난달 18일 히말리아 안나푸르나 남벽 원정 도중 안타깝게도 실종된 '영원한 산 사나이'.
- 콩쥐 언니.
-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자 없이 민중 사이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 중편소설 '금시조'로 동인문학상, 단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
- 월출산이 있는 전라남도 남서부에 있는 군으로 지난달에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F1 그랑프리'가 개최되기도 했다.
 -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인 고티에의 대본으로 완성된 로맨틱 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와 함께 고전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 작가 이상(李箱)이 지은 연작시. 현실의 부조리, 모순, 혼란 등을 표현한 시로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유학 오경(五經)의 하나. 중국 최고(最古)의 시집으로 공자가 편찬하였다고 전해지나 미상이다.
 -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가곡으로, 카치니, 구노, 슈베르트의 작품이 유명하다.
 - 마법에 걸려 아수가 된 왕자와 아름다운 소녀와의 사랑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 영국의 희극배우, 영화감독. 1914년 첫 영화를 발표한 이래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스', '위대한 독재자' 등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넘나들며 위대한 대작을 만들어냈다.
 - 프랑스의 화가. 주요 작품으로 '씨뿌리는 사람', '이삭줍기', '만종' 등이 있다.
 - 신재효(申在孝)가 개작한 판소리로 변강쇠타령, 횡부가(橫負歌)라고도 한다. 적나라한 성 묘사로 지나치게 비속적이던 원작에 비해 신재효는 이를 서민적인 냄새가 짙으면서도 차원 높은 문학적 표현으로 개작했다.
 - 새해의 첫 날.
 -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 조세감면과 사회복지지출을 억제한 '레이거노믹스'로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초래하였고 대외 정책에서 제 3세계에 위협을 주었다.

세로열쇠

- 베트남의 혁명가, 정치가. 구(舊) 베트남민주공화국 초대 대통령.
- 이 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하여 길조(吉鳥)로 여겨지는 까마귓과의 새.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기술의 소지자로서 인정받은 사람.
- 2009년 칸느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 송강호, 김옥빈 주연의 영화.
- 경주시 토함산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사원. 불국사와 더불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 24호.
- 확대경을 장치하여 놓고 그 속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돌리면서 구경하는 장치나 장난감.
-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를 찾아 나선 19세 미혼모의 이야기를 그린 전수일 감독의 영화.
-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공지 속에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
- 1995년 첫 장편영화 '러브레터'로, 특히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일본의 영화감독.
- 독일의 수도.
-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의 신화에서 비롯된 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하여 오는 심신 단련법의 하나.
- 연극의 대사 대신에 춤에 의하여 진행되는 무용극 예술.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프랑스 궁정에서 발달한 종합 무대 예술이다.

지난호 정답

장	한	나	간	다	라	사
구	비	발	디	오	돌	또
숙	부	원	스	형		
소	인	근	미	인	도	
설	국	이	진	법	스	
제	윤	동	사	서	독	
호	연	지	기	태	이	백
합	백	설	공	주		
승	풍	비	박	산	작	
마	두	금	맥	아	더	막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 김경희(부산진구 연지동)
- 김윤희(부산진구 초읍동)
- 김정희(동구 좌천동)
- 임나리(동래구 사직2동)
- 최황신(사상구 감전2동)

나랏소

- 강영훈(사하구 대대동)
- 강재진(해운대우 우동)
- 김창숙(양산시 중부동)
- 문병숙(남구 대연동)
- 신정기(해운대구 좌동)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민주(영도구 영선동)
- 김은영(중구 중앙동)
- 유승민(북구 화명동)
- 이신혜(수영구 남천동)
- 하아름(연제구 거제4동)

큰집

- 김경민(동래구 온천3동)
-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 윤우영(남구 우암1동)
- 이호광(서구 서대신동 3가)
- 최상갑(부산진구 양정1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셀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민족 요리집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곱담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2011년 12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전시실일정

<p>대 제 14회 대한서화예술대전 12월 3일(토)~12월 6일(화) 배호(011-878-5478)</p>	<p>대 제 29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12월 8일(목)~12월 17일(토) 정대정(010-5488-3375)</p>	<p>대 제 7회 부경서도대전 12월 18일(일)~12월 21일(수) 조상래(011-9501-8181)</p>
<p>대 제 22회 청남서예대상 전국 휘호대회 입상작 전시 12월 23일(금)~12월 25일(일) (사)청남문화(010-4533-2233)</p>	<p>중 우촌 손장의 고화전 12월 23일(금)~12월 27일(화) 손장익(010-2292-1193)</p>	<p>대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졸업전시 12월 27일(화)~12월 30일(금) 배범용(010-4532-0985)</p>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대 내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p>						
				<p>1</p> <p>대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 32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2회 정기연주회-말라 서거 100주년-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BSO(621-4577)</p> <p>중 불가리아 슈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3만원/(주)프로아트(02-585-2934)</p> <p>소 정안선 · 전경화 ·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초대/정안선(010-2545-2291)</p>	<p>2</p> <p>대 2011 고3수험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신영나는 퓨전음악여행 '거위의 꿈' 11:00 균일 5천원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4-1295)</p> <p>중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제 6회 나사함 한마음 음악회' 19:00 무료/(사)나사함(627-8566)</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2-에스타데이 사랑과 평화 콘서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3</p> <p>중 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 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010-4842-6688)</p> <p>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4</p> <p>중 겨울을 여는 클래식 감상음악회 15:00 무료/(제)마리아 사업회(010-2003-4467)</p>	<p>5</p> <p>중 부산콘서트라이더 제 13회 정기연주회 '12월 겨울, 사랑, 희망... 음악여행' 19:30 균일 1만원 클래식아트매니저(010-5555-3825)</p> <p>소 제 2회 함수경 개인공연 프리즘-Red 19:30 균일 2만원/함수경(010-8526-6835)</p>	<p>6</p> <p>중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제 33회 합창정기연주회 -하이든 '사계' 19:30 초대/고신대학교(990-2231)</p> <p>소 아가페 남성중창단 송년발표회 19:00 무료/박중엽(010-6495-2501)</p>	<p>7</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중 연제여성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최갑순(010-8631-8157)</p> <p>소 박유미 피아노 렉처 리사이틀 19:30 초대/박유미(010-4280-7365)</p>	<p>8</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중 제 1128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원드오케스트라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윤두현(010-5872-8480)</p>	<p>9</p> <p>중 임수정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메니저(740-5833)</p> <p>소 부산시립무용단 2011 풍류風流-제 4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10</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1 송년음악회 -슈레,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p> <p>중 리스트 탄생 20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국 리사이틀 17:00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 더 스톱(02-2658-3546)</p> <p>소 토요상설무대-효원국악관현악단 공연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1</p> <p>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2011 송년음악회 17:00 6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문화(1600-1803)</p> <p>중 2011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컬러노마드 '디아스포라 의 꿈' 16:00 무료/부산문화재단(745-7264)</p> <p>소 피아노와 관악기의 만남 17:00 초대/임미진(010-2560-1493)</p>	<p>12</p> <p>대 장하나 첼로 리사이틀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p> <p>소 김유진과 함께 하는 제자음악회 19:30 무료/김유진(010-5015-9215)</p>	<p>13</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미당총판 '호녀 심청' 10:30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소 It's a Gift 20:00 초대/백현주(010-4585-2052)</p>	<p>14</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인과 함께 하는 송년공연 미당총판 '호녀 심청' 10:3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중 부산색소폰동호회 이승장 색소폰클래스 연주회 19:30 무료/이승장(010-4662-0123)</p>	<p>15</p> <p>대 2011 남성성악가양상을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461-4436)</p> <p>중 제 18회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9:30 무료/Jung 메니저먼트(011-589-3111)</p> <p>소 카페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창립 4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19:00 무료/클래식음악을사랑하는사람들(010-8381-2392)</p>	<p>16</p> <p>대 부산 MBC 창사 52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5회 정기연주회 '말라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I - 2011 송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김은주(010-3471-8943)</p> <p>소故 효담 김동조 선생 추모 음악회 19:30 무료/조악래(010-9878-7942)</p>	<p>17</p> <p>대 부산극동방송 2011 송년음악회 'Love, Christmas' 16:00 초대/부산극동방송(780-2833)</p> <p>대 부산극동방송 전속아리랑합창단 2011 정기연주회 'Jazz Christmas' 19:00 균일 1만원 부산극동방송(780-2832)</p> <p>중 'Son Young il Dance Stage-N,01'-미친 개미들- 19:00 1만원 · 7천원/손영일(010-3581-2156)</p> <p>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8</p> <p>대 그라시아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15:30, 19:00 8만원 · 6만원/(사)국제청소년연합 부산지부(627-0852, 010-4143-9191)</p> <p>소 하이로비무용단 제 27회 정기공연 18:00 균일 2만원/김동희(010-2881-1345)</p>	<p>19</p> <p>대 U.K.O 오케스트라 제 24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음악회 19:30 균일 2만원/Jung 메니저먼트(011-589-3111)</p>	<p>20</p> <p>중 U.K.O 유스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이론(010-2373-7959)</p>	<p>21</p> <p>대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5주년 기념 마르코 발레리 초창 2011 송년오페라 갈라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그랜드오페라단(853-2341)</p> <p>소 부산시립국악단 특별공연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국악단(607-3151~2)</p>	<p>22</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1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시립국악단 특별공연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국악단(607-3151~2)</p>	<p>23</p> <p>대 부산시립합창단 '2011 송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중 연극 '보잉보잉' 20: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부산재즈색소폰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김승모(010-9271-0626)</p>	<p>24</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루시드폴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 20:00 7만원 · 6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중 연극 '보잉보잉' 14:00, 17:00, 20: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25</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루시드폴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 16:00 7만원 · 6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중 연극 '보잉보잉' 13:00, 16:00, 19: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26</p> <p>소 최은주 피아노 클래식연주회 19:00 초대/최은주(010-3592-5697)</p>	<p>27</p> <p>대 노엘합창단 창단 50주년 특별연주회 19:30 무료/노엘합창단(010-4183-2293)</p> <p>중 연극 '보잉보잉' 20: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28</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1 송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중 연극 '보잉보잉' 20: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29</p> <p>중 연극 '보잉보잉' 20: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30</p> <p>중 연극 '보잉보잉' 20: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Art Ensemble of Busan 빅밴드 재즈콘서트 19:00 1만 5천원 · 1만원/최창근(010-2963-6450)</p>	<p>31</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1 제야음악회 '기쁜해 오느해' 10: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연극 '보잉보잉' 16:00, 19:00 균일 3만원/SM기획(1600-1602)</p>

December 2011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Galleries

- G M The 14th Korea Pating and Calligraphic Works Art a Complete Collection
12/3(Sat)~12/6(Tue)
Bae hyo (011-878-5478)
- G M The 29th Korea Art Grand Prize Exhibition
12/8(Thu)~12/17(Sat)
Joung Taejoung(010-5488-3375)
- G M The 7th Bukyoung Calligraphy a complete collection
12/18(Sun)~12/21(Wed)
Jo Sangrae(011-9501-8181)
- G The 22nd Choung Nam Calligraphy Grand prize International Writing Championship Prize winner
12/23(Fri)~12/25(Sun)
Choung nam (010-4533-2233)
- M Uchon Son Jang ei Gohui (the age seventy) Exhibition
12/23(Fri)~12/27(Tue)
Son Jang ei (010-2292-1193)
- G Busan University Art department western painting Major graduate exhibition
12/27 (Tue)~12/30(Fri)
Bae Boum young (010-4532-098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G Grand theater
- M Medium theater
- S Small theater

-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J.C/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4

M Open to the 2011, Winter Concert December 15:00 Invitation
Maria Foundation(010-2003-4467)

5

M The Busan Quire regular in concert with chorus 19:30
Busan Concert Quire(010-6506-0226)

S The 2nd Ham Sookyoung dance performance
Ham Sookyoung (010-8526-6835)

6

M The 33rd Chorus Regular concert 'Haydn -The Four Seasons' 19:30
Invitation/Gosin University(990-2231)

S The Agape Female Chorus Last Recital 19:00
Free/Park Joongyup(010-6495-2501)

7

G M [Planning Performance] The National Ballet Company 'Nutcracker Suite' 19:30
₩70,000 ₩50,000 ₩30,000, ₩20,000
B.C.C(607-6058)

M The 10th YounJae Female Chorus Concert
Invitation/Choi Gabsun(010-8631-8157)

S The Pianist Park Yu mi Recital 19:30
Invitation/Park Yumi(010-4280-7365)

8

G M [Planning Performance] The National Ballet Company 'Nutcracker Suite' 19:30
₩70,000 ₩50,000 ₩30,000, ₩20,000
B.C.C(607-6058)

M The 1128th MBC Thursday in concert 19:30
₩10,000 ₩5,000
Yoon Duhyun(010-5872-8480)

9

M The Pianist Im Soo Jyoung Recital 19:30/Busan Arts Management(740-5833)

S The 2011th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erformance 19:30 ₩3,000
B.M.D.C(607-3131~2)

10

G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Last Concert 17:00 Free/B.M.J.C(607-3161)

M The 200th Liszt Concert with Pianist Kim Joung won Concert 17:00
₩55,000 ₩44,000 ₩33,000
the stomp(02-2658-3546)

S Saturday Regular Stage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11

G M The 2011th Last Concert with Orchestra 17:00
₩60,000 ₩50,000 ₩40,000 ₩30,000
Busan Cultural(1600-1803)

M The 2011th Busan Culture Foundation 'Dream of Diaspora' 16:00
Busan Culture Foundation(745-7264)

S To Meet the Piano and Wind instrument 17:00 Invitation/Kim Mijin(010-2560-1493)

12

G Han Na Chang Cello Recital 19:30
₩100,000 ₩70,000 ₩50,000 ₩30,000
B.C.C(607-6057)

S Student Concert with Kim yoo jin 19:30
Free/Kim Yoojin(010-5015-9215)

13

G Youth For Special Performance with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Devoted Daughter, Shim Chung' 10:30 ₩2,000/B.M.D.C(607-3131~2)

S It's a Gift 20:00
Invitation/Back Hyunjoo(010-4585-2052)

14

G Youth For Special Performance with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Devoted Daughter, Shim Chung' 10:30 Free/B.M.D.C(607-3131~2)

M Busan Saxophone Club Concert 19:30
Free/Lee Seounggang(010-4662-0123)

15

G The 2011th Regular Male Singer Ensemble Concert 19:30
₩30,000/Busan Ilbol(646-4436)

M The Violinist Jo Hyoun Mi Recital 19:30
Free/Jung Management(011-589-3111)

S The 4th Classic of Love Concert 19:00
Free/Jun Elyoung(010-3865-1055)

16

G M The 52nd Busan MBC Foundation Commemoration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For Mahler's 100th death year 2, The 2011th Last Concert 19:30
₩10,000 ₩7,000 ₩5,000/B.P.O(607-3111~3)

M The Pianist Kim Un Joo Recital 19:30
Invitation/Kim Enjoo(010-3471-8943)

S The Memorial Concert of Kim Dong Jo 19:30 Free/Jo Ikrae(010-9878-7942)

17

G The F.E.B.C Last Concert 16:00, 19:00
Invitation(780-2833)

M Son Young il Dance Stage-N.01 -Crazy Ants-19:00
₩10,000 ₩7,000/Son Young il(010-3581-2156, 010-9868-0420)

S Saturday Regular Stage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

18

G The Gracia Chorus- 'Christmas Cantata' 19:00 ₩80,000 ₩60,000/Coconut Design(010-8242-0183, 070-7538-5105)

S Hayarobi Dance Company Regular Performance 18:00
₩20,000/Kim Donghee(010-2881-1345)

19

G The 24th Incurable Disease Children for Concert(U.K.O) 19:30 ₩20,000
Jun Youngsu(010-9663-4224)

20

M The UKYO Youth Orchestra Concert 19:30
₩10,000/Park Aron(010-2373-7959)

21

G The Grand Opera Company Opera Gala Concert 19:30
₩100,000 ₩70,000 ₩50,000 ₩30,000
₩20,000
The Grand Opera Company(853-2341)

S [B.M.T.C] 'What People are Living by?' 19:30
₩10,000/B.M.T.C(607-3151~2)

22

G The 2011th Last Concert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2,000/B.P.O(607-3111~3)

S [B.M.T.C] 'What People are Living by?' 19:30
₩10,000/B.M.T.C(607-3151~2)

23

G M The 2011th Last Concert with B.M.C 19:30 ₩10,000 ₩7,000 ₩5,000
B.M.C(607-3141~2)

M [Theater] Boing Boing 20:00
₩30,000/SM(1600-1602)

S The 2nd Busan Jazz Saxophone Ensemble Regular Concert 19:00
₩10,000/Kim Sengmo(010-9271-0626)

24

G [Planning Performance] Silent, Nylon night of LucidFall ₩70,000 ₩60,000
B.C.C(607-6058)

M [Theater] Boing Boing 14:00, 17:00, 20:00
₩30,000/SM(1600-1602)

25

G M [Planning Performance] Silent, Nylon night of LucidFall 16:00 ₩70,000 ₩60,000
B.C.C(607-6058)

M [Theater] Boing Boing 13:00, 16:00, 19:00
₩30,000/SM(1600-1602)

26

S Choi En Joo Piano Class Concert 19:00
Invitation/Choi Enjoo(010-3592-5697)

27

G The 50th Special Noel Chorus Concert 19:30 Invitation
Noel Chorus Company(010-4183-2293)

M [Theater] Boing Boing 20:00
₩30,000/SM(1600-1602)

28

G M The 2011th Busan Metropolitan Tradition Orchestra Last Concert 19:30
₩10,000 ₩7,000 ₩5,000
B.M.T.O(607-3121~2)

M [Theater] Boing Boing 20:00
₩30,000/SM(1600-1602)

29

M [Theater] Boing Boing 20:00
₩30,000/SM(1600-1602)

30

M [Theater] Boing Boing 20:00
₩30,000/SM(1600-1602)

S Art Ensemble of Busan with Performance 19:00 ₩15,000 ₩10,000
Choi Changgun(010-2963-6450)

31

G M [Planning Performance] The 2011th Busan Culture Center New Year Eve Concert 22:30 ₩30,000 ₩20,000
₩10,000/B.P.O(607-311~3)

M [Theater] Boing Boing 16:00, 19:00
₩30,000/SM(1600-1602)



루시시크리폼

7년연속 연말공연 전석매진



LUCID FALL



silent night,
nylon night 2011

아름다운 날들


2011. 12. 24 (SAT) 20:00

12. 25 (SUN) 16: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회관

티켓 : R석 70,000원 S석 6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30대이상 단체구매 20% 할인)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15443.5555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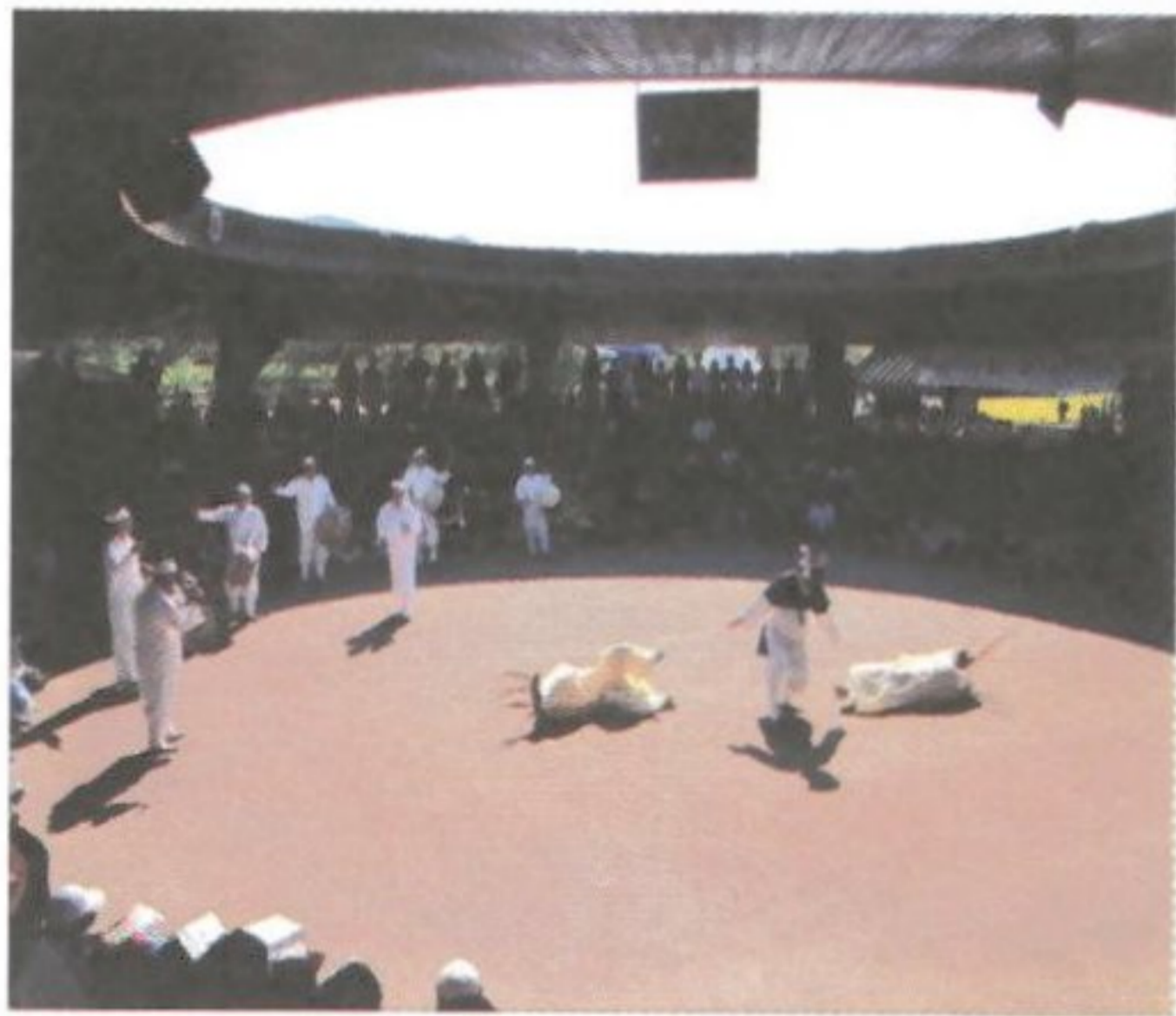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2012년 1월 13일(금)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겨울 여행



하회마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하회마을,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꼽히는 병산서원에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배워본다.

-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30 안동 도착, 부용대, 하회마을,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
- ▶ 12:30 중식
- ▶ 13:00 병산서원 관람
- ▶ 14: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00 전통한지공장 견학 및 공예체험
- ▶ 16:00 부산출발

2012년 2월 10일(금) 가야 문화의 보고 경북 고령



우륵박물관

곳곳에 가야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대가야 건국에서부터 왕국으로의 번영과 성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대가야시대의 순장묘인 지산동 제 44호분을 그대로 재연한 대가야 왕릉 전시관, 악성 우륵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우륵박물관 등에서 가야의 숨결을 느껴본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09:30 고령 도착,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탐방
- ▶ 12:30 개실마을로 이동, 중식
- ▶ 13:00 개실마을 탐방
- ▶ 14:00 전통음식체험
-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부산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코메디 폭소연극 **달링** 20% 할인



2011.12.2(금)~2012.1.1(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12/24일 오후 1:00, 4:00, 7:00, 9:30, 12/25일 오후 3:00, 6:00, 12/31일 오후 4:00, 7:00 9:30)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12/24~25일, 31일 공연 할인 제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사랑과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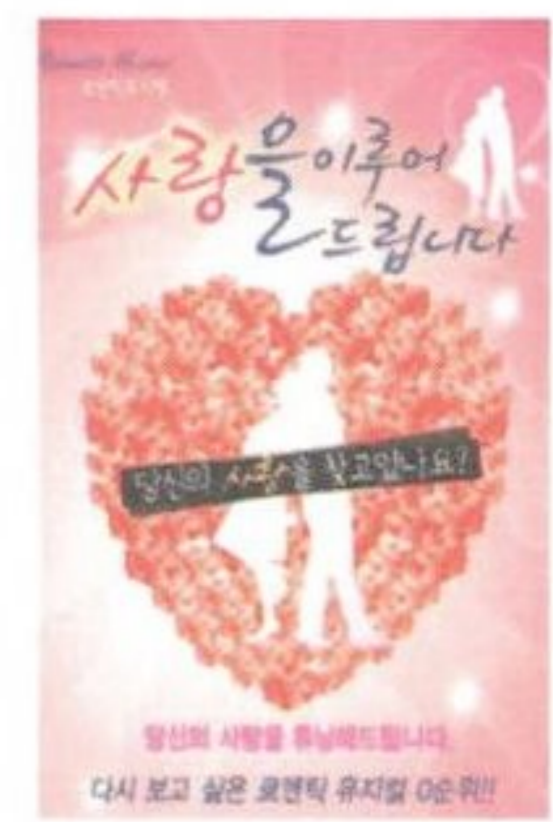
정미, 한 동안 뜸했었지 외다수

2011. 12.2 (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입장권 전석 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20% 할인



2011.11.18(금)~2012.1.1(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균일 35,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값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값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피온스 입니다”



사업분야

경화제사업(Hardner)

- 각종 수지의 고무, 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 가교제, 개질제, 경화제 등에 사용

수지사업(Resins)

-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첨가제사업(Additives)

-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 나노향균코팅첨가제에 사용

기타상품(Others)

-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제야음악회

New Year's Eve Concer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1. 12. 31 토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윤용운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우주호
해금	김소현
색소폰	제이슨리
아카펠라	에코소울
사회	이지희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MBC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